

Annual Report

2021

KBS시청자상담백서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21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5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37
4. 상담내용 분석	45
5. 정보공개 안내	117
※시청자 권익보호란?	122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125
7. 시청자 청원	127
8. 제작진 답변	129
9.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136
- KBS 민원처리규정	141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46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49
-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154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제시된 의견을 방송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방송법 제54조(업무)에 따라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365 일(1 일, 17 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담원 19 명이 주간 2 교대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며,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ARS, 서신,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고 있으며 KBS 사내 게시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KBS 방송제작 및 경영효율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
-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1588-1801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가?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의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2

2021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21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방문,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286,616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261,495건, 91.2%)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기 간	상 담 건 수	증 감	증 감 률
2021년	286,616	▼ 57,734	-16.77%
2020년	344,350	▼ 29,492	-7.89%
2019년	373,842	▼ 2,780	-0.74%
2018년	376,622	▼ 32,658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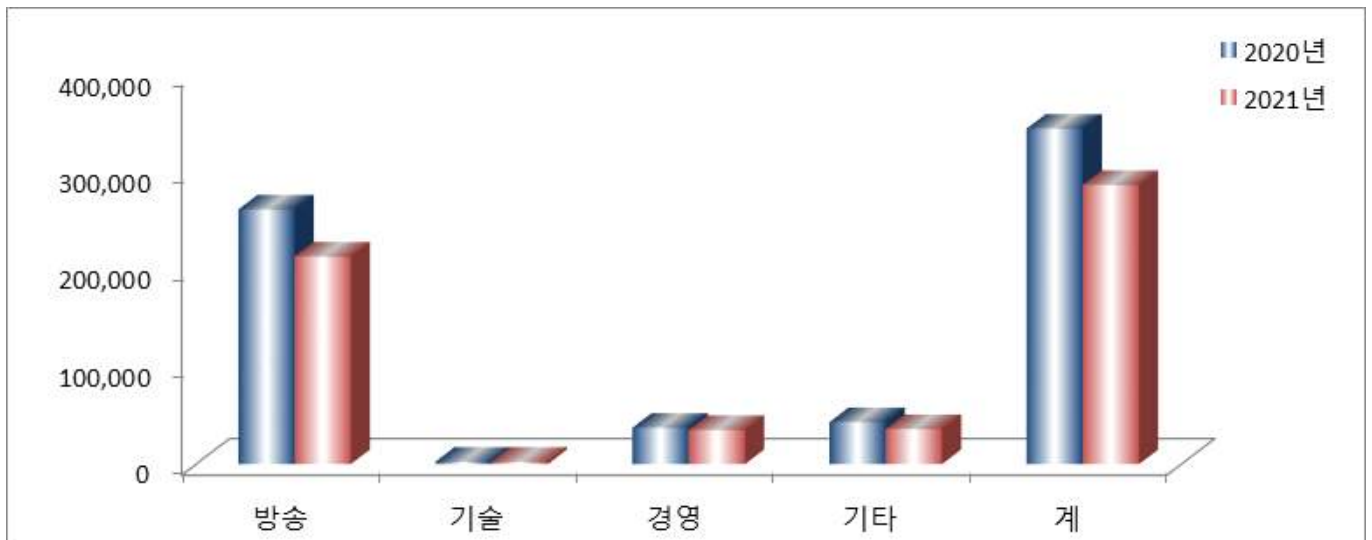


2 시청자의견 집계

■ 2021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	22,481	178	2,807	3,702	29,168	
2	18,272	198	3,586	2,874	24,930	
3	19,010	205	3,363	3,205	25,783	
4	17,326	174	3,052	2,962	23,514	
5	16,294	186	2,869	2,732	22,081	
6	16,799	209	2,610	2,927	22,545	
7	15,834	284	2,660	3,324	22,102	
8	18,245	203	2,534	2,871	23,853	
9	15,702	177	2,258	2,847	20,984	
10	15,853	211	2,255	2,709	21,028	
11	18,209	191	4,066	2,917	25,383	
12	19,052	210	3,027	2,956	25,245	
계	건	213,077	2,426	35,087	36,026	286,616
	비율	74.3%	0.8%	12.2%	1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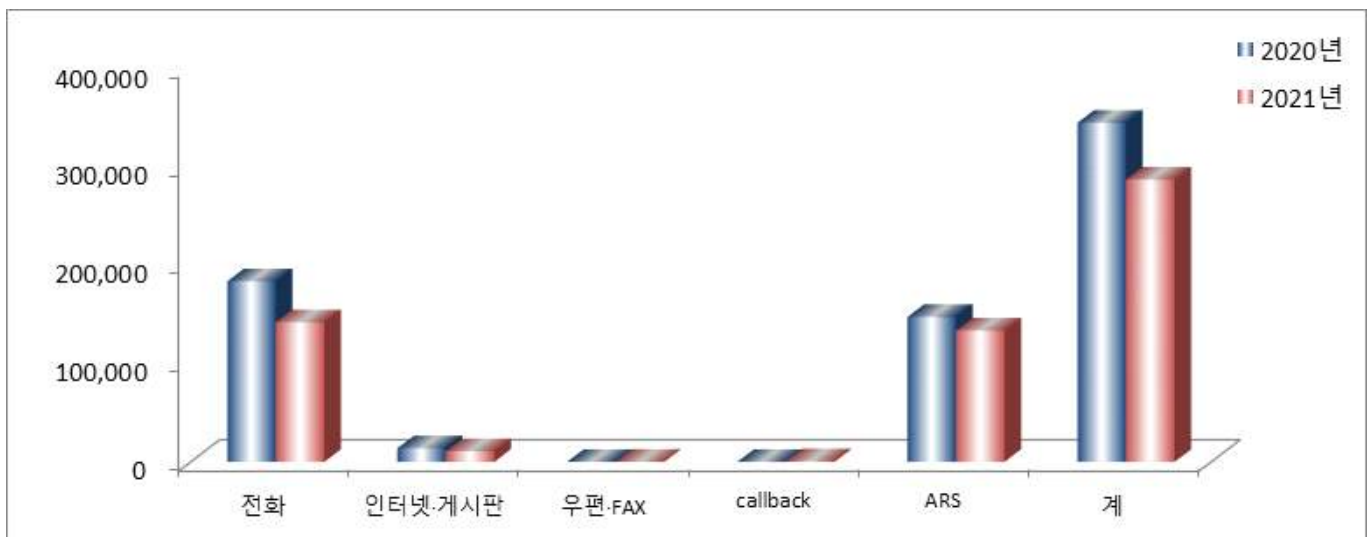
[2020년, 2021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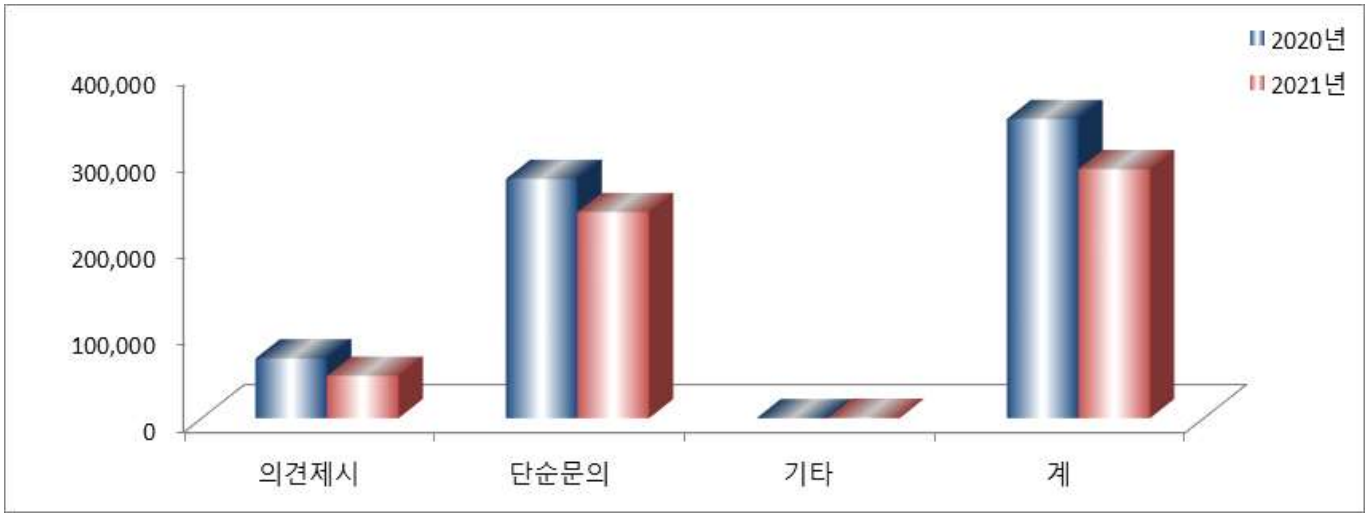
■ 2021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callback	ARS	계	
1	13,375	1,952	6	-	13,835	29,168	
2	12,204	1,084	9	-	11,633	24,930	
3	12,916	839	10	-	12,018	25,783	
4	11,540	644	6	71	11,253	23,514	
5	11,069	493	5	50	10,464	22,081	
6	11,050	905	6	82	10,502	22,545	
7	12,021	889	4	62	9,126	22,102	
8	11,649	894	9	73	11,228	23,853	
9	10,140	824	13	76	9,931	20,984	
10	10,482	444	7	67	10,028	21,028	
11	12,684	643	13	62	11,981	25,383	
12	12,636	1,189	11	59	11,350	25,245	
계	건	141,766	10,800	99	602	133,349	286,616
	비율	49.5	3.8%	0.0%	0.2%	4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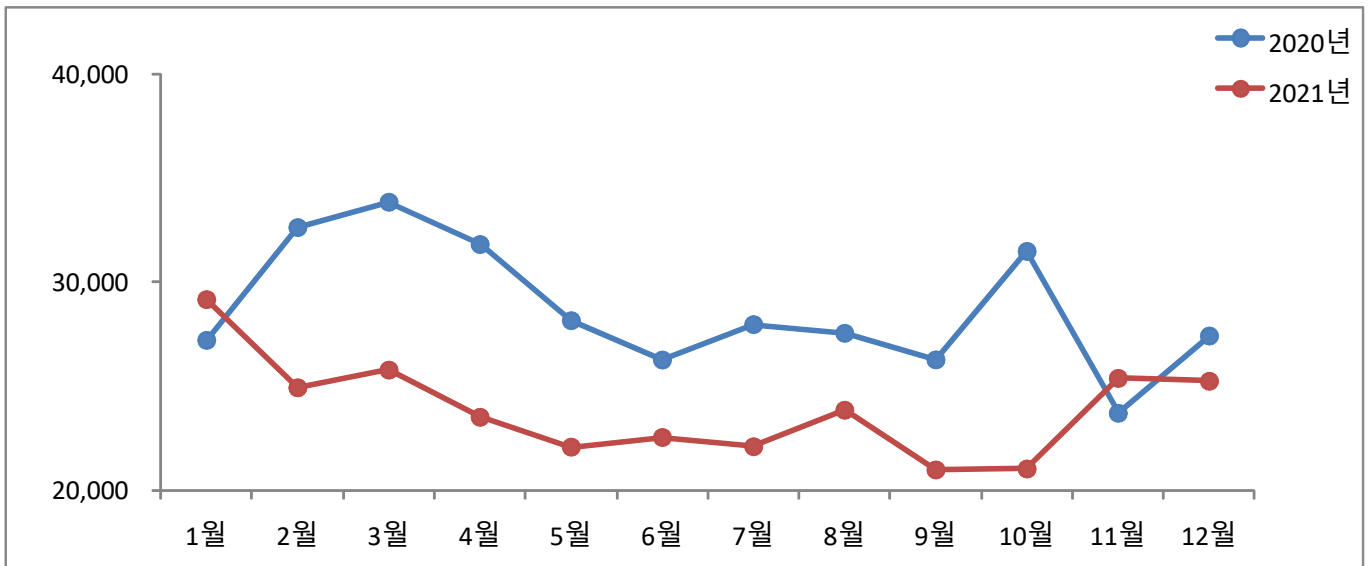
[2020년, 2021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20년, 2021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20년, 2021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21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59	33	-	123	151	117	113	-	507	1,103	
2	60	48	3	102	128	40	30	-	40	451	
3	75	74	-	147	98	79	41	-	-	514	
4	279	63	-	145	55	58	44	-	-	644	
5	251	23	3	166	157	19	29	-	-	648	
6	64	100	-	154	53	60	36	-	10	477	
7	630	77	6	88	37	26	40	-	8	912	
8	404	33	35	140	49	31	27	-	-	719	
9	89	35	-	138	58	30	28	-	-	378	
10	131	43	-	109	36	42	44	-	-	405	
11	146	115	8	142	94	77	40	-	-	622	
12	266	63	-	172	64	65	47	-	-	677	
계	건수	2,454	707	55	1,626	980	644	519	-	565	7,550
	비율	32.5%	9.4%	0.7%	21.5%	13.0%	8.5%	6.9%	0.0%	7.5%	100%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ID 영상	2021년의 애국가 영상이 새로 제작됐다. 애국가 2절에 방탄소년단의 무대영상이 포함됐는데, 멤버 슈가가 빠진 불완전한 방탄소년단의 모습이었다. 일곱 명의 멤버가 모두 포함된 무대영상으로 수정해주기 바란다.	467
2월	수신료 인상 불만	항상 KBS 뉴스를 시청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2,500원으로 유지되었던 수신료가 3,840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심적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남겨 시청자 입장에서 불쾌한 마음이 든다. 수신료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8
3월	6시 내고향	거의 습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일 저녁마다 「6시 내고향」을 찾는 오랜 시청자이다. 고향을 떠난 도시인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해주는 등, 따뜻하고 유익한 내용이 많아 늘 즐겁게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당황스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30
4월	오케이 광자매 스페셜	부모의 이혼 소송 중 벌어진 엄마의 피살 사건에 가족 모두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며 범인을 추적해나가는 내용이다. 미스터리 장르이다 보니 범인을 찾기 위해 매 회 집중해서 시청 중인데, 배우 홍은희 씨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속히 본 방송이 편성되길 바란다.	89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5월	다큐 인사이드	게이 합창단과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인정받고자 하는 한 레즈비언의 이야기를 통해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다뤘다. 본인은 자녀와 함께 매주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데, 이날 주제에 몹시 당황했다. 전체 관람가인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과 가족의 개념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다뤄 유감스럽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것 같아 우려된다.	144
6월	코로나19 통합뉴스룸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 등 유럽 순방 일정 중에 있다. 해외 순방은 최고 단계의 외교인데, 공영방송인 KBS에서 충분히 보도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충분히 보도해주기 바란다.	62
7월	아침마당	매일 오전 「아침마당」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제작진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스튜디오 전체시설을 방역하고, 제작진 및 출연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급히 결방됐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방된 점을 이해하지만, 오랜 시청자 입장에서 몹시 서운했다. 추후에는 최대한 결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주기 바란다.	218
8월	오케이 광자매	광자매들이 새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이광남의 고부갈등과, 허풍진(주석태 분)의 집의 분위기를 바꿔놓겠다고 결심한 이광태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 도쿄올림픽 중계로 인해 연일 결방이 되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 주말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청자가 많으므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00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빨강 구두	<p>부모님과 함께 KBS 2TV 일일드라마를 매일 저녁 시청하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빨강 구두」는 빠른 전개로 긴장감을 형성해 굉장히 몰입해서 시청 중이다. 그런데 추석연휴에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이 편성되며 이를 연속 결방이 되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결방하지 않았으면 한다.</p>	23
10월	인간극장	<p>지난 18일, '내겐 다시 사랑스러운 당신'의 1부가 방영됐다. 이날 2부를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간간 할아버지와 모범청년 재훈이' 편이 방송돼 당황스러웠다. 출연자의 사정이라고 하지만, 시청자들은 갑작스러운 편성 변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출연자 선정을 신중하게 해서 편성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p>	70
11월	빨강 구두	<p>성공을 위해 딸을 버린 엄마와, 그런 엄마에게 복수하는 딸의 이야기를 가슴 졸이며 재미있게 보고 있다. 빠른 전개로 긴장감을 형성해 굉장히 몰입해서 시청 중인데, 이날 야구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되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결방하지 않았으면 한다.</p>	29
12월	국가대표 와이프 스페셜	<p>현실적인 내용에 개성만점 캐릭터들의 열연이 더해져 무척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러나 배우와 스텝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지난 달 29일부터 스페셜 방송이 편성되고 있다. 1회부터 시청해온 시청자 입장에서 흐름이 끊겨 답답하다. 추후에는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스페셜 방송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p>	111

4 월별 Top 10 의견

| 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ID 영상]	467	2021년의 애국가 영상이 새로 제작됐다. 애국가 2절에 방탄소년단의 무대영상이 포함됐는데, 멤버 슈가가 빠진 불완전한 방탄소년단의 모습이었다. 일곱 명의 멤버가 모두 포함된 무대영상으로 수정해주기 바란다.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92	이날 가수 니브(Nive)가 출연해 그룹 BTS의 멤버 뷔와의 훈훈한 일화를 공개했다. 이어 BTS의 새 앨범에 수록된 'Blue&Grey'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유희열 씨가 니브에게 "이 곡을 원곡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곡의 제작에는 니브만이 아닌, 뷔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유희열 씨의 발언은 'Blue&Grey'가 원곡자가 부른 곡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1R [KBS 열린토론]	80	알페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았다. 알페스는 실존 인물 간의 동성애와 성적 관계를 묘사한 하나의 장르로, 실존 인물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강력히 규제해야한다. 그러나 손 변호사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알페스를 하나의 문화로 보며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듣기 불편했다.
[홈페이지 다시보기]	40	KBS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는 시청자이다. 간혹 방송을 놓친 경우에는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홈페이지 다시보기가 재생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 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2TV [비밀의 남자]	27	과거 한유라(이채영 분)는 신분상승을 위해 최준석(이루 분)의 아이를 임신한 채 이태풍(강은탁 분)과 결혼했다. 이후 DL 그룹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차서준(이시강 분)과 다시 결혼했는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짜로 임신한 척을 하고 있다.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비현실적인 전개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비밀의 남자]	22	한유정(엄현경 분)이 기자에게 한유라(이채영 분)가 출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분노한 한유라는 한유정이 친아들처럼 키운 한동호(서우진 분)의 유골을 빼돌렸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갈수록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흘러가는 전개가 보기 불편하니 시정해주기 바란다.
1TV [우리말 겨루기]	20	재미있는 퀴즈와 대결 구도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엄지인 아나운서의 편안한 진행이 집중력을 높인다. 그런데 지난 12월 말부터 엄 아나운서가 휴가로 방송에 참여하지 않아 오랜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아쉽다. 엄 아나운서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복귀해주기 바란다.
2TV [비밀의 남자]	14	이날 한유라(이채영 분)는 자신의 가짜임신이 시아버지 차우석(홍일권 분)에게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 주화연(김희정 분)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또다시 협박하기 시작했다. 협박, 납치, 감금, 살인 교사 등 매회 한유라가 저지르는 악행이 너무 지나쳐 두려운 마음이 든다.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극적인 설정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역사저널 그날]	12	1979년 12월 13일,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을 통해 12.12 사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잣대로 우리나라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또한 역사전문가가 아닌 배우와 외국인 출연자가 방송에서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1TV [가요무대]	9	2021년 새해를 맞이해 가요계 스타들이 출연해서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말 '스타와 함께'라는 부제처럼 김연자, 설운도, 인순이, 박진영, 비 등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해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힘들었기에, 이날 방송된 밝고 경쾌한 노래들이 위안이 됐다. 해당 방송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 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수신료 인상 불만]	28	항상 KBS 뉴스를 시청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2,500원으로 유지되었던 수신료가 3,840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심적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남겨 시청자 입장에서 불쾌한 마음이 든다. 수신료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TV [트롯 전국체전]	24	이날 TOP14 선수들의 준결승 2차 무대가 펼쳐졌고, 이후 TOP8에 들어간 선수들이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물론 참가 선수들 모두 출중한 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한 실력자로 손꼽히던 신미래 씨가 탈락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심사의 공정성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
2TV [트롯 전국체전]	17	마지막 결승행 관문인 준결승 2차 무대가 펼쳐졌고, 결승에 진출할 TOP8이 정해졌다. 그런데 예선에서 두 번이나 1등을 할 만큼 실력이 출중하고, 많은 팬을 보유한 신미래가 갑자기 10위라는 순위로 밀려나며 탈락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공정성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
1TV [사사건건]	17	최근 배구계를 강타한 학교폭력 파문이 연예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날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피해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것은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는 철저히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이며,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기에 듣기 불편했다.
2TV [설 기획 슈퍼맨이 돌아왔다]	15	샘 해밍턴의 아들들인 윌리엄·벤틀리 형제를 보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빠짐없이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샘 해밍턴의 육아방식에 배울 점이 많고, 윌리엄·벤틀리 형제의 귀엽고 순수한 모습에서 위안을 얻는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 샘 해밍턴 가족이 출연하지 않아 크게 상심했다. 매주 샘 해밍턴 가족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트로트 전국체전]	13	해당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을 기다리는 70대 시청자이다. 이날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졌고, 본인을 비롯한 지인들이 투표를 시도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말았다. 트로트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장르이므로, 앞으로는 고령의 시청자들을 위해 전화나 우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평양 지국 개설 불만]	12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해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다수 매체의 보도를 통해 KBS가 약 20억 원을 들여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코로나19로 서민들은 삶이 팍팍한데,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TV [오! 삼광빌라]	11	주말마다 해당 드라마를 꼭 챙겨보는 시청자이다. 혈연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삼광빌라'에 모여 따뜻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다. 다만 시작 시간이 매번 달라 혼란스럽다. 이날도 지나친 광고 편성으로, 편성표에 표기된 시간보다 약 20분이나 지연됐다. 앞으로는 편성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1TV [역사저널 그날]	11	1980년 5월 18일, 대북 특수작전 임무로 훈련된 공수부대가 광주 대학생들의 시위 진압에 전격 투입된 사건을 다뤘다. 공수부대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점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도 무기고를 탈취한 후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날 방송에서 이 점에 대한 비판은 없었던 점이 아쉽다.
2TV [2021 설 대기획 조선 팝 어게인]	11	최근 다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조선팝 어게인」의 무대 배경에 사용된 이미지가 일본식 성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기획된 특집방송이었고, 국악과 다양한 음악을 접목한 음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공영방송 KBS에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져 안타깝다.

| 3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6시 내고향]	30	거의 습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일 저녁마다 「6시 내고향」을 찾는 오랜 시청자이다. 고향을 떠난 도시인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해주는 등, 따뜻하고 유익한 내용이 많아 늘 즐겁게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당황스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3	26일에 오세훈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고 기억하는 경작인들의 주장을 보도한데 이어, 이날도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연이어 보도하는 점이 보기 불편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편파적인 보도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20	정자 기증을 받아 '자발적 비혼모'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가 합류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본인은 학부모로 자녀와 함께 해당 방송을 시청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을 지연 또는 기피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비혼을 부추길 수 있고 해당 방송의 기획의도와도 맞지 않는 출연자를 섭외하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8	KBS 9시 뉴스를 신뢰해서 매일 저녁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내는 점이 편파적으로 느껴진다. 반면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길 바란다.
2TV [오케이 광자매]	15	부모의 이혼 소송 중 벌어진 엄마의 피살 사건에 가족 모두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광자매는 아버지 이철수(윤주상 분)를 범인으로 의심하며, 아버지를 향해 온갖 비난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보기 불편했다. 시청률 때문인지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아쉽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3	'산산조각이 난 전원생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시공사와 일부 계약자들 간의 갈등을 다뤘다. 본인은 해당 전원주택단지에 거주 중이다.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주택단지에 많은 가구가 입주 중인데, 두 가구의 입장만 듣고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1TV [인간극장]	9	아들 둘을 낳은 후, 딸 둘을 더 입양한 안국현.강나루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작년 봄 강나루 씨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지만, 태어나자마자 친엄마와 이별을 경험한 딸들에게 또다시 이별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치료에 힘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최근 입양아 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귀감이 되는 입양가정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2TV [오케이 광자매]	9	아버지 이철수(윤주상 분)와 광자매 간의 대립이 격해져가던 중, 어머니 오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오맹자의 장례식장에서 광자매가 아버지를 향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장면이 그려져 보기 불편했다. 세 명의 딸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고 버릇없이 행동하는데, 가족드라마인 만큼 정도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1TV [누가 뭐래도]	8	한재수(박철민 분)가 자신의 몸 상태를 걱정하는 강대로(최웅 분)에게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긴 채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편 신아리(정민아 분)는 나준수(정헌 분)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종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등장인물들이 자꾸 불행해져 가슴 아프다. 한재수가 건강을 되찾고, 신아리도 행복해지길 바라며 종영까지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2TV [달이 뜨는 강]	7	학부모 시청자이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지수 씨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글이 게재됐다. 그로부터 왕따, 폭력,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공영방송 KBS에서 학교폭력에 연루된 배우 지수 씨를 속히 하차시키길 바란다.

| 4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오케이 광자매 스페셜]	89	부모의 이혼 소송 중 벌어진 엄마의 피살 사건에 가족 모두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며 범인을 추적해나가는 내용이다. 미스터리 장르이다 보니 범인을 찾기 위해 매 회 집중해서 시청 중인데, 배우 홍은희 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속히 본 방송이 편성되길 바란다.
2TV [오케이 광자매 스페셜]	87	해당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 홍은희 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됐다. 해당 드라마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이다 보니, 범인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극의 흐름이 끊기면 흥미가 떨어진다. 가급적이면 전개가 끊어지지 않게 편성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1TV [다큐 인사이드]	24	코로나19 발병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우리 사회의 정원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날은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왜 정원을 가꾸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정원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덕분에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의미 있는 방송을 제작해준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17	수년 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청해온 오랜 시청자이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가 슈퍼맨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에 반대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답한 제작진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2030 세대가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비혼모 출산을 부추길까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고려해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15	가수 조영남 씨가 출연해 '가수 인생 50년, 내 인생의 첫 심표를 찍다'라는 주제로 근황을 전했다. 조영남 씨는 2016년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였으며, 5년 만에 무죄판정을 받았다. 무죄판정을 받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의 대작 사건에 분노했고, 그 외에도 무수한 구설수로 대중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왕이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섭외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3	이날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재보궐 선거의 후보에는 유력 정당 소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과 함께 열전을 치른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보도는 없고, 오직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치우친 보도를 해서 공정하지 않게 여겨졌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2TV [트롯 매직유랑단]	11	단장 송가인 씨의 '거문고야' 무대를 시작으로 오유진 씨, 진해성 씨 등 실력파 가수들이 한층 여유로워진 무대 매너와 여전한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다만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기에는 편성 시간이 너무 늦다. 다음 날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편성 시간을 앞당겨주기 바란다.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11	직장인, 소상공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경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주어 매일 오전 빠짐없이 청취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해당 방송이 방영되지 않아 프로그램이 종영된 줄 알고 너무 놀랐다. 고정 청취자들을 위해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오케이 광자매]	10	엄마의 피살 사건에 아직까지도 가족 모두가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세 딸은 아버지 이철수(윤주상 분)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딸 이광남(홍은희 분)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보기 불편하다. 아무리 드라마라고는 하지만,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대사와 내용을 수정해주기 바란다.
2TV [트롯 매직유랑단]	9	인기리에 종영된 「트롯 전국체전」의 TOP8과 인기가수 송가인 씨, 개그맨 문세윤 씨와 김신영 씨가 함께하는 '트롯트 뮤직토크쇼'이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총출동해서 꼭 시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다만 편성이 너무 늦어 다음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시청에 무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을 조금 앞당겨주기 바란다.

| 5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다큐 인사이트]	144	게이 합창단과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인정받고자 하는 한 레즈비언의 이야기를 통해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다뤘다. 본인은 자녀와 함께 매주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데, 이날 주제에 몹시 당황했다. 전체 관람가인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과 가족의 개념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다뤄 유감스럽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것 같아 우려된다.
1TV [시청자와 함께 30년 아침마당]	54	「아침마당」이 30주년을 맞아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서 ‘희망은 당신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방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102세 김형석 교수가 우산을 들고 방송에 임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오락가락한 날씨에 야외에서 방송을 진행한 제작진에게 실망스럽고, 파라솔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도 성의 없게 느껴진다.
2TV [연중 라이브]	43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경솔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태진 씨가 이날 시청자와 KBS 제작진에게 사과했다. 그렇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그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KBS 제작진을 비난했던 출연자를 여전히 해당 방송에서 보는 것도 불편하다. 과거에도 여성비하와 음주운전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니 하차시켜주기 바란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21	이날 사유리 씨와 4개월 된 아기 젠이 새로운 슈퍼맨 가족으로 합류했다. 본인은 학부모 시청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인 점과, 비혼을 부추길 수 있는 점 등으로 사유리 씨의 출연을 반대한다. 사유리 씨의 출연을 반대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21	최근 사유리 씨의 방송 출연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만약 비혼 여성의 출산의 권리를 허용한다면, 아내 없이 아이를 가지려는 남성의 권리나 동성애자 커플의 출산의 권리도 허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유리 씨의 출연을 반대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미스 몬테크리스토]	17	<p>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후 죽음까지 내몰렸던 고은조(이소연 분)의 처절한 복수극을 매일 저녁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배구 중계로 인해 평소보다 40분이나 일찍 편성이 되어 오랜 시청자 입장에서 당황스러웠다. 될 수 있으면 편성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한다.</p>
2TV [트롯 매직유랑단]	15	<p>「트롯 전국체전」의 TOP8과 인기가수 송가인 씨 등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출연해서 꼭 시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본방송의 편성이 너무 늦어 매주 재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재방송마저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편성은 시청자와의 약속인 만큼 가급적이면 지켜주기 바란다.</p>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12	<p>지난 2일부터 일본 출신 방송인이자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씨가 아들 젠과 함께 합류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차가워진 관계와, 자발적 비혼모가 국민정서와 조금 거리가 있는 점 등으로 방송에서 사유리 씨를 보는 게 불편하다. 여러 이유로 사유리 씨의 출연을 반대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p>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p>매일 아침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전문가가 출연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결방이 되어 오랜 시청자 입장에서 무척 속상하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p>
2TV [뮤직뱅크 스페셜]	10	<p>이날 해당 방송의 제작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방송 예정이었던 「뮤직뱅크」는 결방이 되고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됐다. 음악 프로그램은 라이브가 묘미인데, 스페셜이라는 명목 하 예전 영상이 방영되어 무척 실망스러웠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라이브 방송이 편성되길 바란다.</p>

| 6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p>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p>	62	<p>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민방문 등 유럽 순방 일정 중에 있다. 해외 순방은 최고 단계의 외교인데, 공영방송인 KBS에서 충분히 보도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충분히 보도해주기 바란다.</p>
<p>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p>	32	<p>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다고 속여 결혼한 딩크족 부부가, 아내의 임신으로 정관수술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강승화 아나운서가 '아내를 사랑한 것 같다', '축하할 일이다' 등 남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합의된 비출산에 아내를 속인 것은 명백한 사기인데, 진행자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은 옳지 않다. 진행자의 사과를 촉구한다.</p>
<p>1TV [가요무대]</p>	26	<p>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는 월요일 밤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앞으로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p>
<p>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p>	11	<p>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랜만의 해외순방인데, 정작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 답답하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상세히 보도해주기 바란다.</p>
<p>2TV [미스 몬테크리스토]</p>	10	<p>제왕그룹 오병국(이황의 분) 회장이 나옥도(안희성 분)를 시켜 우만그룹 지나 황(오미희 분) 대표를 죽이는 내용이 방영됐다. 해당 드라마의 모든 악역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 주인공의 복수는 전혀 진척이 없고, 악역들이 저지르는 악행은 너무 잔인해서 시청하기 불편하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아침마당]	8	이날은 패자부활전으로 꾸며졌다. 함경도 출신 탈북자 가수부터 81세 늦둥이 가수까지, 다양각색의 사연을 지닌 출연자들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해주어 즐겁게 시청했다. 여느 때처럼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참가자에게 투표도 했는데, 투표에 만족하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본인도 '도전 꿈의 무대'에 참가해보고 싶다.
2TV [미스 몬테크리스토]	7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까지 내몰렸던 고은조(이소연 분)가 복수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은조의 복수가 거의 눈앞에 다다랐는데, 이날 고은조를 돕던 황지나(오미희 분)가 갑자기 혈관성 치매에 걸려 고은조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다. 그동안 꾸준히 시청해온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허탈하다. 종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2TV [랜선 장터]	7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농어민과 힘을 합쳐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시작을 장식할 첫 번째 특산물은 대표적인 K-푸드인 '영천 한우'와 '강진 묵은지'였는데, 입맛을 돋우는 특산품들에 절로 소비욕구가 샘솟았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어 감사하다.
[KBS WORLD News]	7	'KBS 월드 뉴스'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thumbnail)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이 유독 많다. 썸네일은 일반적으로 영상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이 유독 많은 것은 고의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해당 유튜브 채널을 시청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6	125번째 여정은 한반도 중앙에 있어 한반도의 배꼽으로 불리는 강원도 철원에서 펼쳐졌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평화를 꽃피워낸 동네답게, 따뜻하고 정겨운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돌미나리나물밥, 철원막국수 등 생소한 음식들을 많이 소개해주어 재미를 더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자들의 팍팍한 삶에 위안을 전해주어 감사하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아침마당]	218	매일 오전 「아침마당」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제작진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스튜디오 전체시설을 방역하고, 제작진 및 출연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급히 결방됐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방된 점을 이해하지만, 오랜 시청자 입장에서 몹시 서운했다. 추후에는 최대한 결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주기 바란다.
2TV [디어엠]	132	서연대학교를 발각 뒤집어놓은 고백 글의 주인공 'M'을 찾는 청춘 로맨스 드라마로 방영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주연배우 박혜수 씨의 학교폭력 의혹 논란으로 편성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아직까지도 편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답답하다. 많은 사람들이 방영을 기다리고 있으니, 재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는 등의 속히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2TV [오케이 광자매]	89	지난 회 방송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렸던 이광남(홍은희 분)·이광식(전혜빈 분)·이광태(고원희 분) 자매들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 하며 이날 방송을 기다렸다. 그러나 '제32회 도쿄올림픽' 생중계로 결방이 되어 굉장히 서운했다. 주말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청자가 많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속아도 꿈결]	28	다른 문화의 두 집안이 부모의 황혼 재혼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제 극이 중반을 넘어서며 흥미진진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출연 배우 중 1명이 지난 6일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으며 일주일간 결방이 결정됐다. 부득이한 상황이라 이해는 하지만,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방송을 재개해주기 바란다.
2TV [빨강 구두]	20	엄마에 대한 복수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김진아(소이현 분)가 민희경(최명길 분)의 회사에 입사하며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모녀 관계가 궁금해서 열심히 시청 중인데, 도쿄 올림픽 중계로 결방이 잦아 속상하다. 1TV에서 올림픽 중계를 충실하게 하고 있으니, 2TV에서는 정규 방송을 편성해주었으면 한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6시 내고향]	11	매일 저녁 「6시 내고향」을 빠짐없이 시청하는 오랜 시청자이다. 도쿄 올림픽 중계로 이번 주 내내 결방이 된다고 하는데, 매일 시청하던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으니 굉장히 허전하다. 해당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고정 시청자가 많으니, 앞으로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이날 청해부대 코로나19 감염자가 4명 추가되며, 부대원 중 확진자 비율이 89.7%까지 상승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는 군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는 보도가 많은 점이 아쉽다. 그뿐 아니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보도가 없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1TV [2020 도쿄올림픽]	10	지난 23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0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지상파 3사 모두 올림픽 중계에 돌입했고, 특히 KBS에서는 1TV와 2TV 모두 올림픽 중계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정규 프로그램들이 결방되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채널 선택권이 없는 느낌이다. 1TV와 2TV 중 한 채널에서만 올림픽을 중계하고, 나머지 채널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 분야와 음식은 물론, 생활 과학에서 경제까지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일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중계로 인해 이번 주 내내 결방되고 있다. 올림픽 중계도 중요하지만, 매일 오전 해당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입장도 배려해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서울 한복판에서 1만 명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고, 이날은 1천200명대로 치솟았다. 그런데 KBS 뉴스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비판하는 보도가 없어 안타깝다. 또한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없는 점도 실망스럽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오케이 광자매]	200	광자매들이 새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이광남의 고부갈등과, 허풍진(주석태 분)의 집의 분위기를 바꿔놓겠다고 결심한 이광태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 도쿄올림픽 중계로 인해 연일 결방이 되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 주말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청자가 많으므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34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주옥같은 명곡을 들려주어 매주 월요일마다 챙겨본다. 시청자들에게는 해당 방송이 매주 월요일 밤의 큰 즐거움인데, 8월 들어 벌써 두 번째 결방이 됐다. 중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20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는 매주 월요일 밤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여기는 도쿄]	19	오연종 아나운서와 김자인 선수가 스포츠클라이밍 남자 콤바인 예선전 해설을 맡았다. 그런데 김자인 선수가 경기의 규칙과 기술 등을 설명할 때, 오 아나운서가 김자인 선수의 말을 끊고 개인적인 발언이나 감탄사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진행을 했다. 그뿐 아니라 오 아나운서는 전문 용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다음 중계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다.
2TV [오케이 광자매]	19	'가족극의 대가'로 불리는 문영남 작가의 작품이고, 배우 라인업도 화려해 매주 주말마다 재미있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도쿄올림픽 개막 이후, 올림픽 중계 일정으로 해당 드라마가 자주 결방되어 서운했다. 이날도 결방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극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이제부터는 결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아침마당]	15	매일 오전 「아침마당」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이날은 도쿄올림픽 중계로 인해 해당 방송이 결방됐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방된 점을 이해하지만, 오랜 시청자 입장에서 몹시 서운했다. 추후에는 최대한 결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주기 바란다.
1TV [속아도 꿈결]	14	막장 요소 없는 착하고 따뜻한 드라마로 매일 저녁 빠짐없이 시청 중이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출연 배우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며 결방이 되는가 하면, 2020 도쿄올림픽 중계로 인해 여러 차례 결방이 된 바 있다. 이날도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 중계로 인해 또 결방이 됐다. 이제부터는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종영까지 결방 없이 편성해주기 바란다.
1TV [열린음악회]	11	매주 일요일 오후 방송되는「열린음악회」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가수를 통해 매 회 색다른 무대를 선사해주어 늘 즐겁게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많이 아쉬웠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10	동네의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도시 기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우리나라 곳곳의 숨겨진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다. 그런데 이날은 도쿄올림픽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랜선 장터]	10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농어민과 힘을 합쳐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예능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의 기획임에도 구매방법이 까다로워 고령층 시청자들은 구매할 수 없다. 회원가입, 비밀번호 등록 등 어려운 절차를 없애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빨강 구두]	23	부모님과 함께 KBS 2TV 일일드라마를 매일 저녁 시청하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빨강 구두」는 빠른 전개로 긴장감을 형성해 굉장히 몰입해서 시청 중이다. 그런데 추석연휴에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이 편성되며 이를 연속 결방이 되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결방하지 않았으면 한다.
2TV [2021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22	지난해 추석에는 KBS에서 나훈아 씨와 함께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공연을 선사했다. 올해 추석에도 역시 심수봉 씨와 함께 '피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연을 준비해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스케일 있는 대형무대부터 심수봉 씨의 애잔한 음색까지, 150분이 짧게 느껴지는 멋진 공연이었다. 암담한 시기에 좋은 공연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어 감사하다.
1TV [아침마당]	17	'트로트계의 국민 누나들이 떴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화요초대석'에 가수 서지오 씨와 유지나 씨가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시청하고 있었는데, 서지오 씨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착용해 민망했다. 남녀노소 함께 시청하는 아침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들은 단정한 옷차림에 신경써주었으면 한다.
1TV [2021 추석장사 씨름대회]	11	충남 태안군 태안 체육관에서 열린 '2021 추석장사 씨름대회' 결승전을 손에 땀을 쥐며 시청했다. 최근 씨름이 대중들의 눈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있었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씨름이라는 종목을 재발견 할 수 있었다. 추석을 맞아 민속경기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2TV [오케이 광자매]	7	이광남(홍은희 분)이 술에 취해 시어머니 지풍년(이상숙 분)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방영됐다. 고부갈등 때문이었는데 그동안 이광남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은 이해하지만, 일반적인가정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기에 보기 불편했다. 또한 오탱자(김혜선 분)가 무려 28살이나 어린 변공채(김민호 분)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는 설정도 공감하기 어렵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	매일 오전 해당 프로그램을 꼭 챙겨보는 시청자이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계로 인해 편성이 조금 늦춰져 10시 40분에 방송이 시작된다고 자막으로 안내받았다. 그러나 그보다도 10분가량이나 더 지체되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더욱이 지난 8일에는 결방까지 되었던 터라 아쉬움이 크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이나 편성 변경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특집 다크 한탄강은 흐른다]	7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한탄강과, 그 강을 벗 삼아 살아가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탄강에는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는데, 어부들이 참계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는 모습에 군침이 돌았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이어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들과, 오랜 세월 어부들에게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는 한탄강의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유익했다.
1TV [추석특집 감성로드다큐 한 번쯤 멈출 수밖에]	7	가수 이선희 씨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들 위로 떠나는 기행 다크 프로그램이다. 함께 길을 걸을 친구로 악뮤, 이금희 씨, 김이나 씨가 출연했는데, 요즘 살아가는 고민과 관심사와 마음속의 말들을 나누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따스한 공감과 재미를 전했다. 방송 내내 높은 산을 오르고, 비 오는 아침을 맞고, 별을 보는 등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행복했다.
1R [주진우 라이브]	6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의 성향이 편파적이라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자주 전화 인터뷰를 갖는 점도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다. 앞으로는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공정하고 진지한 태도를 취해주었으면 한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6	엄마 없이 아빠와 아이들이 다양한 일을 겪으며 추억을 쌓아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특히 윌리엄·벤틀리 형제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가장 좋아하는 가족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계속 방송에 출연하지 않아 하차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꼭 샘 해밍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0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인간극장]	70	지난 18일, '내겐 다시 사랑스러운 당신'의 1부가 방영됐다. 이날 2부를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깐깐 할아버지와 모범청년 재훈이' 편이 방송돼 당황스러웠다. 출연자의 사정이라고 하지만, 시청자들은 갑작스러운 편성 변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출연자 선정을 신중하게 해서 편성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1TV [중계방송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2	이날은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군의 날'이다. KBS에서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중계해주어 감명 깊게 시청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용맹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위안이 됐다. 뜻깊은 날 의미 있는 방송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2TV [1박 2일]	9	배우 김선호 씨의 사생활 논란이 터지며 출연분 편집 및 하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1박 2일」을 사랑했던 시청자로서는 멤버의 갑작스러운 하차가 서운하고, 한 개인의 연애사로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해당 방송에서 김선호 씨가 하차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KBS의 간판 예능으로 명맥을 이어온 「1박 2일」이 잠시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일도 없길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9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를 옹호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후,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KBS에서 해당 사진을 지나치게 조명하며 윤 후보를 비판하는 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반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공문에 직접 서명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적어 공정하지 않게 느껴진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사망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국민이 뽑은 전직 대통령인데 '서거' 혹은 '별세'라는 표현 대신 '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보기 불편했다.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재임기간동안 외교와 경제, 부동산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KBS에서 공적도 함께 조명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일요진단 라이브]	8	이상돈 전 의원이 출연해 대선 얘기를 나눴다. 대장동 이슈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필요하다는 입장이 64.5%로, 국민 여론의 2/3 정도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는데 이날 이상돈 전 의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상돈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학 시절 은사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 측 인사를 섭외해 균형을 맞춰주었다더라면 더 유익하고 공정한 방송이 되었을 것 같다.
2TV [1박 2일]	8	배우 김선호 씨가 사생활 문제로 하차했다. 이날 김선호 씨의 분량이 통편집 되었지만, 간간히 화면에 모습이 잡혀 보기 불편했다. 간혹 물의를 빚은 연예인을 방송에 재출연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1박 2일」은 국민 예능인만큼 김선호 씨의 재합류가 없길 바라고, 다음 회 방송에서는 더 철저히 편집해주시기 바란다.
2TV [신사와 아가씨]	8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아가씨와 신사가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이날 방송 말미에 이영국(지현우 분)과 박단단(이세희 분)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하며 핑크빛 기류에 휩싸여 다음회가 궁금하다. 그뿐 아니라 임영웅 씨가 부른 감성적인 OST도 극과 잘 어우러져 재미를 더한다. 앞으로도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호연이 기대하겠다.
1TV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	7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8명이 4강 잔류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어느 후보가 내년 대선 민심을 정확히 읽고 차별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편성이 되어 다음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시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중요한 TV토론회였던 만큼 늦은 편성시간에 아쉬움이 남는다.
1TV [열린음악회]	6	매주 일요일 오후 방송되는 「열린음악회」를 오랜 기간 시청해온 시청자이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가수를 통해 매 회 색다른 무대를 선사해주어 늘 즐겁게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 달리 한 시간 일찍 편성이 되어 당황스러웠다. 편성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가급적이면 편성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빨강 구두]	29	성공을 위해 딸을 버린 엄마와, 그런 엄마에게 복수하는 딸의 이야기를 가슴 졸이며 재미있게 보고 있다. 빠른 전개로 긴장감을 형성해 굉장히 몰입해서 시청 중인데, 이날 야구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되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결방하지 않았으면 한다.
1TV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	26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고, KBS에서 생중계했다. 그런데 선정된 국민 패널들이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패널들의 질문 수준에 실망스러웠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5	최근 대선후보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순이었다. 그런데 정작 언론에선 허경영 후보를 비롯한 소수정당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적다. 소수정당 후보들도 좋은 공약을 걸고 출마하므로, 주요정당만큼 소수정당 후보들의 공약도 공정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2TV [신사와 아가씨]	25	기억상실에 걸린 이영국(지현우 분)이 가족들에게 41살이 아닌 22살로 살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었는데 기억상실이라는 황당한 전개가 실망스럽다. 그뿐 아니라 이기자(이휘향 분)가 왕대란(차화연 분)의 금과 보석을 훔쳐 돈으로 바꾸는 장면도 보기 불편했다. 온 가족이 시청하는 가족드라마에 기억상실, 도둑질 등 공감하기 어려운 소재가 계속 그려지는 점 시정해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KBS에서 진행하는 대선 후보 지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를 포함한 군소정당 후보들이 빠져 있다. 허경영 후보의 경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지지율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여론조사에서 제외되는 점이 편파적이다.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나 지지율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와 같은 비중으로 공정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빨강 구두]	19	KBS 2TV 일일드라마를 매일 저녁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현재 방영 중인 「빨강 구두」는 빠른 전개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어 굉장히 몰입해 시청 중이었다. 그런데 이날 야구 중계로 결방이 되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결방하지 않았으면 한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9	지난 22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한반도 외곽순환 고속철도망' 구상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선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빠지는 등, 허경영 후보와 관련된 보도가 거의 없어 편파적이다. 다른 소수정당 후보들에 대한 보도 역시 거의 없다.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공정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 정확한 소식을 듣기 위해 12시 뉴스를 시청했는데, 앵커와 기자 모두 전두환 씨라고 지칭해 듣기 불편했다. 물론 유죄가 인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 받을 자격은 없지만, 공영방송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예의를 갖춰주었으면 좋겠다.
2TV [불후의 명곡]	14	이날 방송에 트로트 가수 영탁이 스페셜MC로 참여한다고 하여 기대를 품고 시청했으나, 통편집 되어 영탁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음원 사재기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음원 사재기도 제작자의 자의적 행위로 판명됐다. 이런 상황에서 영탁을 통편집 한 것은 지나친 처사로 여겨져 서운하다.
2TV [개는 훌륭하다]	13	지난 28일, 해당 프로그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토론 안건] 중대형견 외출 시 입마개 의무화 찬성과 반대 입장,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미 입마개 의무화 건종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중대형견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토론 안건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해당 안건이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분쟁을 일으킬 소재가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된다.

| 1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국가대표 와이프 스페셜]	111	현실적인 내용에 개성만점 캐릭터들의 열연이 더해져 무척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러나 배우와 스태프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지난 달 29일부터 스페셜 방송이 편성되고 있다. 1회부터 시청해온 시청자 입장에서선 흐름이 끊겨 답답하다. 추후에는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스페셜 방송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2TV [2021 KBS 연기대상]	38	올해도 KBS의 연말 시상식을 무척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이다. 최근 「2021 KBS 연기대상」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접속했는데, 수많은 시청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이 '올해의 드라마' 명단에서 누락되어 당황스러웠다. 현재는 명단이 수정되어 업데이트 되었지만, 해당 드라마의 팬들은 이미 상처를 받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2TV [2021 KBS 송년특집 -We're HERO 임영웅]	32	KBS에서 송년특집으로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날 150분을 꽉 채운 다채로운 공연으로 그간의 힘들음을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8	'굿모닝 머니' 코너에서 '이색동물로 재테크하는 법'이 다뤄졌다. 고가에 거래되는 희귀 파충류들을 소개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를 돈 벌이 수단으로 소개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파충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돈을 위한 수단으로 번식하고, 택배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 공영방송에서 생명 경시 풍조를 가져올 수도 있는 내용을 방영한 점이 실망스럽다.
1TV [국가대표 와이프 스페셜]	16	강남 집 한 채로 삶의 클래스를 올리려 고군분투하는 서초희(한다감 분)의 이야기로, 해당 드라마를 통해 행복은 집 자체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임을 깨닫고 있다. 그런데 배우와 스태프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이날 스페셜 방송이 편성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본 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우리말 겨루기]	15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 매주 월요일마다 자녀와 함께 시청한다.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말 지킴이 운동에 앞장서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많이 아쉬웠다. 고정 시청층을 위해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긴급진단 유은혜 정은경에게 묻는다]	15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KBS에서 생중계로 긴급 편성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관련 대담을 가졌다. 현재 기저질환 환자들이 우려하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는데, 백신패스만 운운해 답답했다. 백신 부작용 등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아 전반적으로 답답하고 미흡한 방송이었다.
2TV [2021 KBS 송년특집 -We're HERO 임영웅]	15	대세 가수 임영웅 씨가 KBS와 함께 송년 특집 단독쇼를 준비해주어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특히 이번 공연이 임영웅 씨의 데뷔 첫 단독쇼로 알려져 팬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2021년의 마지막 일요일 밤에 멋진 공연을 편성해준 것, 그리고 코로나로 암담한 시기에 즐거운 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준 것에 감사인사를 전한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국 뉴욕대 관련 경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많은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어 편파적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거대 양당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공정한 비율로 보도해주기 바란다.
2TV [신사와 아가씨]	12	겨우 기억을 되찾은 이영국(지현우 분)이 박단단(이세희 분)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다음날 실수였다고 말을 바꿨다. 어느 날 갑자기 이영국이 기억상실에 걸려 연인이던 박단단을 두고 조사라(박하나 분)와 약혼한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기억을 되찾은 후에도 통쾌한 전개가 이어지지 않으니 답답하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속 시원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1 주요의견 선정 기준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명예훼손, 성명, 초상, 음성 침해, 모욕죄)에 침해를 받은 내용

△ 방송제작의 공영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영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2

시청자상담 의견분류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논란, 논거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피해, 외주제작사 관련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요청, 심층보도요청, 후속보도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제언, 보도제언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제작진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KBS 시청자의견 일일보고서 [1.13]

■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000, 2217) [작성: (주)케이티아이에스]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1. 1. 12.(화) 06:00 ~ 23:00
- 상담건수¹⁾: 1,611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

-프로그램명 : 「인간극장」 ‘아빠, 그 이름만으로도’

-방송일시 : 2021. 1. 12.(화) 1TV (07:50-08:25)

20년 차 연극배우이자 두 아들의 아빠인 이종승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연들이 연이어 취소되며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벌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남의 일 같지 않아 공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희망을 잃지 않는 배우 이종승 씨를 응원하겠다.

○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40명)

-프로그램명 : 「홈페이지 다시보기」

KBS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는 시청자이다. 간혹 방송을 놓친 경우에는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홈페이지 다시보기가 재생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 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열린음악회” 출연자 섭외 관련 외 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1,611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655	130	-	-	812	1,611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698	646	23	-	3	241	1,611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98	1,313	-	1,611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214	5	239	153	1,611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결방 제언</p> <p>【보 도】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보도 요청</p> <p>【시사교양】 ○「우리말 겨루기」 - 진행자 호평 ○「인간극장」 - 방송 호평</p> <p>【드라마】 ○ 일일드라마「비밀의 남자」 - 극본 제언</p> <p>【라디오】 ○「김미숙의 가정음악」 - 진행자 제언</p> <p>【기 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p>	<p>【방 송】 ○「6시내고향」 - ‘순대’ 연락처 문의 114건 ○「2TV 생생정보」 - ‘예식장’ 연락처 문의 71건 ○「트롯 전국체전」 - ‘온라인 방청’ 문의 27건 ○「아침마당」 - ‘출연자’ 연락처 문의 24건 ○ 일일드라마「비밀의 남자」 - ‘극본 제언’ 16건</p> <p>【기 술】 ○「난시청」문의 5건</p> <p>【경 영】 ○「홈페이지」문의 162건 ○「수신료」문의 22건 ○「프로그램 구입」문의 40건 ○「전화교환」문의 14건 ○「사업 및 행사」문의 1건</p> <p>【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53건</p>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결방 제언	<p>○「무엇이든 물어보세요」(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 11.(월) 1TV (10:00-11:00) -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많아서 매일 오전 꼭 챙겨본다. 전문가가 출연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주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중계방송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2021. 1. 11.(월) 1TV (10:00-10:30) 「공감 스페셜」 2021. 1. 11.(월) 1TV (10:30-10:55) 방송됨. [KBS 편성표]</p>
[보 도]	
보도 요청	<p>○「코로나19 통합뉴스룸」(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받는다. 본인은 장애인이며 최근 실업까지 했다. 본인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3차 재난지원금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 점이 너무 안타깝다. 자영업 중심의 지원으로 사각지대에 몰린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진행자 제언	<p>○「김미숙의 가정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 12.(화) 1FM (09:00-11:00) - 서정적이고 아늑한 음악 위주의 선곡이 좋아서 매일 오전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 김미숙 씨가 역대 진행자들에 비해 음악에 대한 해설이 부족하고, 음악 이외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점이 조금 아쉽다.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방송이므로 음악에 더 집중하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기 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	<p>○「홈페이지 다시보기」(40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는 시청자이다. 간혹 방송을 놓친 경우에는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홈페이지 다시보기가 재생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 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 <부서답변> 어도비(Adobe) 社의 Flash Player 기술지원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10 이하 버전을 포함한 일부 브라우저에서 KBS 홈페이지의 온에어/VOD 및 보이는 라디오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구글 크롬,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디지털서비스운영부]</p>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p>⊙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27 건</p>

4

상담내용 분석

| 1. 편성 |

○ 1TV 「2021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빈필하모닉이 매년 1월 1일 개최하는 음악회를 보여주는 방송이다. 좋은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어서 해마다 잊지 않고 챙겨본다. 그러나 편성이 너무 늦어 다음 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시청하기 어렵다. 방송을 놓친 시청자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1TV 「용의 눈물」

- 이성계의 조선 개국에서 세종조까지의 개국사를 담은 사극이다. 방영 당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여러 차례 연장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통 사극의 제작이 주춤한 것 같아 허전하다. 「용의 눈물」은 역사극에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이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1TV 「2021 대한민국 가수대행진」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설날 연휴 마지막 날에 「2021 대한민국 가수대행진」을 방영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로 힘든 시청자들을 위해 '우리 함께 다시'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출연자들이 대거 출연해 재미있게 시청했다. 해당 방송을 한 번 더 시청하고 싶으니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1TV 「공감 스페셜」'어매들의 노래방'

- 전남 진도 소포리, 마이크와 노래방 기기 대신 북과 함지박이 놓인 특별한 노래방을 소개했다. 새벽부터 발으로, 갯벌로 나가 온종일 일한 어매들이 저녁이면 비좁은 방에 모여 북과 함지박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고단한 하루의 시름을 풀어놓는 곳이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방송이었고,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1TV 「세계의 공영방송 가치+」

- 자신의 혈통을 찾아 아프리카에 간 사무엘 잭슨이 노예가 된 그의 조상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다뤄졌는지 알 수 있었다. 공익성이 높은 고품격 프로그램인데 너무 늦은 시간에 방송돼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 편성 시간을 앞당겨 조금 더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1TV 「내고향 스페셜」'설에는 네박자'

- 해당 방송은 「6시 내고향」을 재편집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지난 설에 '네박자'가 코로나19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전남 보성군의 주민들에게 직접 수확한 과일과, '까치까치 설날은' 노래를 선사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그런데 3월에 방송하기에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재방송이라도 시기적절한지 고려해주기 바란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스페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도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됐다. 덕분에 2008년도와 2011년도에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출연했던 실력자들의 재기발랄한 무대를 다시 볼 수 있었지만, 정규 방송을 시청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예심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청자들을 위해 속히 대안을 마련해 정규 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3월 23일 보고서>

○ **1TV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 현재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없다.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는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주는 드라마였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데, 해당 드라마의 재방송을 편성해준다면 농촌의 따뜻함과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3월 30일 보고서>

○ **1TV 「제26회 KBS 119상 시상식」**

- 이날 KBS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119구조대원들을 위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방송을 지켜보는 동안 각종 재난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원들을 향한 존경심이 샘솟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을 개최해주어 감사하다. <4월 2일 보고서>

○ **1TV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1 4.7 재보궐선거」**

- KBS에서 서울시청과 부산 광안대교에 세트를 설치하고, 정치 평론가와 여론조사 전문가 등을 섭외해 실시간 개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어 유익하게 시청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송이 종료되어 당황스러웠다. 8일 새벽 개표가 완료되었는데, 해당 방송에서 개표 결과까지 전달하며 마무리 해주었더라면 더 유익했을 것 같다. <4월 9일 보고서>

○ **1TV 「불멸의 이순신」**

-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을 덮친 코로나19는 정치와 사회,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책임을 돌리며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명장 이순신의 일대기를 그린 해당 드라마를 편성해주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4월 1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기자회견’**

-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국 독립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한국 배우 최초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것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날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하며 사실상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기자회견으로「뉴스특보」까지 편성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4월 27일 보고서>

○ **1TV 「긴급출동 24시」**

- 경찰, 소방관, 119구조요원, 해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곳곳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부신 활약상과 생생한 현장을 전달했던 프로그램이다. 방영 당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자들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편성해준다면 국민들에게 위안이 될 것 같다. <5월 7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현재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중 가장 중요한 이슈를 선정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정통 토론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너무 안타까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뮤직」'빛진 자의 노래 '바위섬''

- 가수의 음악 인생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은 곧 다가올 '5.18 민주화운동 특집'이 방영됐다. 가수 김원중 씨의 '바위섬'을 들으며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그때의 광주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 5월 18일이 되기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특집을 편성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5월 13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빛은 무지개'

- 게이 합창단과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인정받고자 하는 한 레즈비언의 이야기를 통해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다뤘다. 본인은 자녀와 함께 매주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데, 이날 주제에 몹시 당황했다. 전체 관람가인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과 가족의 개념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다뤄 유감스럽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것 같아 우려된다. <5월 17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서울 조계사'

-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을 거행했다. KBS가 이를 생중계했고,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서 이날의 뜻을 기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유독 불교 행사만 중계하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 <5월 21일 보고서>

○ 1TV 「5.18 기획 다큐 인사이드」'오월의 기록'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영상 기록인 영상 아카이브 '오월의 기록'을 공개한 방송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광주시와 광주시 동구청 상황일지를 영상으로 볼 수 있어 역사적으로 귀중한 사료인데, 해당 방송을 놓쳐 너무 아쉽다. 본인처럼 안타깝게 방송을 놓친 시청자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5월 26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종부세 논란, 무엇이 최선인가?'

- 여야 의원들이 출연해 종부세 완화 논란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3주 연속 결방을 했기에 이날도 결방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다시 불거진 종부세 논쟁을 주제로 유익한 토론을 진행해주어 감사했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므로 최대한 결방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이날 오후 4시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큰 사고였는데, 9시 뉴스에서 3쪽으로 비교적 간략하게 보도돼 안타까웠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실시간으로 특보를 편성해 피해자 명단 및 수색 결과, 추가 매몰자 현황 등을 상세히 보도해주었다더라면 도움이 됐을 것 같다. <6월 11일 보고서>

○ 1TV 「KBS 중계식」

- 문화예술 전 부문에 걸쳐 공연 및 이벤트를 녹화해서, 해설과 함께 방송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인들은 고급문화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 해당 방송이 고급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해주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편성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 마음 편히 시청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해당 방송의 편성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기 바란다. <6월 15일 보고서>

○ 1TV 「2021 평화음악회」

-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해 KBS에서 감동적인 공연을 마련해주었다.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꼭 시청하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놓쳐 아쉽다.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뜻깊은 공연인 만큼, 방송을 놓친 시청자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1TV 「2021 KBS 과학기획 기초과학이 세상을 바꾼다」'원소기호 H'

- 인류 문명에 기후 변화라는 위기가 닥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시작했다.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수소가 탄소 발자국을 지우고 인류의 미래를 구할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을지를 다뤘는데, 최근 흥미 있는 주제를 다뤄 열심히 시청했다. 유익한 과학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도 편성해주기 바란다. <7월 6일 보고서>

○ 1TV 「KBS제작 다큐멘터리」'서울, 올림픽'

- 세계의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은 과거 KBS에서 방영했던 '서울, 올림픽' 편을 다시 보여주었다. 오는 2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2020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적절한 시기에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끝냈던 서울 올림픽을 돌아볼 수 있는 방송을 편성해주어 반가웠다. <7월 22일 보고서>

○ 1TV 「2020 도쿄올림픽」

- 지난 23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0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지상파 3사 모두 올림픽 중계에 돌입했고, 특히 KBS에서는 1TV와 2TV 모두 올림픽 중계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정규 프로그램들이 결방되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채널 선택권이 없는 느낌이다. 1TV와 2TV 중 한 채널에서만 올림픽을 중계하고, 나머지 채널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7월 29일 보고서>

○ 1TV 「팔도밥상」'복날 보양 밥상'

- 해당 방송은 「한국인의 밥상」을 재편집한 프로그램으로, 과거에 방송되었던 다양한 음식들을 지역별 혹은 종류별로 묶어서 보여준다. 이날 복날을 맞아 '복날 보양 밥상'이라는 부제로 충북 논산시 병사마을의 '민물새우 감자전'부터 '오리배 백숙' 등 다양한 복날 음식을 소개해줬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 밥상을 시기적절하게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8월 12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개최됐다. 대한민국 독립 역사를 상징하는 여러 장소에서 사전 녹화한 영상으로 시작됐는데, 독립운동가의 말씀과 선진국으로 격상된 대한민국의 모습 등을 보는 동안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일제 침탈의 아픔 속에서도 선열들이 의지로 이뤄낸 광복절에 의미 있는 경축식을 개최해 주어 감사하다. <8월 17일 보고서>

○ 1TV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

- 도쿄 패럴림픽이 13일 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KBS 방송을 통해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을 지켜보았는데,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올림픽의 감동을 전해준 스포츠 명가답게 몰입감을 높이는 중계였다.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을 편성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 13일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올림픽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생생한 중계를 부탁한다. <8월 26일 보고서>

○ 1TV 「2020 도쿄 패럴림픽 폐막식」

- 2020 도쿄 패럴림픽이 1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이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감명 깊게 시청했던 터라 폐막식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KBS에서 생중계가 아닌 녹화중계로 편성됐다. 생중계로 편성되었더라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9월 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시청했다. 그런데 브리핑 도중 화면이 전환되며, 앵커가 '이어지는 질의 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청하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시청이 어려운 시청자들에게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중대본 브리핑에 편성을 조금 더 할애해주기 바란다. <9월 8일 보고서>

○ 1TV 「전국민 민원해결 프로젝트 일꾼의 탄생」

- 가수 진성, 개그맨 손헌수와 미키 광수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시청자들의 일손을 돕는 설정이다. 이날 세 멤버가 경남 함양군 백전면을 찾아 미뤄둔 일거리를 해결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2부작으로 기획되어 아쉽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도움이 필요한 시청자들에게 육체적 노동과 정서적 감동을 선사해주길 바란다. <9월 27일 보고서>

○ 1TV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

-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8명이 4강 잔류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어느 후보가 내년 대선 민심을 정확히 읽고 차별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편성이 되어 다음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시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중요한 TV토론회였던 만큼 늦은 편성시간에 아쉬움이 남는다. <10월 7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82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 이날 독립기념관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KBS에서 생중계했다. 덕분에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들을 추모할 수 있었다. 백승주 아나운서의 단아하고 차분한 진행도 보기 좋았다. '순국선열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뜻깊은 기념식을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11월 18일 보고서>

○ 2TV 「트롯 전국체전」

- K-트롯의 주역이 될 새 얼굴을 찾기 위한 KBS의 대형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해당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을 기다린다. 그런데 편성 시간이 너무 늦어 시청하던 중 잠에 들 때가 많다. 출연진은 물론 감독진과 코치진 모두 쟁쟁하고, 적지 않은 제작비가 투입된 만큼 더 많은 시청자가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2TV 「씨씨봉」

- 지난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펫 비타민」이 증명됐다. 이후 어떤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펫 비타민」의 후속으로 편성되었을까 궁금해 하며 TV 앞에 앉았는데, 영화를 방영해주어 실망스러웠다. 목요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어울릴만한 재미있고 유쾌한 예능 프로그램을 속히 편성해주기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2TV 「2020~2021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IBK기업은행:한국도로공사'

- 이날 프로배구 V리그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전을 생중계했다. 두 팀이 접전을 이어가서 손에 땀을 쥐며 응원 중이었는데, 경기 막바지에 드라마 재방송 편성 관계로 중계를 중단했다. 이후 KBS 앱인 'myK'를 통해 중계를 이어갔지만, 본인 같은 고령의 시청자들은 앱을 사용할 수 없어 난감했다. 치열한 명승부였는데 경기 도중 중계를 중단한 점이 안타까웠다. <2월 9일 보고서>

○ 2TV 「트롯 전국외전」'TOP8 스토리 무삭제판 1회'

- 지난 20일 「트롯 전국체전」이 막을 내려 서운한 시청자이다. 그런데 오는 27일부터 「트롯 전국외전」이라는 특집방송을 통해 미공개 영상과 메이킹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무척 기대된다. 대중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던 프로그램의 종영 후 서운할 시청자들을 위해, 특집 방송을 편성해 그 열기를 이어가주어 감사하다. <2월 23일 보고서>

○ 2TV 「3.1절 기념 특선영화 <아이 캔 스피크>

- 3.1절을 기념해 편성된 「아이 캔 스피크」를 시청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했는데, 알고 보니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통과되었던 2007년의 이야기를 녹여낸 영화로 후반으로 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프고 슬픈 위안부의 이야기를 비교적 밝고 따뜻하게 그려낸 점이 마음에 든다. 뜻깊은 날을 맞아 좋은 영화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3월 2일 보고서>

○ 2TV 「특선다큐 완벽한 행성 지구-3부 기상」

- KBS의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이날 오후 10시 40분에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제작한 '완벽한 행성 지구'의 3부가 방영된다는 자료가 게재됐다. 본인과 지인들이 해당 방송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정작 이날 다른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편성에 변동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주기 바란다. <3월 12일 보고서>

○ 2TV 「트롯 매직유랑단」[첫 회]

- 인기리에 종영된 「트롯 전국체전」의 TOP8과 인기가수 송가인 씨, 개그맨 문세윤 씨와 김신영 씨가 함께하는 '트로트 뮤직토크쇼'이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총출동해서 꼭 시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다만 편성이 너무 늦어 다음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시청에 무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을 조금 앞당겨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2TV 「걸어서 세계속으로」'황금빛 미얀마-낮선 사람들'

- 미얀마의 다채로운 풍광과 문화, 그리고 순박한 미소를 지닌 사람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지난 2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군부의 발표와 폭력으로 숨진 시민이 확인된 숫자만 7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방송 내용에 이질감을 느꼈다. 재방송을 편성할 때는 방송의 내용이 시기적절한지 따져주었으면 한다. <4월 14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스페셜」

- 이날 해당 방송의 제작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방송 예정이었던 「뮤직뱅크」는 결방이 되고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됐다. 음악 프로그램은 라이브가 모미인데, 스페셜이라는 명목 하 예전 영상이 방영되어 무척 실망스러웠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라이브 방송이 편성되길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2TV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대한민국:레바논-고양종합운동장-'

- 이날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레바논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최종전을 펼쳤다. 상대 자책골과 손흥민의 페널티킥 결승골이 이어지며 2-1 역전승을 이뤘는데, KBS에서 중계를 해준 덕에 짜릿하고 통쾌한 경기를 볼 수 있어 즐거웠다.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볼 수 있도록 경기를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6월 15일 보고서>

○ 2TV 「디어엠」

- 서연대학교를 발칵 뒤집어놓은 고백 글의 주인공 'M'을 찾는 청춘 로맨스 드라마로 방영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주연배우 박혜수 씨의 학교폭력 의혹 논란으로 편성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아직 까지도 편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답답하다. 많은 사람들이 방영을 기다리고 있으니, 재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는 등의 속히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7월 15일 보고서>

○ 2TV 「오케이 광자매」

- 지난 회 방송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렸던 이광남(홍은희 분)·이광식(전혜빈 분)·이광태(고원희 분) 자매들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 하며 이날 방송을 기다렸다. 그러나 '제32회 도쿄올림픽' 생중계로 결방이 되어 굉장히 서운했다. 주말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청자가 많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7월 26일 보고서>

○ 2TV 「여기는 도쿄」[배구] 여자 A조 예선 대한민국 : 도미니카(공) 11:05~12:50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승 황선우'

- 이날 2TV에서 중계하는 우리나라와 도미니카의 여자 배구 예선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1세트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영 중계로 넘어가 당황스러웠다. 1TV에서도 배드민턴 경기를 중계하다가 농구 경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농구 경기는 후반전만 시청할 수 있었다. 교차 중계보다는 3사가 협의 하에 경기를 분담하여, 경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7월 30일 보고서>

○ 2TV 「빨강 구두」

- 부모님과 함께 KBS 2TV 일일드라마를 매일 저녁 시청하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빨강 구두」는 빠른 전개로 긴장감을 형성해 굉장히 몰입해서 시청 중이다. 그런데 추석연휴에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이 편성되며 이를 연속 결방이 되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결방하지 않았으면 한다. <9월 23일 보고서>

○ 2TV 「전설의 배우들」

- 추석특집으로 기획된 예능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총출동해 우리나라 곳곳에 잠들어있는 전설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콘셉트의 방송이었다. 가족끼리 모여 보기에 좋았고,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가 압권이었다. 모처럼 재미있는 방송이 탄생해 즐겁게 시청했는데 단 2부로 끝나 아쉽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주기 바란다. <9월 28일 보고서>

○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 유희열 씨의 입담과 수준 높은 음악을 즐길 수 있어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해왔다. 밤 11시 30분이라는 늦은 시간 편성이 부담스러웠지만, 지상파에서 유일하게 남은 정통 음악 프로그램이라 무리를 해서라도 시청했다. 그런데 오는 22일부터 밤 12시 55분으로 편성이 바뀐다니 당혹스럽다. 시청자들이 편안히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 시간을 다시 앞당겨주기 바란다. <10월 19일 보고서>

○ 2TV 「개승자」[첫 회]

- 지난해「개그 콘서트」가 종영한 후 한동안 시청할만한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웠다. 오는 13일, 대한민국의 대표 희극인들의 코미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개승자」가 새롭게 편성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본인뿐 아니라 집안 어른들도 기대를 품고 계신다. 모처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개그 프로그램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11월 9일 보고서>

○ 2TV 「2021 KBS 연예대상」

- 성탄절인 이날 KBS 신관 공개홀에서 「2021 KBS 연예대상」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취소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무관중으로 진행되어 다행스러웠다. 덕분에 한 해 동안 재미있게 시청했던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즐거웠다. 생애 첫 대상을 거머쥔 문세윤 씨를 비롯해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다. <12월 27일 보고서>

○ 2TV 「2021 KBS 송년특집-We're HERO 임영웅」

- 대세 가수 임영웅 씨가 KBS와 함께 송년 특집 단독쇼를 준비해주어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특히 이번 공연이 임영웅 씨의 데뷔 첫 단독쇼로 알려져 팬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2021년의 마지막 일요일 밤에 멋진 공연을 편성해준 것, 그리고 코로나로 암담한 시기에 즐거운 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준 것에 감사인사를 전한다. <12월 27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나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담을 통해 초대 손님들의 인생이나 업적 등을 솔직담백하게 들을 수 있어 배울 점이 많다. 매회 방송 내용이 큰 도움이 되는데, 편성시간이 짧아 대화가 빨리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어 늘 아쉽다. 청취자들이 초대 손님의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편성시간을 늘려주기 바란다. <9월 10일 보고서>

○ 1FM 「정다운 가곡」

- KBS의 클래식FM에서 방송되는 가곡 전문 프로그램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가곡을 감상할 수 있어 매일 저녁 청취한다. 본인이 알기론 원래는 40분 방송이었으나 30분으로 단축됐다가, 현재는 20분으로 더욱 단축됐다. 우리 가곡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없는데 편성 시간이 짧은 게 아쉽다. 가곡을 사랑하는 청취자들을 위해 편성 시간을 늘려주기 바란다. <6월 22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우리의 전통문화와 생활풍속을 음악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너무 이른 시간 편성으로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뿐 아니라 재방송마저도 새벽에 편성되어 있어 청취하는데 불편하다. 본방송이나 재방송 중 하나라도 오전 혹은 낮 시간대에 편성해주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2. 제작 요청 |

○ 1TV 「소비자리포트」

-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본인이 최근 한 업체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 해당 방송에 제보를 하고 싶었으나, 종영이 되어 굉장히 안타까웠다. 시청자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던 유익한 프로그램이 증명되어 아쉽다. 빠른 시일 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우리 사회 곳곳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억울하고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며 시청했는데, 이렇게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폐지되어 안타깝다. 부조리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14일 보고서>

○ 1TV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즌4」

-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시즌1부터 감명 깊게 시청했는데, 시즌4가 총 7부작으로 너무 짧게 끝나 아쉬움이 크다. 속히 시즌5를 제작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채용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1TV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 국내 최초로 언론과 경찰청이 함께 장기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프로그램이었다.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흥미로워 즐겨 시청했다. 나날이 지능화되고 잔인해지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5일 보고서>

○ 1TV 「콘서트 7080」

- 트로트 열풍으로 방송사마다 트로트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반면 1970년대와 80년대에 유행했던 포크송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 모든 시청자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현상이 안타깝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인 「콘서트 7080」을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1TV 「현장르포 제3지대」

-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르포 형식으로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특히 군대, 여성 아파트 등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특수한 환경에 대해 다룬 회차가 많아 흥미롭게 시청했다. 현재 「다큐멘터리 3일」이 비슷한 포맷으로 제작되고 있지만, 「현장르포 제3지대」처럼 시대상과 사회 문제까지 다루진 않아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1TV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 KBS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린 시절 무척 좋아했다.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동식물 혹은 곤충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는데, 기상천외한 답안들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요즘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재미와 유익함이 공존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10일 보고서>

○ 1TV 「클래식 오디세이」

- 국내외 클래식 스타들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했다. 클래식의 매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되어 안타깝다. 최근 방송에서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데, 클래식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가족오락관」

- 코로나19 발병 이후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가족오락관」을 시청했는데, 최근에는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처럼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12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우울한 감정의 '코로나 블루'를 넘어 공격성과 분노조절 문제가 혼재된 '코로나 블랙'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추적해온 「추적 60분」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1TV 「러브 인 아시아」

-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내에서 중국인 등 이주민을 향한 차별이 예전보다 심하다고 한다. 해당 방송은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방영 당시 감명 깊게 시청했다. 그 어느 때보다 다문화 정신이 필요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13일 보고서>

○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우리 사회 곳곳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며 시청했는데, 이렇게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폐지되어 안타깝다. 부조리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1TV 「사람과 사람들」

- 소득 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졌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런 개인들의 삶을 조명한 방송으로, 방영 당시 노모와 함께 시청했었다. 이제 101세가 되신 어머니도 해당 방송을 그리워하고 있다. 후속 방송을 제작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정보와 트렌드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4월 27일 보고서>

○ 1TV 「KBS 바둑왕전」

- 지난해 말, 바둑 팬들을 위한 문화의 장이 되어주었던 「KBS 바둑왕전」이 종영됐다. 평소 좋아하는 기사들의 모습과 수준 높은 대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전국의 바둑 팬들을

위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었으면 좋겠다. <4월 29일 보고서>

○ 1TV 「2016 희망로드 대장정」

- 해외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사랑과 용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움만 주는 기부에서 벗어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 말라리아에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이 코로나19로 더욱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었으면 한다. <7월 27일 보고서>

○ 1TV 「야생여정」

- 자연 다큐멘터리의 종가라 불리는 KBS에서 제작한 자연환경과 야생 기록의 컬렉션으로, 매회 깊은 감동을 받으며 시청했다. 한반도를 넘어 지구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담았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방송이었다. 아름답고 유익한 다큐멘터리가 종영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8월 19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 1983년에 시작된 '이산가족 찾기'의 맥을 이었던 KBS의 대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헤어진 가족들, 그리고 뿌리를 찾아온 해외입양인 등이 해당 방송을 통해 가족을 찾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본인도 찾고 싶은 가족이 있는데 해당 방송이 종영되어 안타깝다. 전국의 실종된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했으면 한다. <9월 2일 보고서>

○ 1TV 「사랑의 가족」

- 본인은 79세에 시각장애를 얻게 된 1급 시각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는데 만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혜택을 받기 쉬운 반면, 본인처럼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아주 극소수의 장애인만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허점을 다뤄주었으면 한다. <10월 7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

- 100명의 청소년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으로, 학생뿐 아니라 전 연령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유익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해 종영이 됐다. 이날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으니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1월 2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넷플릭스X오징어 게임 세계를 흔들다'

- 2021년 하반기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원동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덕분에 K-콘텐츠가 나아갈 길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화 콘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내 OTT의 향후 판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11월 15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전성기를 지난 여배우들과 여가수가 경상남도 남해에서 동거생활을 하며 노년의 외로움과 다양한 감정들을 나누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야흐로 1인 가구 130만 명 시대가 되었는데, 해당 방송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전해주었다. 따뜻하고 유쾌한 방송이 종영되어 아쉽고, 하루빨리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2TV 「**체험! 삶의 현장**」

-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스타들이 땀 흘려 일한 후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이 되어 아쉽다.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전해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2TV 「**출발 드림팀**」

- 연예인과 강력한 일반인 도전자와의 뜨거운 한판 대결을 볼 수 있어 무척이나 좋아했던 방송이다. 반칙 없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건강한 웃음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방송이 종영됐고, 더 이상 재미있는 방송을 보지 못해 아쉽다. 그때의 감동과 재미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2TV 「**해피투게더 4**」

-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며 무려 17년간이나 큰 사랑을 받았던「해피투게더」의 오랜 시청자이다. 지난 해 시즌4가 종영된 후, 해당 프로그램만큼 즐겁고 유쾌한 토크쇼를 찾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2021년에는 시즌5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2TV 「**펫 비타민**」

-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주는 신개념 건강클리닉 예능 프로그램이다. 본인도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놓치지 않고 시청했다. 그런데 오는 28일, 방송이 종영된다고 하여 안타깝다. 반려동물 백만 시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니, 곧 시즌2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2TV 「**쇼! 행운열차**」

- 토크, 코미디, 가요, 주택복권 추첨 방송이 하나로 결합된 형태를 띤 프로그램이었는데, 방영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본인도 재미있게 시청했던 기억이 있어서 가끔 해당 프로그램이 그리울 때가 있다. 요즘 코로나19 등으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쇼! 행운열차」의 후속 방송을 제작해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 웃음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1월 27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

- 제보를 단서로 미스터리해 숨겨진 진실과 불가사의한 사건의 이면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매회 흥미진진하게 시청해왔는데, 지난 9월 종영이 되어 무척 아쉽다.「추적 60분」을 비롯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까운 시일 안에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1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늘 다양한 소재와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 콘서트」의 오랜 시청자이다. 지난해 6월, 해당 방송이 폐지된 후 일요일 저녁의 즐거움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아 너무 아쉽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코미디를 시청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던 시청자들을 위해 해당 방송을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10일 보고서>

○ 2TV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

- 실제 부부들의 사연을 재구성해 드라마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부부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즐겨 시청했는데 폐지되어 아쉽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 시즌3을 제작해준다면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2월 19일 보고서>

○ 2TV 「체험! 삶의 현장」

-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스타들이 땀 흘려 일한 후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던 프로그램이다.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방영 당시 굉장히 유익하게 시청했다. 최근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이 저조한 것 같아 아쉽다.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전해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2TV 「그녀들의 여유만만」

- 주부들이 궁금해 하는 알짜배기 생활 정보를 제공해주어 오전마다 열심히 시청했다. 이미 수많은 정보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유익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안타깝다. 추후 다시 제작 되었으면 좋겠다. <3월 11일 보고서>

○ 2TV 「VJ특공대」

-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소식을 전달해주어 무척이나 좋아했던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국의 다양한 맛집 정보를 소개해주는 코너를 즐겨 시청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 되어 아쉽다. 아직도 「VJ특공대」를 기억하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추후에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2TV 「스펀지」

- 어린 시절 해당 프로그램을 무척 좋아했던 시청자이다. 매주 다양한 주제를 선정한 뒤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어 꼭 챙겨봤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재미와 유익함이 공존하던 프로그램인데 종영이 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이 제작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3월 19일 보고서>

○ 2TV 「TV소설」

- KBS 2TV에서 방송됐던 아침드라마인데, 「파도야 파도야」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제목처럼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드는 드라마였고, 자극적인 전개나 톱스타 없이 가슴 아픈 근대사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주부들에게 인기 많았던 「TV소설」이 폐지되어 아쉽고, 조만간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바란다. <4월 28일 보고서>

○ 2TV 「마법 천자문」

- 현실 세계에 환생한 주인공들이 인간 세계에 던져진 10개의 한자 마법을 찾기 위해 벌이는 고군분투를 담은 이야기로, 시청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한자를 습득할 수 있어 유익했다. 총 24부작으로 너무 빨리 종영된 것 같아 아쉽다. 오직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해당 방송의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5월 26일 보고서>

○ 2TV 「2009 전설의 고향」

-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전설의 고향」은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는 장면이 많아서 더위를 잊는데 제격이다. 특히 마무리에는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유익한데, 2009년 종영이 된 후 후속 방송이 제작되지 않아 아쉽다. 시청자들이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6월 10일 보고서>

○ 2TV 「대박부동산」

- 공인중개사인 퇴마사가 퇴마 전문 사기꾼과 한 팀이 되어 흥가가 된 부동산에서 원귀나 지박령을 퇴치하고 기구한 사연을 풀어주는 퇴마 드라마다. 귀신을 이용해 돈을 버는 정용화 씨와 퇴마사 장나라 씨의 연기가 일품이었다. 열린 결말로 끝났기 때문에 시즌2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동일한 배우와 제작진으로 시즌2가 제작되길 바란다. <6월 17일 보고서>

○ 2TV 「속보이는 TV인사이드」

- 사람들의 의외의 선택, 별난 기행, 기구한 사연 등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마음 속 심리를 추적해보는 프로그램이었다. 무엇보다 사건·사고 뒤에 가려진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무척 유익했다. 해당 방송의 종영 후 비슷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없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었으면 한다. <8월 5일 보고서>

○ 2TV 「류수영의 동물티비」

- 세상의 모든 동물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는 '애니멀 독(dog)큐멘터리'로, 동물 프로그램의 명가답게 신선한 접근 방식이 흥미로웠다. 동물과 관련해 놀랍고 신기한 내용은 물론, 조금은 불편한 진실까지도 다뤄주어 매회 감명 깊게 시청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 좋은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아쉽다. 가까운 시일 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좋겠다. <8월 31일 보고서>

○ 2TV 「표리부동」

- 표창원 프로파일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출연해 실제 일어났던 범죄 사건의 겉과 속에 숨겨진 표리부동함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에게 분노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을 다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다. 12부작으로 짧게 종영되어 아쉽고, 빠른 시일 내에 후속 방송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10월 29일 보고서>

○ 1R 「와이파이 한국인」

- 한국사의 위인 이야기를 각색해 라디오 드라마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당시 재미있게 청취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고전을 성우들이 좋은 목소리로 맛깔나게 연기해주는 점이 몹시 마음에 들었다. 고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는데 종영했다니 아쉽고 안타깝다. 추후에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0월 13일 보고서>

| 3. 드라마 |

○ 1TV 일일연속극「누가 뭐래도」

- 부모의 재혼으로 자매가 된 김보라(나혜미 분)와 신아리(정민아 분)가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그런데 신아리가 하룻밤의 실수로 김보라가 좋아하는 나준수(정헌 분)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설정이 지나치다. 신아리의 임신에도 불구하고 나준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김보라의 억지도 보기 불편하다.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김원태(서태화 분)가 못난이 도시락을 담보로 대표자리를 얻기 위해 사채업자를 시켜 한억심(박철민 분)이 갖고 있는 유언장을 훔치려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이제까지는 자극적인 내용 없이 잔잔하고 따뜻한 전개가 이어져 재미있게 시청했으나, 갈수록 극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1월 22일 보고서>

- 마청구(김결 분)가 한억심(박철민 분)의 유언장을 빼기 위해 그를 납치한 후 각목 등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후 마청구는 맞아서 기진맥진한 한억심의 영상을, 한억심의 아들 강대로(최웅 분)에게 보냈다. 온가족이 함께 시청하던 중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따뜻하고 유쾌한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노금숙(문희경 분)이 분가하려는 신아리(정민아 분)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종용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신아리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노금숙의 계략인데, 고부갈등은 우리나라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이젠 너무 식상하다. 최근 더딘 전개와 억지 설정으로 초반의 재미가 다소 떨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유쾌한 가족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29일 보고서>

- 막장 요소 없이 잔잔하게 이어지는 전개에 폭 빠져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종영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한재수(박철민 분)의 간암이 재발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겨우 신원회복하고 딸 정벼리(김하연 분)와 만나자마자 간암에 걸렸다는 설정이 너무 허망하고 황당하다. 갖은 고초를 이겨온 한재수 정벼리 부녀가 행복해지는 결말을 보고 싶다. <3월 10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속아도 꿈결」

- 부모의 황혼 재혼으로 두 집안이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아버지(김종화·최정우 분)쪽 자식들이 새어머니(강모란·박준금 분)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아 시청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즘 이혼율이 증가하며 재혼가정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재혼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 <4월 22일 보고서>

- 금상백(류진 분)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첫 출근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데 10살 어린이가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게 하고, 또 다른 주민이 자기 집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 얼마 전 경비원이 주민에게 갑질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공영방송에서 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내용이 그려져 보기 불편했다. <6월 14일 보고서>

- 금상백(류진 분)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첫 출근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데 10살 어린이가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게 하고, 또 다른 주민이 자기 집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 얼마 전 경비원이 주민에게 갑질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공영방송에서 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내용이 그려져 보기 불편했다. <7월 15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국가대표 와이프」

- 강리안(김태연 분)이 강남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에서 왕따를 당했다. 아이들이 강리안을 단독방에 초대하지 않으면서 “강남 사는 애들의 모임인데 너는 강남 안 살잖아. 그런 애를 어떻게 초대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영됐고, 자녀와 함께 시청하던 중 충격을 받았다. 최근 우리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공영방송에서 언어폭력과 왕따를 그린 점이 실망스러웠다. <11월 11일 보고서>
- 서초희(한다감 분)가 딸 강리안(김태연 분)이 학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명진동에 사는 강리안이 강남에 사는 아이들로부터 거지 동네에 산다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시청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데, 강남 거주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았다. <11월 15일 보고서>
- 여주인공 서초희(한다감 분)가 강남의 집 한 채를 통해 삶의 클래스를 올리려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다뤄 재미있게 시청했으나, 강남에 살지 않는 아이가 강남 소재 학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갈수록 위화감을 조장하는 내용에 보기 불편하다.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예민한데, 드라마에서까지 지역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11월 17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오! 삼광빌라」

- 극 초반에는 다양한 사연을 안고 삼광빌라에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들어가는 과정이 따뜻해서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극이 전개될수록 출생의 비밀, 기억상실 등 진부한 소재가 다뤄져 초반의 재미가 떨어졌다. 극중 인물들이 서로 융화되는 모습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타인이었던 이들이 ‘삼광빌라’에 모여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장서아(한보름 분)의 악행이 지나쳐 보기 불편하다. 최근 장서아는 황나로(전성우 분)와 손잡고 우재희(이장우 분) 커플에 복수하고자 우재희 사업 계약을 훼방했다. 가족 드라마임을 감안해서 조금 더 따뜻하고 착한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비밀의 남자」

- 한유라(이채영 분)가 한유정(엄현경 분)과 차서준(이시강 분)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차서준을 다치게 했다. 그뿐 아니라 한유라와 말다툼을 벌이던 최준석(이루 분)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내용도 그려졌다. 매회 한유라가 저지르는 비슷비슷한 악행이 반복될 뿐, 전개가 느려 답답하다.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설정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한유정(엄현경 분)이 기자에게 한유라(이채영 분)가 출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분노한 한유라는 한유정이 친아들처럼 키운 한동호(서우진 분)의 유골을 빼돌렸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갈수록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흘러가는 전개가 보기 불편하니 시정해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이날 주화연(김희정 분)과 한유라(이채영 분)가 이태풍(강은탁 분)을 제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유라는 이태풍을 차로 치어 죽이기 위해 돌진했지만, 때마침 나타난 차서준(이시강 분)이 이태풍을 밀치고 대신 차에 치였다. 최종회까지 단 1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해당 전개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 회에서

는 주화연과 한유라가 악행에 대한 짓값을 치렀으면 좋겠다. <2월 10일 보고서>

○ 2TV 일일연속극「미스 몬테크리스토」

- 오하라(최여진 분)와 주세린(이다해 분)의 계약으로 다리에서 떨어졌던 고은조(이소연 분)가 긴급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생존했다. 이제부터 고은조의 복수가 시작될 것 같은데, 전작 「비밀의 남자」도 잔혹한 복수극이었기에 피로감이 쌓인다. 벌써부터 지나치게 잔인한 전개로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 더 공감 가능한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주세린(이다해 분)이 오하라(최여진 분)의 고임에 넘어가 황가흔(이소연 분)에 대한 살인을 청부했다. 이어 두 사람의 악행이 드러난 위기에 처하자 오하라는 모든 책임을 주세린에게 전가했다. 매회 오하라가 황가흔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행하는 갑질과 막말이 지나쳐 보기 불편할 때가 많다.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전개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3월 25일 보고서>
- 황가흔(이소연 분)이 또다시 오하라(최여진 분)와 주세린(이다해 분)의 악행에 당했다. 오하라와 주세린은 황가흔의 의상을 태우기 위해 창고에 불을 질렀고, 창고에 갇힌 황가흔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갈수록 등장인물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악랄해져 보기 불편하다. 자극적인 전개로 흥미를 끌기 보다는,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4월 14일 보고서>
- 금은화(경숙 분)가 딸 오하라(최여진 분)의 학창시절에 오하라를 '첩의 딸'이라고 놀린 친구들을 집으로 부른 뒤, 오하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폭행하게 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학부모가 나서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만든다는 설정이 충격적이었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서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23일 보고서>
- 오하준(이상보 분)이 판공비 20억을 남용했다는 오해를 받고 사장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황지나(오미희 분)가 오하준을 만나 자신의 딸 황가흔(이소연 분)과 약혼하라고 지시했다. 황가흔이 차선혁(경성환 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지시를 내리는 황지나를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납득할 수 있는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5월 27일 보고서>
- 5년 전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차선혁(경성환 분)의 모습이 그려졌고,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차선혁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암시하며 방송이 끝났다. 지지부진한 전개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차선혁이 진실을 알게 되자 다시 사고를 당한다는 설정이 너무 황당하다. 추후에는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6월 10일 보고서>
-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까지 내몰렸던 고은조(이소연 분)가 복수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은조의 복수가 거의 눈앞에 다다랐는데, 이날 고은조를 돕던 황지나(오미희 분)가 갑자기 혈관성 치매에 걸려 고은조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다. 그동안 꾸준히 시청해온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허탈하다. 종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6월 17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오케이 광자매」

- '가족극의 대가'로 불리는 문영남 작가의 새 작품이고, 배우 라인업도 화려해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아버지 이철수(윤주상 분)를 향한 세 딸의 막말과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 지나쳐 자녀와 함께 시청하던 중 몹시 당황스러웠다. 요즘 도덕과 윤리가 추락하며 가정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등장

인물들의 태도가 이러한 현상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3월 15일 보고서>

- 이광남(홍은희 분)과 배변호(최대철 분)의 이혼이 집안의 갈등으로 번지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이철수(윤주상 분)가 사위에게 물건을 던지고, 지풍년(이상숙 분)이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모습은 너무 폭력적이어서 보기 불편했다. 살인으로 시작해 혼외 자식과 이혼 등 갈수록 자극적인 전개가 이어지는 것 같다. 조금 더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해가는 미스터리 장르인데, 최근 이광남(홍은희 분)과 배변호(최대철 분)의 이혼이 주가 되며 등장인물들의 막말이 심해졌다. 지풍년(이상숙 분)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와, 신마리아(하재숙 분)가 나쁜 말을 내뱉을 때 성호를 긁는 모습 등이 보기 불편하다. 자극적인 전개보다는 가족들의 희로애락 인생사를 담백하게 그려주었으면 좋겠다. <5월 18일 보고서>
- 이날 이광식(전혜빈 분)과 한예슬(김경남 분)의 비밀연애가 오봉자(이보희 분)에게 발각됐다. 이후 오봉자는 한예슬에게 가진 것도 없이 자신의 조카와 사귀다며 불같이 화를 냈는데, 이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주인공들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과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점, 그리고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점 등을 고쳐주기 바란다. <6월 1일 보고서>
- 지난 방송에서 이광남(홍은희 분)이 황천길(서도진 분)의 프리포즈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날 황천길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광남이 자살을 시도했다. 그뿐 아니라 엔딩 장면에서는 신마리아(하재숙 분)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듯한 내용이 암시됐다. 극본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흘러가 보기 불편하다.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6월 15일 보고서>
- 이날 신마리아(하재숙 분)가 돌연 사망해 시청자 입장에서 당황스러웠다. 더욱이 남편 배변호(최대철 분)와 간 첫 여행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라며 행복해했기에, 신마리아의 죽음이 더 황망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등장인물이 사망하는 전개가 공감이 되지 않고, 광자매의 지지부진한 연애도 답답하게 느껴진다. <6월 21일 보고서>
- 이광태(고원희 분)의 친부인 김 사장(정승호 분)이 사위 허기진(설정환 분)으로부터 돈을 뜯어내 도박판으로 향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극이 후반부에 이르렀는데 뜬금없이 이광태가 출생의 비밀에 휩싸인다는 설정이 너무 황당하다. 막장 요소 없는 따뜻한 가족극에 끌려 매회 시청했는데, 갈수록 억지 설정과 자극적인 전개가 이어져 실망스럽다. <8월 23일 보고서>
- 극본도 탄탄하고 배우 라인업도 화려해 매주 주말마다 재미있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광태(고원희 분)가 출생의 비밀에 휩싸이는가 하면, 이광남(홍은희 분)-지풍년(이상숙 분)의 고부갈등도 극에 달해 피로감이 쌓인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하는 가족극인만큼 막장 요소를 줄이고, 따뜻하고 공감 가능한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8월 31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빨강 구두」

- 권혁상(선우재덕 분)이 민희경(최명길 분)의 남편 김정국(김규철 분)을 차로 쳤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정국을 두고 도망쳤다. 결국 김정국은 사망했고, 이후 민희경은 성공을 위해 자식을 버리고 권혁상에게로 갔다. 전작 「미스 몬테크리스토」도 잔인하고 자극적인 전개가 불편했는데, 이번 드라마도 초반부터 너무 잔인하다. 막장 내용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7월 9일 보고서>

- 성공을 위해 자식을 버린 민희경(최명길 분)과, 그녀에게 복수하려는 딸 김젼마(소이현 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위기에 직면한 민희경이 녹음 파일을 빼앗기 위해 인적이 드문 창고로 김젼마를 불러낸 뒤 와인병으로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친딸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내용이 그려졌다. 잔인한 전개가 보기 불편하니, 앞으로는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8월 19일 보고서>
- 김젼마(소이현 분)가 술에 취한 권혁상(선우재덕 분)의 사진을 찍어 친모인 민희경(최명길 분)에게 전송했다. 이에 민희경은 술집으로 달려왔고, 김젼마와 민희경은 몸싸움을 벌였다.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딸이 엄마의 재혼한 남편을 유혹하고, 엄마는 그런 딸을 질투한다는 설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9월 8일 보고서>
- 가족과 함께 매일 저녁 시청한다. 빠른 전개로 긴장감을 형성해 흥미진진한 반면, 지나치게 잔인해서 보기 불편할 때도 많다. 최근에는 민희경(최명길 분)이 시어머니를 독살했다는 설정이 그려졌고, 이날은 김젼마(소이현 분)가 권혁상(선우재덕 분)의 청부살인을 의뢰했지만 실패했다.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10월 12일 보고서>
- 김젼마(소이현 분)가 권혜빈(정유민 분)에게 복수하기 위해 연인이던 윤기석(박윤재 분)을 버리고, 윤기석의 동생이자 권혜빈의 약혼자인 윤현석(신정윤 분)과 결혼을 결심했다.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형이랑 사귀던 김젼마가 동생과 결혼한다는 설정은 너무 지나치다.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으니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0월 21일 보고서>
- 권혁상(선우재덕 분)이 살인청부업자를 시켜 김젼마(소이현 분)를 칼로 찔렀다.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던 중 극악무도한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이어 권혁상은 민희경(최명길 분)으로부터 김젼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고, 수혈을 해서 김젼마를 살렸다.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전개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납득할 수 있는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2월 9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경찰수업」

- 형사와 해커 출신 범죄자 학생이 경찰대학교에서 교수와 제자로 만나 공조 수사를 펼치는 내용이다. 자녀들과 함께 시청 중인데, 유동만(차태현 분)의 대사에 욕설이 많아 듣기 거부할 때가 있다. 물론 형사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 거친 표현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해당 드라마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으니 욕설은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 <9월 15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신사와 아가씨」

- 이영국(지현우 분)이 어린 박단단(김민서 분)과 첫 만남을 가진 후,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박단단을 다시 만나며 벌어지는 로맨스를 다뤘다. 13살 여자주인공이 27살의 남자주인공과 훗날 연인 관계로 발전된다는 뉘앙스를 풍겨 시청 내내 불쾌했다.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잠재적 연애 대상으로 묘사한 점은 몹시 부적절하다. <9월 29일 보고서>
- 왕대란(차화연 분)이 조사라(박하나 분)의 이간질에 넘어가, 박단단(이세희 분)의 방에 자신의 목걸이를 숨긴 후 도둑으로 몰았다. 해당 방송은 청소년들도 시청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명을 씌우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또한 이세찬(유준서 분)이 장난감 뱀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장면도 보기 안

좋았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교훈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1월 2일 보고서>

- 이영국(지현우 분)과 박단단(이세희 분)의 풋풋한 사랑에 함께 설레며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영국이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조사라(박하나 분)가 기억을 잃은 이영국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거짓 말하는 내용이 방영돼 황당했다. 이제까지 막장 요소 없이 동화 같은 전개에 매료되어 시청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전개가 이어지니 재미가 반감된다. <11월 23일 보고서>
- 이영국(지현우 분)이 조사라(박하나 분)와의 약혼식을 진행하던 중 박단단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에 이영국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땐 곧장 회복될 줄 알았다. 그러나 기억을 잃은 상태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되니 답답하다. 조사라가 범죄에 가까운 악행을 저지를 때도 조금만 조사하면 충분히 밝혀질 사안을 조사하지 않는 것도 공감할 수 없다. 현실성 있는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2월 20일 보고서>
- 겨우 기억을 되찾은 이영국(지현우 분)이 박단단(이세희 분)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다음날 실수였다고 말을 바꿨다. 어느 날 갑자기 이영국이 기억상실에 걸려 연인이던 박단단을 두고 조사라(박하나 분)와 약혼한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기억을 되찾은 후에도 통과한 전개가 이어지지 않으니 답답하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속 시원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2월 28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연모」

- 이날 창운군(김서하 분)에게 잡혀 어딘가로 끌려갔던 잔이(공진서 분)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전에도 궁궐에서 사람을 칼로 베어 죽이는 장면이 방영됐다. 물론 「연모」는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지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시청한 청소년들이 조선시대의 궁중에선 사람 목숨을 가볍게 다뤘다고 인식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11월 17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사랑의 파배기」

- 거짓말 때문에 사랑과 인생이 꼬여버린 막장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주인공 박희옥(황신혜 분)이 절친 맹옥희(심혜진 분)의 남편 오광남(윤다훈 분)과 은밀한 관계에 빠진다는 설정인데, 온가족이 함께 보는 저녁 시간대 방송에서 불륜을 다룬다는 점에 불편함을 느꼈다.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는데 적어도 드라마에서만큼은 밝고 희망적인 내용을 그려주었으면 한다. <12월 16일 보고서>
- 박희옥(황신혜 분)이 맹옥희(심혜진 분)가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호텔로 찾아온 오광남(윤다훈 분)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던 중 불륜 장면에 불편함을 느꼈다. 지난주 방송에선 오소리(함은정 분)가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어르신의 뺨을 때리는 모습도 그려졌는데, 아무리 동물을 괴롭혔다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때리는 모습이 보기 안 좋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2월 22일 보고서>
- 맹옥희(심혜진 분)가 외도한 남편 오광남(윤다훈 분)에게 서슬 퍼런 경고를 날렸다. 남편의 머리에 초고 추장을 붓는가 하면, 전날 방송에서는 회를 뜨던 식칼을 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식칼을 드는 장면은 너무 섬뜩하고 두려워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저녁 시간대 드라마에서 불륜을 주제로 한 것도 각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12월 31일 보고서>

4. 출연자·진행자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KBS에서「코로나19 통합뉴스룸」체제로 뉴스 전체를 일원화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를 빠짐없이 시청하는데, 이소정·박노원 앵커의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진행이 돋보인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시청하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좋은 진행을 부탁한다. <1월 15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팬덤 문화 VS 성범죄 커지는 알페스 논란'

- 이날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해 '알페스'가 팬덤 문화인지, 아니면 성범죄인지에 관해 토론했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19일에도 해당 방송의 '뉴스라이더' 코너에 출연했기에, 시청자 입장에서 지루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보였다. 특정 인물의 반복적인 출연보다는, 다양한 패널을 섭외하여 시청자들이 여러 견해를 들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1월 22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전문 감정위원이 우리 고미술품의 진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흥미로워서 매주 일요일마다 시청한다. 이날은 현정화 탁구 감독이 출연했다. 그런데 현 감독은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큰 범죄이므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방송에 섭외하지 않길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달콤살벌 정치토크 그랬구나~'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출연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본 소감을 나눴다. 대화 중 강병원 의원이 "청문회가 들을 청, 물을 문입니다. 듣고 묻는 자리거든요."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청문회'의 한자 뜻풀이는 들을 청, 물을 문이다. 출연자들은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말해주었으면 한다. <1월 27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노래로 부르는 이름'

- 해당 방송을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시청해왔다. 예전에는 실력 있고 노련한 원로가수들이 출연해서 방송을 통해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젊은 가수들이 출연해 옛 노래를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옛 감성을 소화할 수 있는 원로가수 위주로 섭외해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내가 꿈꾸는 노후는?'

- 김태우 노후 재무 설계 전문가가 출연해, 노후 설계를 대비하는 최신 경향들을 알아보았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을 다뤘지만, 진행자 두 명에 패널 세 명, 그리고 게스트까지 총 여섯 명이 출연한 점이 보기 안 좋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니, 패널을 두 명만 섭외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2월 5일 보고서>

○ 1TV 「설 기획 우리말 겨루기」

- 다가올 설을 맞이해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한복 차림으로 출연했다. 그런데 엄지인 아나운서가 착용한 한복이 전통한복이 아닌 개량한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모노 느낌이 강하게 나서 보기 불편했다. 더구나 설 특집으로 진행된 방송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우리말 지킴이 운동에 앞장서는 방송인

만큼 격식에 맞는 한복을 갖춰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2월 10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약초꾼 삼총사'

- 겨울 산에서 약초를 캐는 '약초꾼 삼총사'가 소개됐다. 그런데 이 약초꾼들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본인은 30년 동안 군복무를 했던 직업군인인데,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유사군복을 입으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하는 동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될 수 있으면 군복이나 경찰제복 등 유사제복을 착용하는 것은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 <2월 17일 보고서>

○ 1TV 「사랑의 가족」 '칭찬합니다 - 때미는 변호사'

- 이날 '칭찬주인공'은 바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17년간 꾸준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목욕봉사를 해왔다는 임대진 변호사였다. 혼자서는 목욕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요즘 같은 삭막한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된다. 계속해서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2월 22일 보고서>

○ 1TV 「동행」 '지우의 세레나데'

- 전라남도 고흥의 어느 시골마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삼남매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 다리가 불편하긴 했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날 방송의 출연자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방송 출연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2월 22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학폭' 미투 파문... '사회적 처벌?'

- 최근 배구계를 강타한 학교폭력 파문이 연예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날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피해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것은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는 철저히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이며,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기에 듣기 불편했다. <2월 25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일본의 숨겨진 학살, 우키시마호 침몰사건을 아십니까?'

- 영화 '우키시마호'를 연출한 김진홍 감독이 출연했다. 1945년 8월에 강제 징용 조선인들을 태운 우키시마호가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지 않고 방향을 돌렸고 갑작스럽게 폭발한 사건을 다뤘는데, 본인의 큰 아버지도 해당 사건으로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리며 시청했다. 가슴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김진홍 감독과, 좋은 방송을 제작해준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3월 4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여의도 사사건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16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TV토론회'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청탁채용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다. 이후 무죄를 선고받긴 했으나, 해당 사건으로 신뢰감이 떨어진다. 공영방송이고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 섭외를 더 신중하게 해주기 바란다. <3월 19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 해당 방송의 오랜 시청자로, 특히 수요일 코너인 '도전! 꿈의 무대'를 가장 좋아한다. 이날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승을 차지한 적 있는 가수 이도진 씨가 패널로 출연했다. 그런데 찢어진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어 보기 안 좋았다. 「아침마당」은 남녀노소가 시청하며,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방송

이다. 출연자들은 단정한 옷차림을 착용해주기 바란다. <3월 25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4.7 재보선 누구를 뽑을 것인가?'

- 여야 의원들이 출연해 4.7 재보선의 쟁점과, 여야가 유권자들에게 내세우는 비전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 'LH 땅투기'를 비롯한 각종 비리로 인해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이날도 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단,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를 공격하는데 급급해 피로감이 느껴졌다. 출연자들이 국민의 누적된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하고 헤아리며 토론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 <4월 5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학교폭력의 주범은 누구인가?'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출연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과 학교폭력의 주범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잇달아 터지는 스타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으니 주제 선정은 좋았지만, 표창원 씨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를 전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섭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4월 6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남양주 인명 피해 작아..시민의식?'

-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의 화재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해당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데 시사평론가를 섭외한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다. 소방 기술사나 산업 안전기사, 소방 설비 기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했다면 더 유익한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월 1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 매일 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을 시청하며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한다. 진행을 맡은 이민우 앵커가 다양한 소식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주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날 이민우 앵커가 하차 소식을 알려 굉장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고, 추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4월 26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백세 시대, 백세 치아 만들기'

- 김문섭 전 가톨릭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출연해 치아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전해주어 유익하게 시청했다. 그런데 김 교수가 '우리나라'를 '저희나라'라고 하는 등 자주 말실수를 했는데, 김재원 아나운서가 그냥 넘기지 않고 그때마다 부드럽게 고쳐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매일 아침 따뜻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4월 30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부동산 정책 재정비 주택시장 영향은?'

- 김남근 변호사와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출연해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둔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 토론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특혜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이후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꼽으며,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듯 방송했다. 그러나 신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이며, 김남근 변호사의 발언처럼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5월 3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고미술품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꾸준히 시청한다.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

다양한 유물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날은 김애경 씨와 남상일 씨, 한해원 씨가 쇼감정단으로 출연했는데, 한해원 씨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시청자의 집중을 저해했다. 진행자나 다른 출연자가 말을 할 때는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1TV 「TV는 사랑을 싣고」'이봉주 편'

-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씨가 출연해 인생 첫 육상 스승인 복진경 코치를 찾아나서는 한편, '근긴장이상 증' 때문에 고생 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밝혔다. 세계 대회에서 입상하며 한국의 위상을 떨쳤던 선수가 예전처럼 될 수 없게 된 모습을 보며 무척 가슴 아팠다. 해당 방송을 통해 오랜만에 이봉주 씨의 소식을 접해 반가웠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응원하겠다. <5월 2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명불허전'

- 이번 '명불허전' 코너는 '스타들의 이유 있는 변신'을 주제로 태진아 씨부터 신미래 씨, 반가희 씨 등 여러 스타들이 출연해서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그런데 태진아 씨는 불륜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 공영방송의 출연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될 수 있으면 불륜 스캔들을 일으켰던 출연자는 섭외하지 않았으면 한다. <6월 1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앵커 초대석] 군대 내 성폭력, 근절하려면 무엇부터?'

- '앵커 초대석'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출연해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임태훈 소장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병역거부자인데, 이러한 인물이 군 개혁에 대해 발언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군사전문가나 군대를 잘 아는 인물로 섭외했으면 더 유익했을 것 같다. <6월 7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6월 국회, 수술실 CCTV 어떻게 되나?'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 여부와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환자를 위한 궁극적 대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런데 이상호 의사사회부회장이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의사 측 입장만 주장해 실망스러웠다. 수술실 내에서 대리수술, 성추행 등 각종 부정행위들이 발각되고 있으므로 무엇이 환자를 위한 일인지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6월 21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이웃들의 인생사와 추억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주 화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 그런데 작곡가와 가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요리연구가 이해정 씨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출연자들이 수많은 연습 끝에 도전하는 무대인만큼 심사위원단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주기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사랑합니다 당신] 행복을 나누는 사진사'

- 세종시 금남면의 한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5년간 무려 3,800여 명의 장수 사진 촬영을 한 유길선 어르신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가 사진사가 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을 때 제대로 된 영정사진이 없었던 아픔 때문이었다.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귀감이 되는 사연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8월 9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국립외교원장 김준형'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해 '대만이 왜 국제정치 핵으로 부상했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대만의 속내가 무엇인지, 점점 더 첨예해지는 미중 패권 갈등 속 대만은 어떻게 국제정치의 핵으로 부상했는지 등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다소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결코 지루하거나 까다롭지 않은 강연이라 만족스러웠다. <9월 1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세균의 습격, 당신의 잇몸을 지켜라!'

- 감기보다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만드는 질병인 치주질환을 다뤘다. 구강 세균의 습격으로부터 치아는 물론 전신질환까지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어 유익했다. 다만 방송 중 소개되는 병원이 단국대치과 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대학병원 위주라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다. 50% 할인해주는 병원들도 있으니, 그런 병원들도 섭외해주었으면 한다. <10월 1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배호 50주기'

- 해당 방송을 사랑하는 오랜 시청자이다. 이날은 29살의 짧은 생애를 살고 간 불세출의 가수 배호 씨의 50주기를 기념하며, 배호 씨의 곡들로 꾸며졌다. 그런데 배호 씨는 저음이 멋진 가수인데, 대부분 여가수들로 섭외가 이뤄져 아쉬웠다. '배호 50주기' 방송이라고 하여 기대를 품고 시청했는데, 노래와 출연자가 어울리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웠다. <11월 10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황창연 신부 특강 - 진정한 인생을 사는 법'

- 황창연 신부가 출연해서 '코로나19에 극복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강연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언급했는데, 비결은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그 달에 번 돈은 다 쓰는 것이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돈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었는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강연이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황창연 신부와,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12월 3일 보고서>

○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2021 신년 기획 - 너의 이름은4'

- 이날 가수 니브(Nive)가 출연해 그룹 BTS의 멤버 뷔와의 훈훈한 일화를 공개했다. 이어 BTS의 새 앨범에 수록된 'Blue&Grey'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유희열 씨가 니브에게 "이 곡을 원곡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곡의 제작에는 니브만이 아닌, 뷔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유희열 씨의 발언은 'Blue&Grey'가 원곡자가 부른 곡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1월 12일 보고서>

○ 2TV 「연중 라이브」

-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방송인 이휘재 씨가 최근 증간소음부터 마트 방문 인증샷까지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증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휘재 씨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휘재 씨에게 실망한 시청자들이 많으니 다른 출연자로 교체해주시기 바란다. <1월 21일 보고서>

○ 2TV 「1박 2일」'강원도 원주&평창 '일요명화' 투어'

- 멤버들이 2021년 공식 포스터 촬영에 도전했다. 원하는 배역을 쟁취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멤버들의 투혼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다만 문세윤 씨를 비롯해 출연자들이 장난스러운 욕설, 이를테면 "이런 신발 색이!" 등의 발언을 해서 자녀와 함께 시청하던 중 난감했다. 어린이들은 따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2TV 「디어엠」

- 해당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배우가 과거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 해당 배우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출연이 예정되었던 다수의 방송에서 출연이 무산되고 있다. 시청자들이 해당 드라마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배우를 교체해주기 바란다. <2월 24일 보고서>

○ 2TV 「컴백홈」

- 국민 MC 유재석 씨가 「해피투게더」의 종영 이후 1년여 만에 해당 예능으로 KBS에 복귀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려있는 배우 조병규 씨도 출연이 확정돼 불편한 마음이 든다. 조병규 씨로부터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으니, 사실 여부를 떠나 다른 출연자로 교체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2월 25일 보고서>

○ 2TV 「트롯 전국외전」

-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트롯 전국체전」 선수들의 뜨거운 활약상을 돌아보고, 미공개 영상도 선보인다고 해서 무척 기대 중이다. 다만 최근 우승자 진해성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진해성 씨 측에선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경연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학교폭력 논란의 출연자는 섭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2TV 「달이 뜨는 강」

- 학부모 시청자이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지수 씨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글이 게재됐다. 그로부터 왕따, 폭력,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공영방송 KBS에서 학교폭력에 연루된 배우 지수 씨를 속히 하차시키길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한 방송이 3시간이나 이어지면 자칫 지루할 수 있는데, 생생한 뉴스와 깊이 있는 시사, 발 빠른 사건사고의 현장 취재 등이 모두 담겨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해당 방송에서 재간동이 역할을 하는 김선근 아나운서를 칭찬하고 싶다. 늘 유쾌하고 밝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활기찬 아침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3월 16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 스타들이 개발한 메뉴가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다음 날 편의점에서 출시되는 신개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요즘 배우 김재원 씨가 아들 김이준 군과 함께 출연해 훈한 부자간의 모습을 공개 중인데 잘 보고 있다. 김이준 군의 밝고 명랑한 에너지가 프로그램에 활력을 더하는 느낌이다. 해당 방송에서 김재원 씨 부자의 모습을 오래도록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4월 5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수년 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청해온 오랜 시청자이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가 슈퍼맨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에 반대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일 뿐'이라고 답한 제작진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2030 세대가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비혼모 출산을 부추길까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고려해주기 바란다. <4월 22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시간여행 특집’

- 이날은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부터 신비로운 화음을 자랑하는 '포레스텔라' 등 쟁쟁한 가수들이 총출동해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의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판정단이 심사를 진행하는데, 매번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전문가를 포함시키거나, 매주 판정단의 구성을 조금씩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3일 보고서>

○ 2TV 「연중 라이브」

- 해당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로 활동 중인 김태진 씨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인 재재를 저격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뿐 아니라「연중 라이브」제작진을 향한 서운함을 토로해, 해당 방송을 좋아하는 시청자 입장에서선 불쾌했다.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니 하차시켜주기 바란다. <5월 21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사유리 씨와 젠이 월벤저스 형제의 집에 방문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앞서 사유리 씨가 젠을 공개했을 때부터, 젠이 벤틀리와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던 만큼 두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었다. 혼자서 출산을 결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사유리 씨가 사회적 편견에 맞서며 씩씩하게 아들을 키우는 모습이 보기 좋다.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다. <6월 1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이인철의 모의법정’

-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다고 속여 결혼한 덩크족 부부가, 아내의 임신으로 정관수술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강승화 아나운서가 '아내를 사랑한 것 같다', '축하할 일이다' 등 남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합의된 비출산에 아내를 속인 것은 명백한 사기인데, 진행자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은 옳지 않다. 진행자의 사과를 촉구한다. <6월 9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정자 기증을 받아 '자발적 비혼모'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가 아들 젠과 함께 해당 방송에 출연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을 지연 또는 기피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 상황에서 비혼모 사유리 씨의 출연이 달갑지 않다. 사유리 씨의 출연을 반대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7월 20일 보고서>

○ 2TV 「여기는 도쿄」[스포츠클라이밍] 남 콤바인 스피드'

- 오연중 아나운서와 김자인 선수가 스포츠클라이밍 남자 콤바인 예선전 해설을 맡았다. 그런데 김자인 선수가 경기의 규칙과 기술 등을 설명할 때, 오 아나운서가 김자인 선수의 말을 끊고 개인적인 발언이나 감탄사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진행을 했다. 그뿐 아니라 오 아나운서는 전문 용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다음 중계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다. <8월 5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출연자 김선호 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선호 씨를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다수의 업체에서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박 2일」은 국민 예능인만큼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출연자는 하차시키길 바란다. <10월 20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배우 김선호 씨의 사생활 논란이 터지며 출연분 편집 및 하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1박 2일」을 사랑했던 시청자로서는 멤버의 갑작스러운 하차가 서운하고, 한 개인의 연애사로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해당 방송에서 김선호 씨가 하차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KBS의 간판 예능으로 명맥을 이어온 「1박 2일」이 잠시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일도 없길 바란다. <10월 22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우와~한 인생’

- ‘우와~한 인생’ 코너에 자동차 외형복원, 차체 수리 분야에 명인으로 선정된 선킴 씨가 출연했다. 자동차 외형복원이란 사고로 심하게 손상된 자동차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기술인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어 시청 내내 감탄했다. 본인의 차량도 수리를 맡기고 싶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를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11월 18일 보고서>

○ 1R 「뉴스 월드, 최영일입니다」

- 한 주간 일어난 지구촌 뉴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주어 주말 오전마다 재미있게 청취한다. 진행을 맡은 최영일 씨의 음성이 차분해서 늘 편안한 마음으로 청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고 깊이 있게 전달해주는 점도 마음에 든다. 계속해서 좋은 진행으로 청취자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국제 정치, 경제, 문화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1R 「최승돈의 시사본부」

- 한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주는 한편, 낮 시간에 어울리는 교양 코너가 프로그램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주말마다 유익하게 청취한다. 무엇보다 최승돈 아나운서가 편안하면서도 진지한 진행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덕분에 오늘을 살펴보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계속해서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이종욱 농부작가’

- 6070년대의 농촌 풍경을 기록하는 이종욱 작가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청취했으나, 이종욱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청취했다. 그의 책을 읽으면 6070년대에 유년시절을 보낸 사람에겐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는 선배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작가를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4월 12일 보고서>

○ 1R 「최경영의 최강시사」‘김기식의 식스센스’

- ‘김기식의 식스센스’ 코너에 김기식 소장이 출연해서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나 선별지급이나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바로 이날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 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벌금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섭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6월 11일 보고서>

○ 1R 「오태훈의 시사본부」#시사본부 이슈-1’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출연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제보 이유는?’,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과의 만남, 사실은?’이라는 질문에 답했다. 그런데 현재 조성은 씨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혼란을 키우고 있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발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9월 16일 보고서>

○ 1R 「김성완의 시사夜」

- 그날그날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정리해주어 매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청취한다. 늘 화제성 뉴스 및 사건사고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더불어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의 냉철하면서도 안정적인 진행도 방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계속해서 균형 잡힌 진행으로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0월 14일 보고서>

○ 1R 「최경영의 최강시사」'최강인터뷰 2'

- 2부 '최강인터뷰' 코너에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출연해 '내가 이재명 선대위에 참여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최근 조동연 교수는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사과했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논란의 중심의 인물을 제외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청취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12월 3일 보고서>

○ 2R 「김태훈의 프리웨이」'신세계 상담소'

- 해당 방송에는 '신세계 상담소'라는 코너가 있는데, 청취자들이 고민을 털어 놓으면 진행자 김태훈 씨가 속 시원한 답변을 준다. 본인은 결정장애가 있는 편인데, 매번 방송을 청취하며 김태훈 씨의 명쾌한 답변에 감탄하곤 한다. 그뿐 아니라 방송 전체에 김태훈 씨의 박학다식함이 방송에 묻어나 늘 만족하며 듣고 있다. 늘 참신하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11월 4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날마다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해 각종 의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덕분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진행을 맡은 최윤경 아나운서가 매끄러운 진행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어 매우 만족스럽다. 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를 전달해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10월 6일 보고서>

○ 3R 「오늘의신문」

- 매일 아침 시각장애인 및 사회소외계층 청취자들에게 국내 주요 일간지를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한상헌 아나운서와 성우 천송이 씨가 진행을 맡았는데, 천송이 씨의 경우 발음이 좋지 않고 자주 틀리는 등 전달력이 떨어진다. 틈틈이 원고 넘기는 소리도 들려 집중하기도 어려웠다. 비단 이날만의 일이 아니니 철저한 연습을 통해 전달력을 높여주기 바란다. <10월 29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다양한 장르의 성악곡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친 오후,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 특히 정세진 아나운서의 따뜻하고 감미로운 진행이 방송에 품격을 더한다. 앞으로도 차분한 진행과, 오후 시간대에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선곡으로 청취자들의 오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2월 19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간결하고 알찬 구성으로 음악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해왔다. 특히 클래식과 예술에 대한 사랑이 깊은 신윤주 아나운서의 선명하고 단아한 진행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날부터 진행자가 김주영 피아니스트로 교체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훗날 신윤주 아나운서가 다시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5월 4일 보고서>

○ **1FM 「FM 실황음악」**

- 오랫동안 KBS 1FM을 청취해온 애청자이다. 그중에서도 「FM 실황음악」을 가장 즐겨 청취하는데, 무엇보다 진행을 맡은 최은규 음악칼럼니스트를 칭찬하고 싶다. 최은규 씨의 상세한 해설과 명확한 발음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계속해서 깊고 풍부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14일 보고서>

○ **1FM 「김미숙의 가정음악」**

- 매일 오전을 KBS 1FM과 함께 하는 애청자이다. 그런데 해당 방송의 진행자 김미숙 씨가 역대 진행자들에 비해 음악에 대한 해설이 부족하고, 음악 이외의 이야기가 많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개편 시에는 클래식 전문가가 진행을 맡아주면 보다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다. <11월 4일 보고서>

○ **2FM 「DAY6의 키스 더 라디오」**

- 가수 비와이 씨와 쿤디판다 씨가 해당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청취자의 요청을 거절하는가 하면 방송에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했고, 심지어 휴대폰의 무음 설정도 해놓지 않았다. 방송을 청취하는 내내 두 게스트의 무성의한 태도에 불쾌했다.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더 신중해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2FM 「STATION-Z (스테이션 제트)」**

- 요일별로 다른 DJ가 진행을 맡는 색다른 포맷의 프로그램이다. 9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는 레드벨벳의 멤버 예리 씨가 진행을 맡는다. 예리 씨가 DJ로서 어떤 모습과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청취했는데, 심야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음색과 서투른 진행이 다소 실망스러웠다. 청취자들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청취하는 만큼 보다 진행력을 갖춘 DJ를 섭외했으면 한다. <9월 16일 보고서>

○ **한민족1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최신 K-POP에서부터 40대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소개해주어 역동적인 느낌이 든다. 무엇보다 신성원 아나운서가 다정한 음성으로 진행해주어 듣는 재미를 더한다. 늘 좋은 진행으로 청취자들과 소통해주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서울의 다양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5. 공정성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차 막았다고 입주민이 폭행...법 바뀌어도 여전한 갑질’**

- 미등록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입주민의 잘못이 맞지만, 몇 개의 사례로 ‘입주민은 갑·경비원은 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본인 아파트의 경비원은 업무태만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런 프레임 때문에 함부로 건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주민 입장에서라도 보도해주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박형준, ‘아파트 특혜’ 거래 논란...여 “재산 다 공개하라” vs 야 “흑색 선전”**

- 민주당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보유한 엘시티 아파트 2채에 대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에선 정상 거래였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그런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박형준 후보 측에 불리한 보도가 쏟아져 편파적으로 여겨진다. 선거를 앞둔 만큼 어느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뉴스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3월 22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이날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재보궐 선거의 후보에는 유력 정당 소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과 함께 열전을 치른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보도는 없고, 오직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치우친 보도를 해서 공정하지 않게 여겨졌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4월 9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데일리 시사 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후 잘 보고 있다. 그날그날 시사 이슈를 전문 패널들이 분석해 주어 유익하다. 그런데 박찬형 앵커가 각 패널들에게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앞으로는 패널들에게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했으면 좋겠다. <4월 28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강화에 오히려 "장애인 불편 가중"'

- 지체장애인 아들과 함께 사는 이태연 할머니가 홀로 장을 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이웃주민이 구청에 신고한 사례를 두고, 장애인 주차구역 운영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보도였다. 이는 명백히 이태연 할머니가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장애인 주차구역 운영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애인 보호자의 입장만 고려한 편파적인 보도라는 생각이 든다. <5월 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인터뷰] 윤석열 "이쪽 저쪽에서 8~9년 공격...대부분 드러난 문제"

- 지난 29일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뉴스에 출연해서 아내와 장모 관련 의혹과, 국민의힘 합류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데,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차기 대선 주자들 모두에게 공평한 출연 기회를 보장해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죄와 벌 - 이재용 풀려나는가'

- 올해 광복절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의 구속이 삼성그룹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뤘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기여한 점보다는, 경영권 승계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안타까웠다.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불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8월 9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김진호 교수'

-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가 '3기 집권 시나리오, 시진핑은 무엇을 꿈꾸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시진핑의 3기 집권이 성공할 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였다. 그러나 시진핑의 독재와 공산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 아쉬웠고, 자칫 시진핑과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9월 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아이 둘 슈퍼대디’ 유호 씨가 이날 5승을 거두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이미 13,000표 이상을 얻은 상태였다. 사연을 소개할 때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데, 출연자마다 사연 소개하는 시간이 다르게 배분되니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날진행자가 유호 씨에게 유독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만큼 표를 얻을 시간을 늘려준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9월 16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50억 클럽 대장동 의혹 수사 쟁점은?’

- 화천대유가 직원이었던 광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을 50억 원이나 지급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해당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연일 다루고 있는데 다소 편파적이다. 여야가 각각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해당 방송에서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루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당 사건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10월 1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인터뷰] “이제는 법으로 개 식용 금지할 때”

-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먹는 걸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뒤,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날 개식용을 반대하고 동물권 보호를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가 출연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개식용을 반대하는 입장만 출연하고, 관련 종사자나 식당 주인이 출연하지 않은 점이 공정하지 않았다. 또한 개고기를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그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10월 5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트」‘카불 기적의 밤’

- 지난 8월 23일 새벽, 무장한 탈레반들을 피해 400여 명에 이르는 아프간 기여자들을 구출해냈던 ‘미라클’ 작전을 재구성했다. 물론 아프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범죄를 우려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데, 반대 여론은 담기지 않아 편향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난민을 ‘특별기여자’로 미화하는 점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10월 12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

- 마침내 내년 대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날 정치인과 정치 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가 출연해 대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진행자가 발언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전반적으로 우원식 민주당 선대위원장에게 많은 시간을 주는 반면, 주호영 윤석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은 자주 끊는 등 공정하지 못했다. 앞으로 공정한 진행을 부탁한다. <11월 8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KBS에서 진행하는 대선 후보 지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를 포함한 군소 정당 후보들이 빠져 있다. 허경영 후보의 경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지지율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여론조사에서 제외되는 점이 편파적이다.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나 지지율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와 같은 비중으로 공정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11월 19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전두환, 사죄와 반성 없이 떠나다’

-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명했다. 12.12 쿠데타를 일으켜 군을 장악했고,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부동산 정

책 실패,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 등 현 정부도 비판받을 부분이 많은데, 이미 끝난 지난 정권의 과오만 들춰내는 점이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11월 29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임을출 교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가 '집권 10년, 수령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을 돌아보고 북한의 변화와 의미, 한반도의 미래를 살펴보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적 위주로 설명해서 듣기 불편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12월 21일 보고서>

○ 2TV 「트롯 전국체전」

- 지역별 팀 대결이 이어졌고, 각 팀들이 자존심을 걸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어 몰입해 시청했다. 그런데 강원 팀의 공훈 씨와 전라 팀의 반가희 씨가 맞붙었을 때, 모두가 승리를 예상한 반가희 씨가 심사위원 고두심 씨의 편파 심사로 인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의 공정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1월 5일 보고서>
- 데스매치가 끝나고 총 다섯 팀이 추가합격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데 추가합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감독과 코치진들의 심사가 다소 편파적이라 실망스러웠다. 특히 배우 고두심 씨는 가수가 아니다보니 심사를 할 때 전문성 면에서 의구심을 자아낸다. 심사위원들의 정확한 평가가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므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주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마지막 결승행 관문인 준결승 2차 무대가 펼쳐졌고, 결승에 진출할 TOP8이 정해졌다. 그런데 예선에서 두 번이나 1등을 할 만큼 실력이 출중하고, 많은 팬을 보유한 신미래가 갑자기 10위라는 순위로 밀려나며 탈락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공정성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 <2월 15일 보고서>
- 이날 TOP14 선수들의 준결승 2차 무대가 펼쳐졌고, 이후 TOP8에 들어간 선수들이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물론 참가 선수들 모두 출중한 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한 실력자로 손꼽히던 신미래 씨가 탈락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심사의 공정성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 <2월 17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이브현장 pick’

- '산산조각이 난 전원생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시공사와 일부 계약자들 간의 갈등을 다뤘다. 본인은 해당 전원주택단지에 거주 중이다.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주택단지에 많은 가구가 입주 중인데, 두 가구의 입장만 듣고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3월 26일 보고서>

○ 2TV 「2021 프로야구」‘준플레이오프 3차전 두산:LG-잠실’

-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202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3차전 경기가 열렸다. KBS의 중계로 경기를 시청했는데, LG 트윈스 출신인 박용택 해설위원을 비롯한 해설진이 LG 편에서 중계를 이어가 두산 팬의 입장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는 양 팀 팬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중계해주기 바란다. <11월 9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알페스 논란'

- 알페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았다. 알페스는 실존 인물 간의 동성애와 성적 관계를 묘사한 하나의 장르로, 실존 인물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강력히 규제해야한다. 그러나 손 변호사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알페스를 하나의 문화로 보며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듣기 불편했다. <1월 29일 보고서>

○ 1R 「오태훈의 시사본부」 '양변의 <이열지열>'

- 평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이열지열'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해서 진행자와 함께 주요 시사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날은 여야 고발전으로 번지는 4.7 재보선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발언에 청취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판단은 청취자의 몫으로 두고, 출연자들은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주었으면 한다. <3월 24일 보고서>

○ 1R 「주진우 라이브」

- 탐사보도 전문 주진우 기자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사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때때로 편파적인 입장을 취해 듣기 불편할 때가 있다.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청취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조금 더 공정하게 진행해주었으면 한다. <4월 2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정준희 저널리즘 전문가가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출연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최근 선거를 앞두고 정준희 씨가 특정 후보의 입장에 치우쳐 공정성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 청취자들이 해당 방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1R 「스포츠 스포츠」 '안치용 정세영의 야구한잔'

- 스포츠를 좋아하는 청취자로, 매일 저녁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이날 월요일 코너인 '안치용 정세영의 야구한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SSG 랜더스' 소식에 할애해, 다른 팀을 좋아하는 청취자 입장에서 서운했다. 국내에 야구구단이 10개인데, 특정 구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5월 26일 보고서>

○ 1R 「최영일의 시사본부」

- 오전에 있었던 주요 시사이슈들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청취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다만 진행자와 패널들이 여당에 우호적이라 편파적으로 느껴진다. 가령 이날도 2부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두 여당 쪽 인사들이라 공정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1월 9일 보고서>

6. 사실성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영국 변이 바이러스 4명 추가 확진...남아공발도 첫 확인'

- 국내 코로나19 현황을 보도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다음 달부터 국내 개발 치료제와 해외 백신을 투입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막겠다고 한 내용을 전하던 중, 기자가 정

세균 국무총리를 이낙연 국무총리로 잘못 말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예고편)

- 일요일 오전에 「역사저널 그날」의 예고편이 방송되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꼭 챙겨보는 시청자이기에 예고편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 그런데 차지철 전 경호실장 사진에는 김계원으로, 김계원 전 비서실장의 사진에는 차지철로 자막이 잘못 표기됐다. 확인 후 수정해주시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이날 뉴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요인으로 개학과 봄맞이 등에 따른 이동량 증가를 꼽았는데, 하단 자막에 '개학'이라고 잘못 표기됐다. 뉴스의 신뢰도를 위해 최대한 자막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검사 결과 확인 않고 제주 여행...“행정명령 준비”

- 제주에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비바람이 부는 곳엔 날씨에도 제주에 도착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여주었는데, 인터뷰이의 거주 지역이 '경기도 분당시'라고 표기됐다. 분당은 '시'가 아니라, 성남시 남부에 있는 '구'이다.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4월 14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경기 신규 확진 222명...대학교·노래방 등 잇단 감염'

- 안산대학교 교직원 시청자이다. 이날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을 전할 때, 하단의 자막에 '안산대학교 기숙사'라고 표기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다. 정확히는 '안산대학교'가 아닌 '안산시 소재의 한 대학교'였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막에 '안산 소재 대학'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란다. <4월 23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오늘은'

- 7월 7일인 이날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이다. 그래서 이날 뉴스에서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자막에 개통일이 1960년 7월 7일로 표기되어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은 1970년 7월 7일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커지는 가운데, 이날 뉴스에서 코로나19 신규 발생현황에 대해 자세히 전해 주었다. 그런데 지역별 확진자 수를 전할 때 하단의 자막에 '경남'이 '경남'으로 잘못 표기됐다. 앞으로는 자막 표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7월 22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KBS 뉴스 9」'위중증 환자 증가... 다음 주 확진 규모 '주목'

-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2천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자막에 '위중증'이 '위중증'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보기 안 좋았다. 공영방송 KBS인 만큼 자막에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1월 8일 보고서>

○ 2TV 「설 기획 1박 2일」

- '시간탐험대' 특집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섯 멤버들이 조선시대를 시작으로 고려, 백제로 과거 여행을 떠났다. 그 중 백제로 떠나는 과거 여행은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문화단지'에서 진행됐는데, 자막은 부여가 아닌 논산으로 표기됐다. '백제문화단지'는 부여군민들의 자랑이다. 앞으로는 지명 표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360도 현장포착'

- 해당 방송에서 몇 주에 걸쳐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가 일어나는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 노원구에서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는데, '(쓰레기를)갔다 버리는지'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이럴 경우엔 '가져다 버리다'의 준말인 '갔다 버리는지'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자막 표기에 신중해주시기 바란다. <6월 10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할미들이 떴다!'

- 할미들이 아름다운 물의 도시, 전남 여수를 방문했다. 여수에서 할미들이 묵은 갓김치와 삼치 뼈 등으로 매운탕을 끓이는 모습이 방송됐는데, '삼치 머리'라는 자막이 여러 차례 표기됐다. 동물, 생선 등의 머리는 '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12월 1일 보고서>

○ 2FM 「이현우의 음악앨범」

- 2부 말미에 산 이름을 맞추는 퀴즈를 출제했다. 강원도의 명산이고 국립공원 제5호로 산 중 최고 미인이라고 불리는 산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였고, 정답은 설악산이었다. 그런데 이현우 씨가 "계절마다 이름이 다 다르다고 하죠."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4계절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산은 금강산이다. 청소년들도 청취하는 방송이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7월 13일 보고서>

| 7. 프로그램 호평 |

○ 1TV 「특집 다큐 바람, 별 그리고 윤동주」

- 세계 각국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외국인들이 '서시', '십자가' 등을 낭송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이 시기에, 윤동주 시인의 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1월 4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나는 오늘도 희망을 쏜다'

- 9년 전, 사고로 중증 척수장애를 갖게 된 이원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 됐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강연을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이원준 씨를 통해 본인의 일상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다. 일찍 철이 든 자식들이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살뜰히 일상을 돕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일반인들의 삶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는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신년기획 역사저널 그날」'끝내 이기리라 1부'

-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이끌어낸 '국난극복의 역사'를 다뤘다. 새로운 해가 밝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이때, 국난극복의 대표적인 역사인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되돌아볼 수

있어 유익했다. 또한 역사학자 방기철 교수를 필두로 새로운 전문가 패널들이 출연한 점도 좋았다.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1TV 「신년 기획 생로병사의 비밀」 ‘움직이고, 어울려라’

-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법을 집중 조명해 관심 있게 시청했다. ‘블루존’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모여 있는 지역 5곳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비결은 활발한 신체활동이었는데, 신체활동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자세히 다뤄주어 도움이 됐다.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1TV 「신년기획 시사직격」 ‘2021, 걱정하는 당신에게’

-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와 함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안감이 심한데, 이날 방송을 통해 위기의 본질을 살펴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동안 불안하던 마음이 다소 가라앉았다. 계속해서 시사 현안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탐사 프로그램이 되어주길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고려대 컴퓨터학과 인호 교수가 출연해 미래의 ‘돈’은 누가 주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비법을 들어보았다. 이슈를 다루지만, 결코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은 강연에 만족스러웠다.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1TV 「특집 다큐 지방분권 대전환, 지역뉴스의 도전」

- 지역뉴스 40분 편성권을 오롯이 지역총국에서 갖게 된 「뉴스 7」이 지난 1년 동안 지역에 가져온 변화를 돌아봤다. 본인도 지역 시청자로서 늘 지역 언론에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기에, KBS에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사했다. 좋은 방송을 편성해주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지역뉴스의 진정한 역할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2월 5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특선 인생콘서트 스페셜」 [제주총국]

- 각 지역의 특색을 다룬 프로그램인데, 이날은 제주총국에서 제작한 ‘인생콘서트’를 소개했다. ‘누군가를 위한 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시청자들에게 선물이 되고 위안이 됐다. 특히 유리상자가 출연해 결혼식이 연기된 신부를 위해 ‘신부에게’를 불러줘 감동적이었다. 따뜻하고 감미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5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음악은 내 인생... 발달 장애인의 작은 무대’

- 발달 장애인들의 연주회를 취재했다. 작은 공연장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는데, 여기 오기까지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힘든 길을 걸어왔을 그들의 연주가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월요일 아침부터 훈훈한 기사를 접해 기분이 좋다. 이 보도를 계기로, KBS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노력을 꾸준히 취재해주기 바란다. <2월 9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기획 6시 내고향」

-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저녁 시청한다. 도시에 살다보면 농촌

을 비롯한 시골 소식을 얻기 힘든데, 방송 덕분에 좋은 농산물을 잘 구매해서 먹을 수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고향을 떠난 도시인들의 각박한 삶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1TV 「TV 60년 특별생방송 공영방송의 길」

- 이날은 KBS가 공사창립 48주년이자 TV방송 60주년을 맞이한 날이다. 그래서 흑백TV가 방송된 1961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KBS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덕분에 최고 시청률 70%를 기록했던 드라마「여로」등 귀한 과거 영상들을 볼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 계속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당부한다. <3월 5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기획 TV 60년, 시청자와 함께」

- 텔레비전 방송 송출 60년을 맞아 TV 속에 담긴 시대와 삶,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새삼 텔레비전이라는 기계가 그저 오락의 도구가 아닌, 정보통이자 세상을 보여주는 눈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발전해나가는 텔레비전과, 공영방송 KBS가 되어주길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기획 시청자와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KBS 창립 48주년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부제로 꾸며졌다. 이날따라 악단 광칠과 송가인 씨 등 출연진이 화려해 더욱 흥겹게 시청할 수 있었고, KBS 드라마 음악들을 만나보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어 모처럼 그 시절의 추억도 되새길 수 있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희망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1TV 「다큐멘터리 3일」'우리 동네 환경미화원 72시간'

- 코로나19 발병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고 있다. 마침 이날 쓰레기 처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환경미화원의 72시간을 보여줘서 주의 깊게 시청했다. 본인이 사는 동네의 분리수거장만 보더라도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4월 2일 보고서>

○ 1TV 「사랑의 가족」'권 피디가 끝까지 간다'

- 올해 1월,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적 장애인 가족에게 휴대전화기를 수십여 번에 걸쳐 바꾸게 해서 가족 전체가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이후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궁금했는데, 대리점 점장과 본사 임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을 보며 언론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계속해서 공영방송에서 사회취약계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1TV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1 4.7 재보궐선거」

- 이날 2021년 4.7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각 방송사마다 개표방송을 제대로 준비했다고 홍보가 한창이다. 공영방송 KBS는 지난 2020 총선 개표방송 때 정확한 예측으로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개표방송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번에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심층 분석으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시기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1TV 「질문하는 기자들 Q」[첫 회]

-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이날 첫 방송됐다. 첫 번째 주제로 대한민국의 기자단의 운영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그동안 시청자들은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기자단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이유와, 기자단의 문제점 등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 앞으로 미디어비평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길 바라고, 심도 있는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바란다. <4월 20일 보고서>

○ 1TV 「제42회 근로자 가요제」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만 만날 수 있는 「근로자 가요제」를 올해도 재미있게 시청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근로자들이 무대에 올라 숨겨왔던 노래 실력을 뽐내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보기 좋았다. 코로나19로 우울했는데 즐거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기분 좋았고, 내년 '근로자 가요제'도 기대하겠다. <5월 3일 보고서>

○ 1TV 「어린이날 특선 애니메이션 극장판 미니특공대:햄버거 괴물의 습격」

- 세상을 지배한 막강한 햄버거 괴물 군단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미니특공대의 반격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이어서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집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이렇듯 힘겨운 시기에 KBS에서 흥미로운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5월 6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 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

- 최근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날 외롭게 사망한 이들이 살아온 삶을 추적하고,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내용이 방송되어 관심을 갖고 시청했다. 취업난 등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청년 고독사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에서 청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부처님 오신 날 기획 다큐멘터리 3일」'천년의 수행 골굴사 72시간'

- 1500년을 이어온 불가의 특별한 수행법 '선무도'의 성지인 골굴사를 소개했다. 승려뿐 아니라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모인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한편, '선무도'로 심신을 단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방송을 통해 골굴사가 왜 한국의 소림사라 불리는지 알 수 있었다. 경주 함월산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 골굴사를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5월 21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자연스럽게 덕유산에 살다'

- 덕유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산중진미를 소개했다. 순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덕유산 사람들처럼 산중진미 또한 소박했다. 특히 고산시대에서만 자란다는 우산나물부터 고사리, 옷순 등 산이 내어준 나물들로 지은 나물밥상이 인상 깊었다. 아름다운 영상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 방방곡곡 음식문화를 다뤄주어 감사하다. <6월 7일 보고서>

○ 1TV 「KBS 다큐 클래식」[첫 회]

- 지리산 깊은 산골에 사는 김채옥 할머니와, 할머니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삶을 '순간 & 일생'이라는 주제로 다뤘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순간들을 조명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빠른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어 감사하다. <6월 22일 보고서>

○ 1TV 「다큐 온」'지방의회 30년, 2세대의 막을 열다'

-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서른 살 청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방의회의 활약상과, 앞으로의 발전상 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고령층 시청자인 본인이 보기도 군더더기 없이 명확한 설명이 유익했다. 그동안 각 지방의회에 대한 눈길이 곱지만은 않았는데, 방송을 통해 새로운 면을 알게 된 점도 도움이 된다. 각 지방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7월 5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김종대 군사전문가'

- 지난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김종대 군사전문가가 출연해 한미 미사일지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이야기 나눴다. 이 방송을 통해 한국 미사일의 역사를 알게 됐고, 해지 이후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유익했다. <7월 6일 보고서>

○ 1TV 「독립영화관」'공포단편열전'

-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독립영화를 소개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영화 선정이 마음에 든다. '공포단편열전'으로 꾸며진 이날은 단편영화 세 편을 소개해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와 가상의 관계를 통해 본질에 관해 탐구하는 '송'이라는 영화가 신선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더위를 식혀줄 공포영화를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7월 12일 보고서>

○ 1TV 「다큐멘터리 3일」'새별을 품은 농사꾼'

- '새별을 품은 농사꾼'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는 27년 동안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 사람들이 새벽잠을 잊고 써 내려온 이야기를 담았다. 밤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싱싱한 농작물들을 보며 지역농민들의 수고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두렵고 위축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생생한 삶의 현장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어 감사하다. <7월 16일 보고서>

○ 1TV 「시간여행자 루크 2」[최종회]

- 어린 소년 '루크'가 실종된 할아버지를 찾기 위한 여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이날 '마지막 시간여행'이라는 부제로 마지막 회가 방송됐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다룬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주어 지루함을 달랠 수 있었다.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7월 19일 보고서>

○ 1TV 「KBS 다큐 클래식」'명관 씨의 와일드 김포'

- 김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시청자 임명관 씨가, 지난 6년간 직접 촬영하면서 관찰하고 기록한 김포 일원의 생생한 자연생태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단절과 격리가 이어지며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쳤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생생한 야생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위안을 받았다.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7월 20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 각 지역의 특색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이날은 부산충국에서 제작한 기장에서 송정까지 이어지는 해안길 나들이 코스를 소개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유례없는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데, 방송으로나마 파도소리를 이정표 삼아 걷는 해안길 코스를 감상하니 기분전환이 됐다. 계속해서 수준 높은 지역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소개해주기 바란다. <7월 21일 보고서>

○ 1TV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

- 23일, 도쿄올림픽이 개막했다. 지상파 3사에서 모두 개막식을 중계하기에 어느 방송사를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이재후 아나운서와 송승환 전 감독이 해설위원으로 참여하는 KBS를 선택했다. 이재후 아나운서가 해박한 스포츠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진행해주어 만족스럽게 시청했다. 품격 있는 개막식 중계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어질 올림픽 중계도 몹시 기대된다. <7월 26일 보고서>

○ 1TV 「특집 다큐 그 섬에 살고 싶다」'호도 5남매의 여름'

- 여우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작은 섬 '호도'에 모여 살고 있는 다섯 남매의 사연을 소개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서로가 삶의 위안이며 행복한 다섯 남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외출과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시기에 아름다운 섬의 풍광을 보는 것도 위안이 됐다. 마음에 와 닿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7월 30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이슈토크] 사상 첫 올림픽 3관왕, 안산 꿈을 쏘다!

- 올림픽 양궁 역사상 최초로 3관왕에 오른 안산 선수가 출연했다. 최근 안산 선수는 '숏컷' 등 몇 가지 이유로 페미니스트라고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3일 해당 방송에서 안산 선수를 향한 온라인 학대를 비판하고 남성혐오 용어에 대해 제대로 된 어원을 설명해준데 이어, 이날 안산 선수를 섭외해주어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도 정확한 논점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방송을 기대하겠다. <8월 6일 보고서>

○ 1TV 「도쿄올림픽 결산 특집」

- '2020 도쿄올림픽'의 폐막식을 앞두고, 이날 KBS 1TV에서 이번 올림픽의 특별했던 순간들을 다시 정리해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메달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짚어준 점이 유익했고,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올림픽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준 점도 감사하다. 성공적인 올림픽 중계를 마친 제작진과 중계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8월 10일 보고서>

○ 1TV 「2020 도쿄올림픽 폐막식」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총감독을 역임한 배우 송승환 씨와 이재후 아나운서가 이날 도쿄올림픽 폐막식을 생중계했다. 두 진행자의 품격 있는 해설이 감동적이었고, 클로징 멘트 또한 시청자들에게 호평 받기에 충분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논란이나 잡음 없이, 공영방송으로서 올림픽 중계의 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어 감사하다. <8월 10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독소전쟁 80주년 기획 제1편 히틀러 VS 스탈린'

- 1941년 6월 22일 소련의 국경지대에 독일이 무차별 폭격을 가한 '독소 전쟁'을 다뤘다.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며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 불리지만, 정작 '독소 전쟁'에 대해 아는바가 거의 없었는데 이날 알기 쉽게 정리해주어 유익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세계 역사를 다룬 점이 흥미로웠다. <8월 12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트」'국가대표'

- 2020 도쿄 올림픽이 선사한 여운과 감동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날 스포츠의 판도를 바꾼 여성 스포츠인 6인이 출연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성이라는 편견을 이겨내고 노력과 의지,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여성 스포츠인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수신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송이었다. <8월 17일 보고서>

- **1TV 「기후위기 특별기획 4부작 다큐 인사이드」'1부 붉은 지구 - 엔드 게임 1.5°C'**
 - 기후는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후변화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질문을 던지는 방송이었다. 시청 내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고, 결국 지구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9월 6일 보고서>
- **1TV 「특집 다큐 한탄강은 흐른다」**
 -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한탄강과, 그 강을 벗 삼아 살아가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탄강에는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는데, 어부들이 참게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는 모습에 군침이 돌았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이어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들과, 오랜 세월 어부들에게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는 한탄강의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유익했다. <9월 13일 보고서>
- **1TV 「KBS대전-청주 UHD 추석특집다큐 대청호」**
 - 추석연휴를 맞아 KBS 대전과 청주총국이 공동 기획한 UHD 특집 다큐멘터리 '대청호'를 시청했다.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수몰민들의 40년 애환과 대청호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비경이 담겨 있었는데,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 사람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대청호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9월 23일 보고서>
- **1TV 「추석특집 감성로드다큐 한 번쯤 멈출 수밖에」**
 - 가수 이선희 씨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들 위로 떠나는 기행 다큐 프로그램이다. 함께 길을 걸을 친구로 악뮤, 이금희 씨, 김이나 씨가 출연했는데, 요즘 살아가는 고민과 관심사와 마음속의 말들을 나누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따스한 공감과 재미를 전했다. 방송 내내 높은 산을 오르고, 비 오는 아침을 맞고, 별을 보는 등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행복했다. <9월 23일 보고서>
- **1TV 「추석특집 지리산 와운마을의 가을」**
 -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았다. 지리산은 다양한 버섯이 자라 '자연산 버섯의 천국'이라 불리는데, 40년 넘게 버섯을 캐며 살아온 공안수 씨가 산모기와 싸워가며 버섯을 찾아 헤매는 과정을 인상 깊게 시청했다. 코로나19로 긴 연휴에도 집에 머물렀는데, 방송을 통해서나마 지리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즐거웠다. <9월 24일 보고서>
- **1TV 「국군의 날 기획 시사 직격」'버려진 군인들'**
 - 국군의 날을 맞아 버려진 군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다. 2021년 현재 국군의 군사력은 세계 6위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강인한 군사력에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을 해당 방송을 통해 알게 됐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최근 군 내 인권 침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는데 국군의 날을 맞아 군인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어 감사하다. <9월 5일 보고서>
- **1TV 「한글날 특집 노래가 된 시」**
 - 한글날을 맞아 2부작으로 기획된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스타들이 출연해 대한민국의 자랑인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본인도 늘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해왔는데,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한글 사용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한글 사용법에 대한 의견을 내주어 감사했다. 한글날에 뜻깊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0월 12일 보고서>

○ 1TV 「신장개업 운동맛집」‘발목 염좌&허리디스크’

- 배달 1년차 새내기 택배 기사 부부가 만성 발목 염좌와 허리디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주문했다. 양치승 관장이 부부의 관찰 영상을 지켜본 후 물건을 드는 자세와 걸음걸이를 고쳐주고, 새로운 운동화까지 추천해주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사연자의 주문 내용에 따라 찰떡 운동 레시피를 배달해준다는 콘셉트가 신선하고 유익하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0월 22일 보고서>

○ 1TV 「데뷔의 순간 스페셜」‘가요의 탄생’

- 본인은 70대 시청자이다. 이날 ‘가요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가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되짚어보았다. 이어 끊임없이 사랑받아온 트로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뤘는데, 오늘처럼 기분 좋게 방송을 시청했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했다. 모처럼 수신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송을 제작해준 제작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11월 8일 보고서>

○ 1TV 「UHD 역사스페셜」‘한국의 미 2부 다시 보다’

- ‘한국의 미’에 대해 과거부터 현대까지 되돌아보았다. 건축가, 사진작가, 디자이너 등 한국성을 탐구하는 이 시대 예술가들이 대거 출연해 ‘한국의 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 ‘한국의 미’란 전통이 아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품격 있는 역사 다큐멘타리를 제작해준 것에 감사한다. <11월 11일 보고서>

○ 1TV 「특집 더 나은 삶, 우리 함께 당신을 응원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게 착한 행위와 선한 봉사로 감동을 선사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힘든 상황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웃의 모습을 보며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본인도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모금에 동참했다. KBS에서 전국의 위기 가정을 도울 수 있게 좋은 취지의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1월 29일 보고서>

○ 1TV 「20주년 특별기획 생로병사의 비밀」‘1부 음식과 소화의 길’

- 인체 안에는 중요한 길들이 있다. 소화의 길과 혈액의 길, 그리고 신경과 통증의 길들이다. 최근 서구식 식단의 증가로 소화기관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날 인체의 길이 막히면 생기는 질병들과 치료법을 자세히 다뤄주어 굉장히 유익했다. 생명 활동에 가장 중요한 소화계를 살펴보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어 감사하다. <12월 3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2021년을 빛낸 사람들 특집’

-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은 2021년을 빛낸 여덟 명의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해당 방송을 진행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덟 명의 게스트들의 우리말 도전이 보기 좋았다. 더불어 엄지인 아나운서의 활기찬 진행도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계속 유익한 방송으로 시청자들이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게 도와주기 바란다. <12월 22일 보고서>

○ 1TV 「송년기획 아침마당」‘화요초대석’

- 이날 ‘화요초대석’은 ‘올 한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주제로 꾸며져 가수 김연자 씨와 한혜진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방송 중간에 두 원로가수들이 무대도 선사해주어 마치 연말 디너쇼를 관람하는 기분으로 행복하게 시청했다. 송년기획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을 기획해준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에게 감사하다. <12월 29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반갑소 행복하소 하하하 웃어보소'

- 이날은 '반갑소 행복하소 하하하 웃어보소'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최근 방탄소년단에 폭 빠진 윌리엄.벤틀리 형제가 방탄소년단을 찾아 떠나는 여정과, 연우·하영 남매가 새해를 맞아 만두를 빚는 모습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갈수록 귀여워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계속해서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만 들어가는 좌충우돌 성장이야기를 즐겁게 시청하겠다. <1월 5일 보고서>

○ 2TV 「영상앨범 산」'중국 궁가산: 1부. 시간이 머무는 풍경'

- 중국의 대표적인 산악지역 중 한 곳인 '쓰촨성'과, '쓰촨성'의 최고봉인 '궁가산'의 비경을 소개했다. 성스러운 설산과 거대한 빙하, 산중 호수가 만들어내는 풍경 등을 보여주었는데 내내 감탄하며 시청했다. 코로나19로 일 년 넘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나마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1월 7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트로트 선·후배 대전'

- 이날은 선배팀과 후배팀이 대결을 펼치는 '트로트 선·후배 대전' 컨셉으로 진행됐다. 트로트 대부 강진 씨부터 트로트 아이돌 윤수현 씨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해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였다. 선·후배 간의 치열한 대결도 보는 재미를 더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우울했는데,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1월 11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첫 회]

- 배우 박원숙 씨, 김영란 씨, 김청 씨, 가수 혜은이 씨가 남해에서 다시 만났다. 특히 박원숙 씨와 김청 씨가 이날 방송에서 각자 앓고 있는 '공황장애'와 '폐소공포증'을 고백했는데, 서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2TV 「트롯 전국체전」

- TOP14의 준결승 1차 무대가 그려졌다. TOP14 모두 노래실력이 출중하고, 다들 끊임없는 변신으로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서 잠시도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다. 더욱이 이날은 1위와 2위의 순위가 뒤집히는 등 시청자들에게 역대급 긴장감까지 선사했다. 다음 주에 펼쳐질 준결승 2차 무대도 무척 기대된다. <2월 8일 보고서>

○ 2TV 「UHD 환경스페셜」[첫회]

- 지난 2013년,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던 「KBS 환경스페셜」이 8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이날은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집중 조명했는데,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라 주의 깊게 보았다.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공영방송에서 환경 전문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3월 8일 보고서>

○ 2TV 「트롯 전국외전」'TOP8 스토리 무삭제판 2회'

- 이날은 TOP8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무삭제판 영상을 모두 공개했다. 덕분에 「트롯 전국체전」이 끝난 후 아쉬웠던 마음이 어느 정도 달래졌다. 특히 다시 보고 싶었던 화제의 선수들의 근황이 공개돼 무척 반갑고 즐거웠다. 이어 오는 13일에 방송될 「스페셜 갈라쇼」에 대한 기대도 크다. 좋은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3월 8일 보고서>

○ 2TV 「트롯 전국체전 스페셜<갈라쇼>」

- 인기리에 종영된 「트롯 전국체전」의 공식적인 피날레이자, TOP8이 가수로서 첫발을 내딛는 '갈라쇼'가 방송됐다. 다채롭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특급 콜라보레이션 무대에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우울했는데 「트롯 전국체전」부터 갈라쇼에 이르기까지, 신나는 축제에 초대되었던 기분이다.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3월 15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트롯전국체전 리벤지 특집'

- 이날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트롯 전국체전」의 주역들이 총출동했다. 금메달리스트 진해성 씨부터, 심금을 울리는 감성 국악을 선보였던 김산하 씨, 신미래 씨 등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했다. 다들 깊이 있는 음식과 호소력 짙은 가창력으로 수준급 무대를 선사해주어 즐거웠고, 재미있는 방송을 제작한 제작진에게도 감사하다. <3월 22일 보고서>

○ 2TV 「걸어서 세계속으로」'태평양의 보석 타히티'

- 맑은 하늘과 투명한 바닷물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타히티를 보여주었다. 비록 방송을 통해서였지만 평화롭고 시원한 쪽빛 바다를 보니 기분전환이 됐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행을 떠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인데,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 <4월 1일 보고서>

○ 2TV 「1박 2일」'경남 함양, 불로장생 산삼원정대'

- 이날은 '황금산삼'을 쟁취하기 위한 여섯 멤버들의 도전이 그려졌다. 심마니로 변신한 멤버들이 황금산삼이 표시된 지도 조각을 분석해가며 산삼을 찾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1박 2일」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잠자리 복불복 미션도 여전히 재미있었다. 계속해서 출연자와 제작진이 협동해 유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4월 20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 돼지고기를 주제로 한 25번째 메뉴 개발 대결이 펼쳐졌다. 오윤아 씨의 돼지고기튀김덮밥부터 기태영 씨의 무수분 수육 등 예상을 뛰어넘는 메뉴들에 감탄하며 재미있게 시청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매주 유쾌하고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계속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한 메뉴를 많이 개발해주기 바란다. <5월 3일 보고서>

○ 2TV 「UHD 환경스페셜」'최후변론 들개'

- 버려진 개들에게 진짜 필요한 삶은 무엇인지, 개의 시선으로 답을 모색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들개를 입양한 두명진 씨의 사연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가 제시한 들개와 공존하는 방법을 보며 개를 사지 말고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방송이었다. <5월 10일 보고서>

○ 2TV 「개는 훌륭하다」'호빵이네 NEW 빵 패밀리! - 꼬물이 육 남매'

- 반려견을 이해하고, '펫마켓'을 배울 수 있어 매주 빠짐없이 시청한다. 고구마를 케는 개 '호빵이'와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됐던 보호자가 이날 방송에 다시 출연해, 구조한 유기견 새끼들의 새 보금자리를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아직 우리사회에 유기견 구조에 힘쓰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훈훈했고, 유기견 새끼들도 좋은 주인을 만나길 바란다. <5월 12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개그콘서트 특집'

- 지난해 막을 내린 「개그콘서트」의 주역들이 출연해 각양각색의 무대를 선보였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지며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어 늘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다른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개그맨들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한편 가슴 뭉클했다. 오랜만에 그리웠던 개그맨들을 볼 수 있어 좋았고, 감동적인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17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댓글 읽어주는 남자'

- 1997년 IMF가 닥쳤을 때 매장의 모든金を 내놔던 금은방 사장님의 근황을 전해주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IMF를 이겨낸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소문 끝에 해당 사장님을 찾아낸 제작진을 칭찬하고 싶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 감동을 전해주어 감사하다. <6월 16일 보고서>

○ 2TV 「랜선 장터」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농어민과 힘을 합쳐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시작을 장식할 첫 번째 특산물은 대표적인 K-푸드인 '영천 한우'와 '강진 묵은지'였는데, 입맛을 돋우는 특산품들에 절로 소비욕구가 샘솟았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어 감사하다. <6월 18일 보고서>

○ 2TV 「지구촌 뉴스」

- 간밤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뉴스와 각종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매일 오전 챙겨본다. 주요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넓은 세계 속 다양한 사람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도 들려주어 유익함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계속해서 시청자와 지구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7월 7일 보고서>

○ 2TV 「UHD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이날 영국의 환경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마크 라이너스의 저서 '6도의 멸종'을 읽어주었는데, 덕분에 두렵지만 알아야만 하는 기후변화의 진실을 알게 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유익한 방송이었고, 앞으로도 공영방송에서 지구의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해 경고해주기 바란다. <7월 12일 보고서>

○ 2TV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

- 전주만 들어도 가슴 뛰는 70~90년대 명곡을 2021년 감성으로 다시 살릴 새 가수를 찾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대표 레전드 가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신선한 실력파 참가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더욱이 이미 식상해진 트로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도 흥미를 자극했다. 우리가 사랑한 그 시절의 노래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향수를 선사해주기 바란다. <7월 19일 보고서>

○ 2TV 「여기는 도쿄」

-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렸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어 개막된 만큼 기대를 품고 있다. 지상파 3사 모두 중계하고 있는데, 특히 KBS는 자신의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선수들이 해설위원을 맡아 더욱 눈길이 간다. 2TV에 편성된 「여기는 도쿄」에 대한 기대가 크니, 좋은 중계로 다채로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7월 27일 보고서>

○ 2TV 「조선팝, 드랍 더 비트 3편」

- 국악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협연하는 '조선팝(조선+POP)'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제작된 방송이다. 우선 기획의도가 너무 좋고, 출연한 젊은 예인들의 실력이 출중해 방송 내내 넋을 놓고 시청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되어 '제2의 아날치', '제2의 악단광칠'과 같은 실력 있는 예인들을 많이 배출되었으면 한다. <9월 8일 보고서>

○ 2TV 「표리부동」'인천 모자 살인사건'

-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을 범죄분석가들이 전문적인 분석으로 재조명하며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2013년 8월에 일어났던 '인천 모자 살인사건'을 다뤘는데, 말할 수 없이 잔인한 희대의 사건을 시청하며 방송 내내 혀를 내둘렀다. 해당 방송을 통해 일상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위험에 대비하려는 자세를 갖게 된 점이 유익하다. <9월 10일 보고서>

○ 2TV 「2021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 지난해 추석에는 KBS에서 나훈아 씨와 함께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공연을 선사했다. 올해 추석에도 역시 심수봉 씨와 함께 '피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연을 준비해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스케일 있는 대형무대부터 심수봉 씨의 애잔한 음색까지, 150분이 짧게 느껴지는 멋진 공연이었다. 암담한 시기에 좋은 공연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어 감사하다. <9월 23일 보고서>

○ 2TV 「갯파더」

- '국민 아버지' 스타와 '국민 아들' 스타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자 관계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순재 씨와 허재 씨, 김갑수 씨와 장민호 씨, 주현 씨와 문세윤 씨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스타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고, 진짜 가족 간에는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을 새롭게 만난 부자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앞으로 인기 예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10월 5일 보고서>

○ 2TV 「UHD 환경스페셜」

- '늑다리'에 사는 김필봉 씨와 야생동물들의 공존을 다뤘다. 해당 방송을 통해 문명의 이기를 앞세운 사람들 때문에 서식지를 잃고 도로에서 생을 마감하는 야생동물들의 처참한 사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아름다운 영상으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는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어 감사하다. 덕분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11월 15일 보고서>

○ 2TV 「개승자」

- 코미디언들이 팀을 이뤄 다음 라운드 진출 및 우승을 위해 경쟁을 펼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두 번째 라운드 C조의 경연 무대가 공개됐는데, 탈락했던 오나미 팀이 개그판정단의 선택을 받으며 3라운드 진출기회를 획득하는 모습이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다. 계속해서 신선한 포맷으로 코미디 프로그램에 목마른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12월 21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 각 지역에 관련된 간략한 뉴스 및 다양한 지역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은 전국의 날씨와 교통 상황 등을 알려주어 유익하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주는 점도 좋다. 앞으로도 각 지역의 소식을 전국으로 전달해서 지역 방송 활성화에 기여해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1R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범죄와의 전쟁’**

- 이번 주에는 윤종빈 감독, 배우 하정우 주연의 2012년도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만나보았다. 매일 다른 주제로 해당 영화를 분석해주어 재미있게 듣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인 영화와 책을 소재로, 작품 안에서 다채로운 지식을 찾아내 전달해주어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다. 계속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과 영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기 바란다. <2월 1일 보고서>

○ 1R 「라디오 매거진 ‘위크 앤드(Week &)’

- 매거진 스타일의 주말 프로그램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의 시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굉장히 다양한 코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날씨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정보와 한 주간 화제가 된 시사 이슈까지 어느 것 하나 유익하지 않은 코너가 없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활력을 제공해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매일 빠짐없이 청취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다양한 경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늘 도움 받고 있다. 이날도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을 시작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까지, 폭넓은 주제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했다. 계속해서 어려운 경제를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 되어주기 바란다. <4월 30일 보고서>

○ 1R 「기상통보」

-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새벽마다 청취하고 있다. 꼭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상에 관한 각종 정보나 예보를 알려주어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매일 새벽 유익한 방송으로 청취자들이 악기상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 <5월 6일 보고서>

○ 1R 「바른말 고운말」

-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청취자로, 아이들에게 늘 해당 방송을 추천한다. 2분가량의 짧은 시간이지만 속담과 관용구, 다양한 사자성어까지 배울 수 있어 무척 유익하다. 늘 좋은 방송으로 청취자들이 바른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5월 14일 보고서>

○ 1R 「경제세미나」

-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경제 전문가들이 강연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점이 청취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5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안,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까?’**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기된 배경은 무엇인지, 손실보상법안과의 상관관계와 아울러 재난지원금과 국가재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해보았다. 어렵게 살면서도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본인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매일 오후 성역 없는 주제를 놓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해주어 감사하다. <6월 11일 보고서>

○ 1R 「김성완의 시사夜」

- 그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정리해주어 매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청취한다. 늘 화제성 뉴스 및

사건사고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더불어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의 안정적인 진행도 방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계속해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1R 「오늘 아침 1라디오」

- 밤사이 발생한 주요 뉴스 및 속보를 전달해주는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평소 출근을 준비하며 청취한다. 진행자와 패널들의 유쾌한 진행 덕분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정보를 제공하는 점도 도시에 사는 청취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1R 「시대음감」

- 음악 평론가 김태훈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말마다 재미있게 듣고 있다. 음악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는 설정이 좋고, 더불어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야기 등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부분도 많다. 앞으로 더 깊고 풍부한 주제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7월 13일 보고서>

○ 1R 「와이파이 한국인」

- 한국사의 위인 이야기를 각색해 라디오 드라마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청취 중이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고전을, 성우들이 좋은 목소리로 맛깔나게 연기해주는 점이 몹시 마음에 든다. 고전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동시에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7월 29일 보고서>

○ 1R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약이 되는 음식 이야기'

- 한 주 동안의 사건-사고를 정리해주고, 사회 트렌드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해주는 주말마다 청취한다. 이날 2부에 동국대 정지천 교수가 출연해서 쌀의 유래와 효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매우 흥미로웠고 유익하기도 했다. 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청취하겠다. <10월 19일 보고서>

○ 1R 「누리호 발사 특집 <누리호, K-우주시대를 열다!>」

- 이날 오후 5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발사 준비를 마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연결해 현장 상황을 알아보고, 발사가 연기된 이유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어 떨리는 마음으로 잘 청취했다. 모형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은 실패했기에 아쉬움이 남지만, KBS에서 청취자들을 위해 긴장되는 발사 순간 등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을 기록해주어 감사하다. <10월 25일 보고서>

○ 1R 「기억을 기록하다」

- 당사자의 목소리로 듣는 근현대사 오디오 다큐멘터리이다. 1948년 미국 독도 폭격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김상복 씨의 이야기, 삼풍백화점 구조대장 경광숙 씨의 이야기, 평택항 23세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본인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늘 주의 깊게 청취한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2월 13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매일 오전, 어머니와 함께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패티김, 조용필 등 708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옛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선곡해주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더불어 주현미 씨의 친근한 진행과 청취자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계속해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2월 10일 보고서>

○ 2R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 청취자들이 좋아할만한 익숙한 가요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듣는다. 좋은 노래와 함께 생생한 사연도 들을 수 있어 덕분에 재미있고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늘 유쾌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랜 친구 같은 방송으로 청취자들과 함께해주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2R 「이상호의 드림팝」

- 저녁시간에 익숙한 팝송을 틀어주어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한다.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사연들, 그리고 진행자 이상호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음성과 차분한 진행 덕분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다. 늘 마음에 위안이 되는 좋은 방송을 들려주어 감사하다. <3월 18일 보고서>

○ 2R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 심야 시간대 라디오 방송을 즐겨 청취한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는 편안한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기에 제격이다. 또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4월 6일 보고서>

○ 2R 「김태훈의 프리웨이」

- 시사·교양·과학·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전해주고 친숙한 팝을 들려주어 출근길에 즐겨 청취한다. 팝 칼럼니스트이자 영화평론가인 김태훈 씨의 박학다식함이 방송에 묻어나 늘 만족하며 듣고 있다. 늘 참신하고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완성도 높은 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5월 14일 보고서>

○ 3R 「대한민국 인기가요」

- 시대별 인기가요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방송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고 향수에 젖을 수 있다. 이날은 김학래 씨의 '내가'와 이재성 씨의 '고독한 디제이' 등 선곡이 특히 좋았다. 최근 트로트 열풍으로, 가요를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 아쉽다. 계속해서 좋은 가요를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3R 「내일은 푸른하늘」

- 늘 애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인데, 이 방송 덕분에 장애 극복의 의미를 찾고 재활 의욕을 높일 수 있다. KBS에서 이런 방송을 통해 장애인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해주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1월 29일 보고서>

○ 3R 「함께하는세상만들기」

-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매일 오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방송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유익한 것 같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

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3R 「소설극장」 '안나 카레리나'

-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베스트셀러 및 고전소설을 선정하여 성우들이 낭독해주는 오디오북 개념의 방송이다. 현재는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리나'를 다루고 있는데, 결혼한 여성인 안나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 흥미롭다. 다양한 이유로 책을 읽을 수 없는 청취자들에게 훌륭한 소설을 읽어주어 감사하다. <3월 26일 보고서>

○ 3R 「KBS 오디오북-최고의 클립」

- 동서양의 신간과 베스트셀러, 고전 등을 짧은 오디오북 클립으로 발췌하여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사흘에 걸쳐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소개해주었는데, 내용이 무척 재미있어 끝난 게 아쉬울 정도였다. 이어 '마음'이라는 책을 소개 중인데 역시 알차고 유익하다. 계속해서 청취자들이 다양한 장르의 책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3R 「심준구의 세상보기」

-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 씨가 단독MC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각장애와 관련된 이웃들의 소식 및 정보를 전달해주고,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 등도 들려주어 매회 재미있게 청취 중이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국내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복지전문 채널인 KBS 3R에 항상 감사하며, 계속해서 좋은 방송으로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기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어렵고 딱딱한 음악이라고만 생각해왔던 클래식을 쉽고 유쾌하게 소개해주어 잘 듣고 있다. 해당 방송 덕분에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조금씩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날따라 선곡이 좋아서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사람의 목소리로 연주하는 성악곡 전문 프로그램이다. 해당 방송을 청취하면서 왜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따뜻한 악기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게 됐다. 진행자의 차분한 진행과 함께, 오후 시간대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선곡이 듣는 재미를 더한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의 예술적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길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1FM 「김미숙의 가정음악」

- 편안하고 아늑한 음악 위주로 선곡을 해주어 오전 시간에 늘 청취한다. 해당 방송을 통해 음악을 듣고 즐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영화, 그림 등 문화 전반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는 점도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다. 이날따라 선곡이 좋아 감성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늘 따뜻하고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16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해질 무렵인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클래식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어 즐겨 청취한다. 본인은 클래식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해당 방송덕분에 어느덧 클래식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청취자들에게 좋은 음악을 통해 하루를 차분히 정리할 여유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3월 8일 보고서>

○ **1FM 「출발 FM과 함께」**

- 매일 아침을 시작하며 「출발 FM과 함께」를 청취한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좋은 음악과 사연을 들려주고, 날씨 정보까지 제공해주어 늘 도움 받고 있다. 특히 진행자의 따뜻한 멘트에서 하루를 시작할 힘과 용기를 얻을 때가 많다. 앞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청취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따뜻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1FM 「명연주 명음반」**

- KBS 1FM의 오랜 청취자이다.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명연주 명음반」은 명반이 중심이 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 정말 애청한다. 때때로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 레이블의 음반을 소개해주는 점도 독특하고 흥미롭다. 실력 있는 음악가들의 연주나, 음반과 연주자에 얽힌 에피소드 등을 더욱 다양하게 전달해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음악이 있는 풍경'**

- 아직까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음악'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설명해주어 매일 오후 청취한다. 다양한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말에 방송되는 '음악이 있는 풍경' 코너를 가장 재미있게 듣고 있다. 해당 방송 덕분에 우리음악에 조금씩 친근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다양한 전통 음악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간결하고 알찬 구성으로 음악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악 사건과 최신 이슈들을 알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하다. 특히 이날은 선곡이 좋아서 평소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청취했다. 계속해서 우리 음악가들의 이야기와 연주를 충실하게 전해주기 바란다. <3월 31일 보고서>

○ **1FM 「클래식FM 개국42주년 특집 '어느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 클래식 전문 라디오 채널인 1FM에서 개국 42주년 특집으로 '어느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라는 주제의 방송이 온종일 진행됐다. 피아졸라와 베르디, 생상스까지 세 명의 작곡가를 선정해 작품에 대한 심층 분석부터 라이브 연주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 늘 좋은 방송으로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4월 5일 보고서>

○ **1FM 「국악의 향기」**

- 새벽 시간에 맑고 청아한 우리음악과 잔잔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매번 빠짐없이 청취한다. 우리 음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뒤 그 음악을 들려주기 때문에 전통 음악에 대한 상식이 늘어난다. 그뿐 아니라 옛글의 원문을 소개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우리음악을 알려주기도 해서 흥미롭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좋은 방송을 들려주어 감사하다. <6월 17일 보고서>

○ **1FM 「당신의 밤과 음악」**

- 청취자들의 평화로운 밤을 위해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심야시간대 라디오 방송이다. 이날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3악장 피날레'를 선곡해주었는데 깊은 감동을 느꼈고, 너무 좋은 방송이었다고 칭찬하고 싶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할 만큼 애정이 깊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6월 18일 보고서>

○ **1FM 「JAZZ 수첩」**

- 재즈를 좋아해서 주말 밤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재즈는 다소 어려운 음악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편안하고 정감 어린 재즈를 많이 알게 되어 기쁘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듣기에 편안하고 귀에 익숙한 재즈를 많이 소개해주면 좋겠다. <7월 19일 보고서>

○ **1FM 「KBS 클래식FM 노래의 날개 위에 30주년 특집」**

- 오는 4일「노래의 날개 위에」가 3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해 KBS 클래식FM에서 유니버설뮤직과 콜라보레이션으로 기념 음반을 발매한다고 하여 기대가 크다. 그동안 '성악곡 전문'이라는 특화된 방송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가진 아름다움을 전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최고의 성악가들이 선사하는 수준 높은 라이브 무대를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11월 4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개그맨 박명수 씨의 재치 넘치는 진행에 이끌려 매일 점심시간에 해당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요일마다 각기 다른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더욱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점도 흥미진진하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2FM 「황정민의 뮤직쇼」**

- 갓 발매된 신곡 소개는 물론 청취자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콩트까지, 모든 코너들이 독특하고 흥미로워서 매일 즐겁게 청취하고 있다. 아주 간단한 미션에만 성공하면 선물을 주는 코너도 있어 방송에 참여하기도 한다. 매일 청취자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2FM 「정은지의 가요광장」**

- 다양한 장르의 가요부터 최신곡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점심시간에 청취하고 있다. 진행자 정은지 씨 특유의 발랄함과 친근한 매력이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음악 위주의 선곡도 마음에 든다. 계속해서 유쾌한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점심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2FM 「조정현의 굿모닝팝스」**

- 매일 아침 해당 방송을 통해 영어공부를 하는 청취자이다. 혼자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진행자 조정현 씨와 함께 하니 능률이 배가 된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데, 중간 중간 틀어주는 노래들이 좋아서 즐겁게 청취하고 있다. 늘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유익하게 청취하겠다. <3월 25일 보고서>

○ **2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 윤정수 씨와 남창희 씨의 재치 있는 입담에 끌려 애청 중인 청취자이다. 두 진행자의 장난스럽고 편안한 진행이 매력적이다. 선곡도 좋고 청취자들의 사연도 유쾌해서 매일 재미있게 청취한다. 앞으로도 청취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함께해주길 바란다. <3월 26일 보고서>

○ **2FM 「이현우의 음악앨범」**

- 매일 오전 두 시간씩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음악 프로그램임에도 오늘의 뉴스를 살펴보는 코너부터 남녀의 솔직한 속마음을 톡 터놓고 나눠볼 수 있는 코너까지, 너무도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어 시

간 가는 줄 모르고 청취한다. 품격 있는 음악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감성을 채워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4월 5일 보고서>

○ **2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 좋은 노래와 감동적인 사연이 듣고 싶어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어서 즐거운 두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늘 변치 않고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계속해서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4월 22일 보고서>

○ **2FM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 KBS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볼륨을 높여요」의 애청자이다. 매일 다른 코너와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연들까지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오프닝 곡부터 시작해서 선곡이 무척 좋은 것 같다. 매회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는 제작진과 진행자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5월 28일 보고서>

○ **한민족1 「경제로 통일로」**

- 북한 동포에게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북한 동포는 아니지만, 해당 방송에서 해주는 설명들이 너무 유익해서 매번 청취한다.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어 감사하다. 청취자들이 통일 경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추억의 노래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중장년층 청취자들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방송이다. 진행자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친근감 있는 진행도 해당 방송의 묘미다. 다소 이른 시간 대 편성으로 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한민족1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 우리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처럼 자세히, 꾸준하게 우리 역사를 다뤄주는 방송이 잘 없기 때문에 주말마다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 청취자들에게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해주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13일 보고서>

○ **한민족1 「통일열차」**

-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하고, 남북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분석해주는 등 유익한 내용이 많아 자주 청취한다. 그뿐 아니라 잊혀져가는 남북전통국악에 대한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 흥미롭다. 늘 알찬 정보로 가득한 방송을 제작해주는 점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좋은 방송으로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 분위기 형성에 기여해주기 바란다. <6월 23일 보고서>

○ **한민족1 「팝스 프리덤」**

- 북방동포들과 팝송을 통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팝 명곡들을 BGM형식의 음악포맷으로 구성해 들려주는 점이 신선하다. 늦은 시간 편성에도 독특한 매력 때문에 자주 청취하게 된다. 이날 존 레전드의 곡들과 오드리 헵번이 부른 'Moon river' 등을 들려주어 즐겁게 감상했다. 좋은 방송을 위해 고생하는 제작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7월 9일 보고서>

○ **한민족1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 평일 오후 방송되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를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한류소식과 초대석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코너가 많아 재미있다. 최근 김성은 아나운서로 진행자가 바뀌었는데 특유의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반갑다. 계속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8월 25일 보고서>

○ **한민족1 「KBS 한민족방송-1라디오 공동기획 <한국인을 읽는다>」**

- 지난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주요 분야 대표 전문가들의 릴레이 지식토크가 진행되고 있어 열심히 청취 중이다. 덕분에 우리 사회 주요 관심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대략적으로나마 정리해볼 수 있었다. 좋은 기획을 통해 청취자들로 하여금 오늘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8월 25일 보고서>

○ **한민족1 「KBS 무대」**

- 역사가 매우 오래된 KBS의 라디오 드라마로, 순수 창작 시나리오 중에 뽑아서 각색한 후 약 4~50분 분량의 드라마로 제작해 들려준다. 실력 있는 성우들이 출연해 과장되지 않은 정극 스타일로 연기하기 때문에 무척 재미있다. 성우들의 연기와 함께 들려주는 배경음악도 극에 감수성을 더한다. 계속해서 새롭고 참신한 창작극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11월 23일 보고서>

| 8. 표현(소재) |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505명 확진’ BTJ열방센터 미검사자 70%”...집단시설 신속항원 검사’**

-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5백 명을 넘어섰고 감염 지역도 다양하게 분포되었지만, 이곳 방문자의 70%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BTJ열방센터’라는 생소한 단어 때문에 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기자가 ‘선교단체 인터콥의 본부’라고 짧게 언급했지만 시청자가 이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어렵고 낯선 단어가 사용될 때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 <1월 11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아빠, 그 이름만으로도’**

- 20년 차 연극배우 이종승 씨의 고단한 하루가 방송되었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며 야간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건설 현장의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찮게 보이는 일은 있어도 하찮은 사람은 없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와서 듣기 불편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이므로 주의해주기 바란다. <1월 14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택배기사 근로시간 줄여야”...택배요금 인상은 ‘팽팽’**

- 택배 요금 인상에 대한 KBS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온라인 쇼핑물의 평균 택배요금인 2,500원을 기준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일반 택배요금은 가장 저렴한 경우 4,000원부터 시작이고 우체국 택배는 더 비싸다. 본인은 업무 상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데, 한 달에 삼백 만원까지 나올 때도 있다.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택배노조의 입장만 다뤄진 것 같아 아쉽다. <2월 1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이날 바리톤 이응광 씨가 출연했다. 이응광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했는데 노래 중반에 마스크를 벗었고, 잠시 후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를 던졌다. 그 과정에서 마스크에 묻은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튕겨 갈아 우려스러웠다. 또한 국민들은 사용한 마스크를 반으로 접은 후 끈으로 묶어서 버리는데, 아무데나 던지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2월 2일 보고서>

○ 1TV 「재난탈출 생존왕」'알아야 산다'

- 해빙기에 많이 발생하는 얼음물 익수 사고를 대비해, 해빙기 얼음낚시 사고로부터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생존왕의 가르침에 따라 보통남이 얼음물에서 탈출하는 시범을 보였는데, 안전을 위해 방수가 되는 드라이슈트를 착용한 채였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드라이슈트를 착용한 채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정이라 아쉬웠다. <2월 22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하는 인생 2막'

- 동양화의 대가인 안창수 화백이 출연해 '도전하는 인생 2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덕분에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참고할만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난 후 진행자와 안창수 화백이 인사를 나누며 악수하는 모습이 비춰졌다. 앞으로는 신체접촉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는 우리말을 바로잡고,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게 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고령의 시청자로 매주 월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챙겨본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되어, 시청을 하며 함께 풀어보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해주기 바란다. <3월 10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4대강 사찰 원문 입수...박형준 연루 확인'

-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박형준 후보가 지지율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라 해당 보도가 다소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3월 12일 보고서>

○ 1TV 「UHD 환경스페셜」'조류충돌 유리창 살해사건'

- 우리나라에서 한 해 유리창 충돌로 8백만 마리의 새가 죽는다고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인천 송도에서는 도로와 아파트 방음벽에 맹금류 모양의 시트지를 부착해 새들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방음벽은 도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데 해당 방송이 죄책감을 갖게 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간결한 해결방법이 있는데 심각하게 다루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3월 15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역사 왜곡 논란 SBS '조선구마사' 폐지'

-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반중 정서를 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해당 드라마의 폐지 이유는 역사 왜곡과 친(親)중국 논란 때문인데, '반중정서를 넘지 못해 폐지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주기 바란다. <3월 29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내일부터 AZ 백신 접종 재개, 30세 미만 제외...'백신 효과 AZ 92%·화이자 100%'''

- 희귀 혈전증 발생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 된 사망 사례가 47건 정도 되고,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도 많은데 이에 대한 보도가 적어 답답하다.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해하지 않고, 백신의 효과 위주로 보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4월 13일 보고서>

○ 1TV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클로즈업 TV'

- '클로즈업 TV'에서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퓨전사극 「달이 뜨는 강」을 다뤘다. 해당 드라마는 극중 인물들이 입는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과 비슷하다는 점과, 극중 등장한 편지 속 글씨가 중국어 간체자로 적혀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적이 부족해 아쉬웠다. 역사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짚어주었더라면 더 유익했을 것 같다. <4월 13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신규 확진자 542명...총 110,688명'

- 본인은 시각장애인 시청자이다. 이날 뉴스에서 신규 확진자 현황 및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하단의 자막에 '깜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해당 용어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깜깜이'라는 표현 대신 '감염경로 불명'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해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1TV 「재난탈출 생존왕」'도어락이 위험하다'

- 이날은 도어락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런데 예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범죄자들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너무 자세히 다뤄 오히려 모방 범죄가 발생할 것 같아 우려가 된다. 미세 슛가루부터 자외선 손전등과 FID 카드키 복제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4월 26일 보고서>

○ 1TV 「2020-2021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전주KCC:안양KGC'

- 이날 2020-2021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 전주 KCC와 안양 KGC의 경기가 열렸다.「미스트롯2」출신 가수 양지은 씨가 하프타임에 등장해 특별한 축하 무대를 꾸몄는데, 갑자기 화면을 돌려 관중석을 보여주거나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계속 틀어주어 답답했다. 축하 공연을 제대로 보여주었더라면 더 즐거운 중계방송이 되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5월 11일 보고서>

○ 1TV 「시청자와 함께 30년 아침마당」

- 「아침마당」이 30주년을 맞아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서 '희망은 당신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방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102세 김형석 교수가 우산을 들고 방송에 임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오락가락한 날씨에 야외에서 방송을 진행한 제작진에게 실망스럽고, 파라솔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도 성의 없게 느껴진다. <5월 21일 보고서>

○ 1TV 「TV 수신료 조정안공청회」

- KBS가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덕분에 수신료 인상에 대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토론자 대다수가 사회 지도층이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서민들은 코로나19 시국에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 이러한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 <5월 24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가족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의 가창력 뒤에 숨겨진 인생사를 들을 수 있어 매주 재미있게 시청한다. 그러나 간혹 노래 실력이 출중한 팀이 떨어지고, 노래 실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한 팀이 우승을 차지할 때가 있다. 실력보다 사연에 더 집중이 되는 점을 수정·보완해서, 더욱 공정한 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5월 2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데, 그때마다 화면에 주사바늘을 비춰준다. 그런데 의외로 의료용 바늘 종류에 공포감을 느끼는 시청자가 많다. 본인도 주사기를 보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주사기 공포증을 앓고 있다. 본인과 같은 시청자들을 위해 주사바늘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다른 영상으로 대체해주기 바란다. <6월 2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고향을 떠난 도시인들에게 각 지방의 다양한 문화에 접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저녁 알차게 시청 중이다. 다만 콘셉트가 겹치는 코너가 여럿 있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예를 들면 '힘내라! 전통시장'과 '딩동! 전통시장이 왔습니다'가 포맷이나 내용 등이 너무 비슷해 지루하다. 조금 더 다양한 코너를 제작해 풍성한 방송을 꾸며주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비롯한 각종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우리나라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는데, 정작 뉴스에서 보도가 적어 서운하다. G7 정상회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6월 15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 이제 586이 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역 386세대들이, 오늘날의 불평등 문제 앞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본인도 586 세대여서 관심 있게 시청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혹독한 세대갈등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주축인 50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점도 안타까웠다. <6월 22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 VS 선별' 논쟁이 또 다시 점화됐다. 이날은 전문가들과 함께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재난지원금 목표에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토론했다. 요즘 관광지에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는 경제 상황이 괜찮다는 뜻으로 보인다. 언제나 재원은 한정되어있는데,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은 옳지 않은 것 같다. <6월 28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아베의 도박 도쿄올림픽'

- 도쿄올림픽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도쿄 등에 내려졌던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관객을 최대 만 명까지 입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날 현재 일본의 의료 한계 상황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강행 등 현지 상황을 전달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세하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6월 29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단독] “음식 강제로 먹이고 상습 폭행”...‘홀트’ 복지사 장애인 학대 의혹**
 - 한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수년간 상습 학대한 정황을 고발했다. 그런데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보호센터는 ‘홀트장애인주간복지센터’로 ‘홀트학교’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영상에는 ‘홀트학교’가 여러 차례 비쳐져 오해를 사고 있으니, 앞으로는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12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다섯 글자 제목’**
 - 이날 방송은 조금 색다르게 다섯 글자 제목으로 된 노래만을 모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색다르고 신선한 발상이었지만, 예전 방송에 비해 음질이 떨어져 아쉬웠다. 또한 비교적 덜 알려진 가수들이 많이 출연하는 점도 재미를 반감시킨다. 전성기 시절의 「가요무대」처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반주와 명 가수가 함께 꾸미는 고품격 무대를 다시 보고 싶다. <7월 14일 보고서>
- **1TV 「국악 한마당」‘월드뮤직 페스티벌’**
 - 세계민속악기와 재즈가 조화를 이룬 월드뮤직그룹 반디, 연희와 자메이카 음악인 스카가 만난 유희스카 등이 출연했다. 코로나19로 단절과 격리가 지속되는 요즘, 여행에 대한 목마름을 달래주기 위한 기획인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인 「국악 한마당」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음악들이어서 당황스러웠다.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7월 19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이날 청해부대 코로나19 감염자가 4명 추가되며, 부대원 중 확진자 비율이 89.7%까지 상승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는 군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는 보도가 많은 점이 아쉽다. 그뿐 아니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보도가 없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7월 22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투이 사장님 좋아요’**
 - 스무 살에 한국으로 와 아열대 채소들을 판매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투이 씨와, 남편 김수연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방송 중 이웃에 사는 베트남인 모녀와, 또 다른 고향 친구가 투이 씨 집에 놀러오는 장면이 담겼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투이 씨 가족 6명을 포함해 9명이 모여 음식을 만들어먹는 장면이 방송돼 보기 불편했다. <7월 28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트롯 꼬꼬마 모여라!’**
 - 노래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반인들의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오랜 시간 재미있게 시청해왔다. 이날은 여름방학 특집으로 ‘트롯 꼬꼬마 모여라!’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그런데 아직 10살도 채 안 된 어린이들이 어른 흥내를 내며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이 썩 좋게 보이지 않았다. 공영방송으로서 아이는 아이다운 모습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8월 12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제대로 마시면 만병을 막을 수 있다, 물 건강법’**
 - 한국인 5명 중 4명이 만성탈수라고 한다. 만성탈수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이날 방송에

서 만성탈수의 증상부터 똑똑하게 물 마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었다. 그런데 방송이 전반적으로 수분 보충의 장점 위주로 다뤄져 다소 아쉬웠다. 본인처럼 부종이 있는 사람 등, 수분 섭취의 부작용도 함께 다뤄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8월 20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백자철화 용문호'

- 매화 일지병풍, 백자철화 용문호, 망건통의 진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백자철화 용문호'의 경우, 의뢰인이 개인박물관을 설립해 전시를 계획 중이라 가격을 매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추정 감정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고미술품의 진가를 확인하는 것이 흥미로워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다. 추정 감정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방송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8월 31일 보고서>

○ 1TV 「시청자주간 특집 시청자가 묻는다」

- KBS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를 시청자 주간으로 정하고, 특히 이날은 이색적으로 시청자가 묻고 경영진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KBS에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되길 바랐으나, 다소 식상한 질문과 예상 가능한 답변이 주를 이뤄 실망스러웠다. 제작비가 많이 드는 사극 제작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올리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9월 6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화성외국인보호소, '한국판 관타나모'인가'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외국인 보호제도의 실상을 살펴봤다. 그런데 해당 외국인이 자해를 하는 등 여러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묘사한 점이 편파적이다. 불법체류자를 피해자로 여기게 하여 자칫 옹호 여론이 조성될까 우려된다. <11월 1일 보고서>

○ 1TV 「UHD 환경스페셜」'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지난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며 우리나라도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올바른 동물권 보장의 길을 모색해보았다. 물론 학대는 옳지 않지만, 개식용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우리나라의 문화이기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육견 사육업자와 판매상인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11월 9일 보고서>

○ 1TV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클로즈업 TV'

- 강남으로 이사 가기 위해 애쓰는 여주인공이 집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국가대표 와이프」를 다뤘다. 패널들이 해당 드라마의 문제점을 짚어주긴 했지만,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대사나 장면을 꼬집어 지적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공영방송에서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하지 않았으면 한다. <12월 6일 보고서>

○ 1TV 「긴급진단 유은혜 정은경에게 묻는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KBS에서 생중계로 긴급 편성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관련 대담을 가졌다. 현재 기저질환 환자들이 우려하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는데, 백신패스만 운운해 답답했다. 백신 부작용 등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아 전반적으로 답답하고 미흡한 방송이었다. <12월 15일 보고서>

○ 2TV 「신년 기획 연중 라이브」'2021년 올해의 소띠 스타'

- 2021년 소띠해를 맞아 연예계 대표 소띠 스타들의 사주와 관상풀이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코너의 시작

에 앞서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무속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알렸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무속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인의 한 해를 예측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1월 4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대물을 찾는 사람들'

- 길이 3m 이상의 대물 침을 찾는 사람들이 소개됐다. 대물을 찾기 위해 산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자연이 훼손될 것 같아 우려됐다. 침뿐 아니라 버섯도 채취했는데, 겨울철 산짐승이 먹을 것이 없어진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해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니, KBS에서도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집밥 퀸 오윤아'

- 배우 오윤아 씨가 오랜만에 출연해서 경상도식 '굽은 떡국'과 어묵채소튀김 등의 반찬 만드는 방법을 공개했다. 그런데 메뉴 개발보다 아들과 함께 새해 계획 세우기, 구구단 외우기 등의 내용이 더 많이 그려져 의아했다. 육아 예능이 아닌데 자녀가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다. 그보다는 스타들의 필살의 메뉴와 그 메뉴의 레시피 공개에 더 집중해주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베테랑 - 소는 나의 운명'

- 매일 저녁 해당 방송을 시청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민재 싸움소 조련사가 싸움소들을 훈련시키고, 실제로 연습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요즘은 소싸움을 비롯해 동물을 오락거리로 이용하는 산업 자체가 비판받고 있다. 동물을 사랑하는 시청자로서 싸움소들이 경기 승리를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2월 1일 보고서>

○ 2TV 「연중 라이브」'차트를 달리는 여자 - 가장 비싼 차를 산 스타'

- '차트를 달리는 여자' 코너에서 가장 비싼 차를 타는 스타 10위부터 1위까지를 공개했다. 1위를 차지한 김준수 씨는 보유했던 슈퍼카만 10대이며, 총 금액은 4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 위화감이 들었다.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2TV 「2021 설 대기획 조선팝 어게인」

- 국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한 새로운 음악장르인 '조선팝(POP)'을 내세운 글로벌 빅 쇼였다. 세계적인 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무대를 시작으로 송가인 씨 등 화려한 출연진에 잠시도 눈을 땔 수 없었다. 다만 '국악 대모' 김영임 씨가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굿판을 벌였는데, 공영방송에서 미신을 조장하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았다. <2월 15일 보고서>

○ 2TV 「설 특집 트롯 전국대잔치」

- 설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해「트롯 전국체전」의 출연자들이 흥겨운 트로트 대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기한 연장으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수많은 출연자 및 진행자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2월 15일 보고서>

○ 2TV 「달이 뜨는 강」

- 고구려 설화 속 '평강'과 '온달'의 이야기로, 신선한 시대 배경과 매력적인 서사에 끌려 매주 시청해왔다. 해당 드라마는 초반에 복식 고증 오류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어 간체 사용에 대한 의혹

이 불거져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동북공정으로 중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요즘, 공영방송에서 역사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이 실망스럽다. <4월 8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 젊은 가수들이 가요계 전설의 노래를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곡으로 재탄생시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출연자들 자리마다 비말차단용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테이블에 음료와 빵 등 음식물이 준비되어 있는 점이 모순되게 느껴진다. 코로나 시국인데 굳이 다과상을 차려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4월 27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이번 저녁 식사 복불복 게임은 '사진 콘테스트'로 진행됐다. 더 아름다운 일몰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오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결국 문세윤과 라비, 김선호 팀이 사진 보정 실력으로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사진 자체보다 보정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5월 4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택시맛객 - 산골에서 즐기는 건강한 맛, 국내산 두부 정식」

- 택시기사들이 추천하는 알짜배기 맛집을 알려주는 '택시맛객' 코너에서, 이날은 두부보쌈을 맛있게 하는 경상북도 고령의 한 식당을 소개했다. 그런데 방송으로 보기에 1인분은 팔지 않을 것 같았다. 식당을 찾을 때 해당 방송을 참고하는 운전기사들을 위해 '혼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 위주로 소개한다면 더 유익할 것 같다. <6월 2일 보고서>

○ 2TV 「트롯 매직유랑단」

- 본인은 인기리에 종영된 「트롯 전국체전」의 TOP8을 응원하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타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거나, 해당 방송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게스트가 출연해 신곡 발표를 하는 점이 「트롯 전국체전」의 팬으로서 안타깝다. 그보다는 「트롯 전국체전」 멤버들 위주로 방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6월 4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미스터Lee의 사진한 컷, 대한민국」

- 이번 주 미션 장소는 대한민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강원도 삼척시였다. 이어 사진 속 숨은 비경 장소인 덕풍계곡을 찾아갔는데, 관광객들이 사발무지에 고추장을 발라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방영됐다. 사발무지에 바른 고추장이 계곡물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염려됐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보기 안 좋았다. 자연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6월 30일 보고서>

○ 2TV 「백종원 클래스」 [첫 회]

- 첫 회에서는 백종원 씨가 한식 새내기 6인에게 잔치국수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그려졌다. 최근 KBS의 여러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이 출연하는데, 그보다는 방송 출연이 어려운 국내 연예인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집밥 백선생', '골목식당', '한식대첩' 등 백종원 씨가 요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이미 많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백종원 씨와 요리 조합이 신선하지 않고 피로도가 쌓인다. <6월 30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아빠들의 육아 도전기를 다룬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런데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소유진 씨와 박솔미 씨가 방송 내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정작 아이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스포츠

프로그램도 아닌데 지나친 해설은 오히려 몰입을 저해한다. 시청자가 아이들이 웃고 말하는 모습에 집중하며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내레이션을 줄여주기 바란다. <7월 13일 보고서>

○ 2TV 「여기는 도쿄」[체조] 남자 링, 여자 마루, 남자 도마 신재환 결승'

- 이날 신재환 선수가 남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흥철 해설위원이 중계를 맡았는데, 자막에 '여서정 아빠'라고 표기되어 민망했다. 여흥철 해설위원과 여서정 선수가 한국 최초의 올림픽 부녀 메달리스트인 것은 대단하지만, 공영방송에서 자막에 사적인 관계를 기재해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8월 4일 보고서>

○ 2TV 「조선팝, 드랍 더 비트」'3편'

- 50대 후반의 시청자이다. 해당 방송은 국악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의 협연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됐다. 그러나 제목부터 중장년층 이상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난해하고, 출연자들의 차림새 또한 지나치게 과해 보기 불편했다. 최근의 트로트 열풍으로 트로트 아니면 노래가 모든 매체와 모든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8월 6일 보고서>

○ 2TV 「1박 2일」'강원 강릉, 라면 천국'

- 이날은 '라면천국 특집'으로 꾸며졌다. 최고의 라면을 차지하기 위한 여섯 남자의 불꽃 튀는 승부는 재미있었지만, 한 그릇에 8만원에서 15만원이나 하는 라면을 먹는 모습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서민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힘겨운 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예능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8월 24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굿모닝 퀴즈'

- '굿모닝 퀴즈' 코너에 '국어사전 뜻풀이에서 서로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국화빵, 곰보빵, 봉어빵이 선택지로 제시됐고, 정답은 곰보빵이었다. 그런데 '곰보'는 얼굴이 얇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곰보빵'이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인 것은 알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0월 20일 보고서>

○ 2TV 「연중 라이브」'배우 김선호를 둘러싼 폭로의 끝은?'

-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선호 씨를 조명했다. 김선호 씨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혹은 김선호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지를 알아봤다.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김선호 씨 개인의 사생활을 방송 소재로 삼는 것 같아 불편했다. 이미 출연 중이던 예능과 광고 등에서 하차하며 사태가 일단락되었으니, 더 이상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 <11월 1일 보고서>

○ 2TV 「슈퍼 히어로」'어느 날 갑자기[첫 회]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회인 이날 방송에서는 싱크홀에 빠진 상황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런데 도로에 발생한 거대 싱크홀을 재현하기 위해 땅을 깊게 파헤쳐 주변 지반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파헤친 땅을 제대로 튼튼하게 메웠는지도 궁금하다. <12월 13일 보고서>

○ 1R 「최승돈의 시사본부」

- 시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방송이어서 주말 오후 편안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출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다만 해당 방송에서 간혹 들어주는

음악이 젊은 층 청취자만 겨냥한 것 같아 아쉽다. 1라디오는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청취자들이 청취하고 있으니 중장년층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선곡을 해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1R 「경제세미나」

-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경제 전문가들이 강연을 통해 설명해주는 점이 도움이 된다. 다만 경제 분야를 다루다보니 일반인 입장에서 난해한 용어들이 자주 사용된다. 경제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청취자들도 해당 방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설명해주기 바란다. <7월 27일 보고서>

○ 1R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날 보이는 라디오로 해당 방송을 시청했는데, '뉴스언박싱' 코너에서 두 패널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진행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후 '최고의 정치' 코너에선 진행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반면 패널로 출연한 두 의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에 청취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주기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KBS 지역국 연결'

- 이날 'KBS 지역국 연결' 코너에서 안동 김봉원 리포터가 경북 청송군에 새로 조성된 청송공원을 소개했다. 4만평 넓이의 백일홍 꽃밭을 비롯한 풍성한 볼거리와 관광객들의 인터뷰 등이 방송됐다. 그런데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연일 거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치 관광을 조장하는 것 같아 듣기 불편했다. <9월 31일 보고서>

○ 2R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해피타임 문화의 날'

- 익숙한 가요를 많이 접할 수 있어 해당 방송을 즐겨 듣는다. 좋은 노래와 생생한 사연 덕분에 재미있고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해피타임 문화의 날' 코너에서 서태지의 곡을 소개했는데, 이번 금요일에도 역시 서태지의 곡을 소개해 진부한 느낌이 들었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가수들의 음악을 듣고 싶으니 참고해주기 바란다. <4월 19일 보고서>

○ 2R 「두근두근 음악엔」

- 직업의 특성상 오후 내내 라디오를 청취한다. 특히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두근두근 음악엔」을 자주 청취하는데, 진행자 알리 씨가 본인의 곡을 지나치게 많이 선곡하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주만 해도 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알리 씨의 곡을 틀었다. KBS는 공영방송이지 개인방송이 아니므로, 청취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선곡을 기대하겠다. <10월 19일 보고서>

○ 3R 「건강 365」'전립선암'

-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최신 의학정보를 알려주어 유익하게 청취 중이다. 이날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가 출연해 '전립선암'을 다뤘는데, 어려운 의학용어를 많이 사용해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청취하므로,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기 바란다. <10월 26일 보고서>

○ 기타 「KBS WORLD News」

- 'KBS 월드 뉴스'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thumbnail)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이 유독 많다. 썸네일은 일반적으로 영상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이 유독 많은 것은 고의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해당 유튜브 채널을 시청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6월 22일 보고서>

| 9. 간접광고 |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운동기구 100% 활용법'

- 이날은 실내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따로 헬스장을 찾기 꺼려졌던 터라 주의 깊게 시청했다. 그런데 패널 김현영 씨가 착용한 하의의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노출돼 보기 불편했다. 더욱이 일본 브랜드였는데,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 앞으로는 브랜드 로고를 잘 가려주기 바란다. <4월 1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일기예보'

- 퇴근길 날씨를 전하는 기상 캐스터가 손목에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나왔다. 스마트 워치 모양으로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수가 있다.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보여 시청하기 불편했다. <9월 17일 보고서>

○ 2TV 「빨강 구두」

- 성공을 위해 딸을 버린 엄마와, 그런 엄마에게 복수하는 딸의 이야기를 가슴 졸이며 재미있게 보고 있다. 다만 틈틈이 등장하는 간접광고 때문에 집중이 저해된다. 전개와 관련 없이 소옥경(경인선 분)의 가게에 손님이 찾아와 '크릴56'을 20박스 구매하고, 민희경(최명길 분)이 수시로 얼굴과 목에 콜라겐 기미밤을 바르는 장면이 그려진다. 지나친 간접광고는 물입을 저해하니 자제해주기 바란다. <9월 17일 보고서>

| 10. 언어 |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체장질환'

- 체장질환의 원인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방송 초반에 체장염은 체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자막이 표기됐다. '발전'이라는 단어는 더 낮고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해당 내용에 부적절한 표현이다. 문맥상 '악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다. <5월 12일 보고서>

○ 1TV 「싱스트릿커넥티드」[춘천총국]

- 라디오에서 나간 사연을 TV가 이어받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아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던 옛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방송을 시청하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 다만 본인처럼 고통의 시청자들은 생소한 제목에 시청을 꺼리게 된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제목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지어주었으면 한다. <7월 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델타 변이 공포에 선진국들 추가접종 시작'

- 코로나19 발병 이후 KBS 뉴스를 더욱 꼼꼼하게 시청 중이다. 이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인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부자 나라들이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런데 '부스터샷'이라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보도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뉴스에서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말로 순화해주었으면 한다. <8월 5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우리집 작은 농장’..코로나19 속 ‘홈파밍’ 2배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집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홈파밍' 산업도 급성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홈파밍'이라는 신조어에 이질감이 들었다. 「우리말 겨루기」에서는 '파이팅' 대신 '아자'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하면서, 정작 KBS 뉴스에는 외래어와 신조어가 넘쳐난다. 가급적이면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12월 29일 보고서>

○ 2TV 「2021 설 대기획 조선팝 어게인」

- 최근 다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조선팝 어게인」의 무대 배경에 사용된 이미지가 일본식 성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기획된 특집방송이었고, 국악과 다양한 음악을 접목한 음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공영방송 KBS에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져 안타깝다. <2월 22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핫클립 플러스’

- 본인은 고령층 시청자이다. 각종 이슈를 친절하고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을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 다수의 코너명이 외국어로 되어있다. 가령 이날 '핫클립 플러스'도 본인처럼 고령의 시청자들은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가급적이면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12월 23일 보고서>

11. 방송품질

○ 2TV 「2021 설 대기획 조선팝 어게인」

- 최근 다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조선팝 어게인」의 무대 배경에 사용된 이미지가 일본식 성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기획된 특집방송이었고, 국악과 다양한 음악을 접목한 음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공영방송 KBS에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져 안타깝다. <2월 22일 보고서>

○ 1R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2021 대한민국 1교시 - 우리의 노래>」

-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었다. 1R과 3R에서 동시에 방송됐는데, 3R은 정상적으로 송출되는 반면 1R은 9시부터 몇 분간 음악만 흘러나와 당황스러웠다. 즉시 조치가 취해져 정상적으로 방송되긴 했지만, 앞으로는 청취자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4월 21일 보고서>

○ 1R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날그날의 시사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주어 꾸준히 청취한다. 본인은 특히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는 것을 즐기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 아쉽다. 본인처럼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는 애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TV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왕 방송실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화질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9월 16일 보고서>

| 12. 시청자 참여 |

○ 1TV 「가요무대」

- '겨울 애상'이라는 주제로, 슬프고 가슴 아픈 사연을 다룬 노래들을 감상해보았다.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곡들을 들으며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방청 신청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점이 오랜 팬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유리벽 설치, 띄엄띄엄 앉기 등을 실천하며 다시 방청 신청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1월 20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고향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진료를 통해 건강과 희망을 선물하는 '떴다! 내고향 닥터'를 매주 감명 깊게 시청하고 있다. 본인도 병원 진료를 받기 힘든 형편이다. 해당 방송에 출연하고 싶지만,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부터 쉽지 않다. 본인처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쉬운 신청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4월 12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걸어온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경제 이야기를 나눴다. 김태우 노후 재무 설계 전문가가 출연해 각각의 재무 상태에 따른 노후 재무 설계를 해주어 유익했다. 다만 시청자와 전문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답답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짧게라도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이 있다면 더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다. <5월 28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

- 시사 프로그램은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게 해준 프로그램으로, 매일 저녁 시청한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 하단과 스튜디오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특정 아이디어가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댓글을 종종 게재한다. 방송 무관한 댓글이나 누군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댓글에는 별점을 매기는 등, 제작진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7월 7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데일리 시사 토크 프로그램으로, 각종 시사 이슈를 전문가 패널들이 분석해주어 유익하게 시청 중이다. 다만 시청자가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는 점이 아쉽다. 「생방송 심야토론」은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 「더 라이브」는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방송에서도 시청자가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7월 9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끝까지 파헤치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 매주 시청한다. 다만 시청자들이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게시판에 이용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방법뿐이라 안타깝다. 필력이 부족할 경우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전화 제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9월 29일 보고서>

○ 2TV 「개는 훌륭하다」

- 강형욱 훈련사와 이경규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반려견들과 반려인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도 반려견과 함께 출연하고 싶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출연 신청을 받고 있어 본인처럼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은 난처하다.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2TV 「랜선 장터」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농어민과 힘을 합쳐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예능프로그램이다. 좋은 취지로 기획된 만큼 시청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오직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어 본인 같은 고령자는 구매가 어렵다.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시청자들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6월 25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굿모닝 퀴즈'

- 매일 아침 방송을 챙겨보는 고령의 시청자이다. 특히 '티벳'이라는 어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굿모닝 퀴즈'를 좋아한다.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주기도 해서 본인도 참여하고 싶지만, 고령층 시청자들에게는 어플 사용이 어렵다. 남녀노소 모두가 시청하는 공영방송인데,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ARS등의 방식도 고려해주기 바란다. <9월 24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생방송으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보여주고 최신 음악 정보도 전달해주어 매주 재미있게 시청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청객 없이 진행이 되며, 출근길 포토월도 비공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행됐으니, 이전처럼 방청과 출근길 포토월을 재개해주기 바란다. <11월 5일 보고서>

○ 1R 「오늘 아침 1라디오」

- 밤사이 발생한 뉴스를 전달해주는 생방송 프로그램로, 특히 '세농귀' 코너를 좋아한다. 그런데 본인처럼 고령의 청취자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도 문자사용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다. 문자로 적기 쉽게 객관식으로 출제해주거나, 전화연결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고령의 청취자들에게 정답을 맞히는 즐거움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1월 29일 보고서>

| 13. 홈페이지 |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그동안 「생방송 심야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보낸 문자의견 전체를 방송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에 문자의견을 취합한 파일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보는 것 또한 해당 방송의 재미 중 한 요소였다. 이전처럼 문자의견을 업데이트해주기 바란다. <9월 13일 보고서>

○ 1TV 「방과 후 초능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원격 수업이 일상이 된 초등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7일 첫 방송됐다. 아이와 함께 시청했는데 유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으나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다. 다시보거나 방송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히 홈페이지를 개설해주기 바란다. <10월 14일 보고서>

○ 1TV 「태종 이방원」

- 조선의 건국에 앞장섰던 이방원(주상옥 분)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한 드라마이다. 5년 만에 안방극장에 찾아온 사극이라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해당 드라마의 홈페이지에 특정인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역사를 비하하고 왜곡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게시판 운영자는 드라마와 상관없는 악의적인 게시물들을 관리하고 단속해주기 바란다. <12월 16일 보고서>

○ 2TV 「2021 KBS 연기대상」

- 올해도 KBS의 연말 시상식을 무척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이다. 최근「2021 KBS 연기대상」공식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접속했는데, 수많은 시청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이 '올해의 드라마' 명단에서 누락되어 당황스러웠다. 현재는 명단이 수정되어 업데이트 되었지만, 해당 드라마의 팬들은 이미 상처를 받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12월 8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출연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매일 저녁 경청하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토론 내용 전문을 게재해주었는데, 현재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청취자 입장에서 너무 아쉽다. 다시 예전처럼 토론 내용을 게재해주면 방송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월 2일 보고서>

○ 1R 「최경영의 최강시사」

- 본인은 시각장애인 청취자로 에이블(장애인 서비스) 홈페이지의 다시듣기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해당 방송은 1R 다시듣기 페이지에서 상단에 있었다. 그런데 이날부터 프로그램 순서가 가, 나, 다 순으로 변경이 되며 하단으로 밀렸고, 그 사실을 몰랐던 본인은 당황했다.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홈페이지 변경에 실망스럽고, 앞으로 홈페이지 변경 시에는 음성고지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1FM 「정다운 가곡」

- 평소 KBS의 Classic FM을 잘 듣고 있는 애청자이다. 그런데 「정다운 가곡」의 선곡표에 유독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면 탁계석 시인의 이름이 탁계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등, 작곡가나 작사가 이름에 오자가 많아 당황스럽다. 청취자 게시판에도 이를 지적하는 글이 꾸준히 게재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선곡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16일 보고서>

○ 기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 KBS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는 시청자이다. 간혹 방송을 놓친 경우에는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홈페이지 다시보기가 재생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 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14. 프로그램 구매 |

○ 1TV 「역사저널 그날」

-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역사의 비화를 들을 수 있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다. 역사 공부를 할 때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준다면 유용할 것 같다. <1월 15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

- 우리나라 곳곳의 비경과 지역 별미를 소개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을 책으로 간직하고 싶어 찾아보니 2011년대 후반에 발간된 도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방송됐던 여행지와 요리법에 대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서를 발간해주기 바란다. <6월 1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 분야와 음식은 물론, 생활 과학에서 경제까지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일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주기 바란다. <8월 13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매일 저녁 해당 방송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저렴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부터 이름난 전국 각지의 맛집 정보와 음식 조리법에 이르기까지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들을 제공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준다면 유용할 것 같다. <3월 18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매주 일요일마다 여섯 명의 멤버들이 전국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삼천리금수강산을 구경할 수 있어 눈이 호강하는 기분이다. 이제까지 소개된 국내 명소가 굉장히 많은데, 시청자들이 휴가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멤버들이 방문했던 여행지를 소개하는 도서를 발간해주면 유용할 것 같다. <7월 13일 보고서>

| 15. 방송경영(정책) |

○ 기타 「수신료 인상 불만」

- 항상 KBS 뉴스를 시청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2,500원으로 유지되었던 수신료가 3,840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심적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남겨 시청자 입장에서 불쾌한 마음이 든다. 수신료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기타 「평양 지국 개설 불만」

-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해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다수 매체의 보도를 통해 KBS가 약 20억 원을 들여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코로나19로 서민들은 삶이 팍팍한데,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월 4일 보고서>

| 16. 보도 제언 |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생후 16개월인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정인 양의 어린이집 교사와 진료했던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에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으니, KBS에서 경찰 수사체제와 신고체제의 허점을 보도해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메시지를 보내 속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본인 주변의 어르신도 해당 사기를 당할 뻔 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KBS에서 자세히 보도해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 심야에 방영되는 심층 뉴스 프로그램이다.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마감뉴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 매일 밤 유익하게 시청하고 있다. 최근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재산 축적 문제에 대해 「뉴스라인」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취재 및 보도를 해주었으면 한다. 계속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길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 점심시간을 활용해 12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 이상반응을 보인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KBS 뉴스에서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준다면 국민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4월 22일 보고서>

○ 1TV 「KBS 아침 뉴스타임」 '대상자 급등했다지만 아직은 소수...종부세 어쩌나'

- 부동산 정책 수정을 놓고 여권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 부동산 안정에 역효과라고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재산세를 매기고 추가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의문이 든다. KBS에서 종부세를 산정할 때 재산세와 중복 과세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주기 바란다. <4월 23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최근 30대 직장인들이 노쇼(예약불이행)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기사를 종종 접한다. 본인도 백신을

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 소재의 보건소에서 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자녀의 집에 와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주소지 아닌 거주지에서 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해주기 바란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이 시각 접종 예약 상황..50대 초반 사전예약·연령대 분산 실시'
 - 온종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에 접속하며 동분서주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취재기자가 사이트 접속을 해보니 대기자가 22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다른 시간대에 다시 접속해 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인의 경험상 다른 시간대에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부의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 <7월 1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일 아침 「뉴스광장」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최고 방역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 중임에도 초·중·고등학교는 2학기 전면 대면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교확대 방침에 따른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니, KBS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과 과밀학급 문제 등을 취재해주기 바란다. <8월 13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현장K] 순대 생산공장 바닥 벌레투성이..조리시설 천장에선 물 똑똑'
 -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분식집에 순대를 납품하는 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드는 보도를 접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에서 본 해당 업체의 설비 바닥은 벌레가 기어 다니고, 재료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답답하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명을 공개해주기 바란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정부, 베트남서 요소 2백 톤·호주서 요소수 2만 7천 리터 수입'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져 우리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정부가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할 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비판 보도가 적어 안타깝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길어질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나서야하는지 등을 세밀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11월 10일 보고서>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방송법 제 90 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사장과 감사실장 등 위원 7 명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센터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32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청구·철회 등)	계
8	5	5	14	32

※ 2021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 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1월6일	장**	국회의원선거 개표 결과 데이터	기타	비정보공개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2	1월12일	우**	가수 유재하 출연 프로 그램 일자별 자료	기타	비정보공개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3	2월2일	장**	분당 아름마을아파트 수신료징수 내역 등	공개	
4	2월3일	최**	KBS 전체예산중 다큐, 탐사보도 제작비 등 (2018-2020)	부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항 영업상 비밀 일부 해 당
5	3월24일	최**	KBS모니터 운영세칙,규정/현황.지 향점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항 영업상 비밀 일부 해 당
6	3월24일	박**	2016-2020 시청자위원의 성명,성 별,추천단체,경력 등	공개	
7	3월29일	윤**	20년이내 실시한 KBS의 비전자기 록 상태평가 보고서	부분공개	자료 부존재하나 기본 계획 등은 일부 공개
8	4월1일	연**	협찬고지 이행실적 및 자료 전체	공개	
9	4월2일	김**	1995년 <교통사고 반으로 줄입시 다> 영상	기타	비정보공개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10	4월23일	정**	역사저널 그날'80회 군함도편 자 료화면 출처 등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1	5월18일	박**	한남동 현대 하이퍼리온 CCTV 공개	기타	CCTV 보관자료 자동 삭제로 공개할 자료 없음을 안내
12	5월19일	김**	한남동 현대 하이퍼리온 CCTV 공개	기타	CCTV 보관자료 자동 삭제로 공개할 자료 없음을 안내
13	5월20일	황**	한남동 현대 하이퍼리온 CCTV 공개	기타	CCTV 보관자료 자동 삭제로 공개할 자료 없음을 안내
14	6월6일	전**	TV수상기 여부에 따른 수신료 부과 원칙,근거 등	공개	
15	6월29일	김**	KBS세대인식 집중조사 원자료나 통계원시 자료	부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5항(시험,검사 등)에 해당 일부 비공개
16	7월2일	이**	굿모닝대한민국 게시한 특정인의 글 캡처본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6항(개인정보 등) 에 해당 비공개
17	7월3일	황**	1997년 피의축제 열람 등	기타	비정보공개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18	7월14일	경기**	2005년 KBS 역사스페셜 영상 파일 및 보조자료	기타	비정보공개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19	7월15일	김**	1982년-1988년 강변가요제 영상 파일	기타	타방송 프로그램임을 이메일로 안내
20	7월17일	신**	1987년 '11시에 만납시다' 영상 파일 등	기타	비정보공개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21	7월18일	최**	불용유휴 장비의 매각 및 입찰 절차	공개	
22	7월27일	김**	설문결과 공개 및 연구 용역비 지급 내역	부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5 항(검사),6항(개인정보)에 해 당 일부 비공개
23	8월10일	박**	국민 신문고 관련 민원 처리	이송	
24	8월21일	김**	지역뉴스 관련 방송자료 공개	자료 부존재	이메일로 안내
25	8월26일	정**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운영 관련	기타	비정보공개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26	9월6일	이**	전국노래 자랑 가족관련 파일 제공	기타	비정보공개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27	9월14일	김**	진해성에 대한 학폭관련 민원횟 수와 내용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5항(감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
28	9월16일	곽**	감사실 전화통화 자동녹음 내용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5항(감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
29	10월2일	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변화 추이 보고서 자료 등	공개	
30	10월26일	김**	KBS의 언론사,언론인 상대 소송 건수(3년간)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31	11월3일	김**	KBS의 사내 직원에 대한 대출 목적 및 운영 취지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6 항 (개인정보보호) 등에 해당
32	11월10일	김**	KBS 추적60분 폐지 이유및 동 영상 삭제 이유	부분공개	동영상 삭제이유는 공개,프 로그램 폐지이유는 정보부존재



시청자 권익보호

■ 시청자 권익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제 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권리소위)

1. 구성

- 시청자위원(3명) 및 KBS고충처리인으로 구성

2.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 직무 및 권한

- KBS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실적 검토
- 고충처리 미해결 안건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 방송으로 발생된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손상,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3. 소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1회
- 조치
 - 시청자권리보호소위 회의에서 검토, 결정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선정성·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처리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77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6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시청자센터장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KBS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122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122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우편·전화·팩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4		4	8
2		6		7	13
3		6		3	9
4		6		6	12
5		5		3	8
6		4		3	7
7		4		5	9
8		4		9	13
9		4		7	11
10		4	1	4	9
11		8	2	3	13
12		3	1	6	10
계		58	4	60	122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75건)			비제작부문(47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수신기술 (난시청, IT)	기타	
건수	5	28	42	15	24	8	122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2	1.6%
보도 취재요청	3	2.5%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3	2.5%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2	1.6%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4	3.3%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34	27.9%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37	30.3%
난시청, 난청	20	16.4%
경영(직원, 시설)	16	13.1%
수신료	1	0.8%
계	122	100.0%

7

시청자청원

■ 시청자청원이란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KBS는 시청자가 요구하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 시청자청원 절차

청원 발의를 위해서는 KBS 홈페이지 가입이 필요합니다.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 추천은 주요 SNS (Facebook, Twitter, Naver)계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카카오의 경우 중복 아이디 차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시청자 프로그램, 동영상,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드립니다.



■ 시청자청원 운영세칙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운영세칙

1. 욕설 및 비속어는 삼가 주세요.
2.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반복해 게재할 경우 사이트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청원 작성을 위해서는 [KBS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답변 및 회신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단, 청원 동의는 SNS회원도 가능합니다.
7. 청원 작성 전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8. 같은 내용으로 중복 게시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삭제됩니다.
9.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청원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 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 현황]

월	구분	접수	비고
1		119	
2		308	
3		278	
4		191	
5		186	
6		79	
7		126	
8		91	
9		83	
10		873	
11		242	
12		175	
계		2,751	

※ 청원: 2018.09.04. 오픈

8

제작진 답변과 시청자 권익보호

1 제작진 답변

'KBS 제작진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센터에서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³⁾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⁴⁾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센터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⁵⁾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민원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거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이다.

4)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5)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input type="checkbox"/> 1TV [코로나 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 보도 제언</p> <p>- 한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수년간 상습 학대한 정황을 고발했다. 그런데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보호센터는 '홀트장애인주간복지센터'로 '홀트학교'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영상에는 '홀트학교'가 여러 차례 비쳐져 오해를 사고 있으니, 앞으로는 주의해주시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사회부</p> <p>- 방송 당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영상을 다른 화면으로 교체하는 등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학교 측과도 통화를 통해 양해 구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1TV [코로나 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보도 제언</p> <p>-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분식집에 순대를 납품하는 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드는 보도를 접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에서 본 해당 업체의 설비 바닥은 벌레가 기어 다니고, 재료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답답하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명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정치부</p> <p>-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타 업체에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뉴스에선 이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식약처에서도 객관적으로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편 성	<p><input type="checkbox"/>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분량 제언</p> <p>- 샘 해밍턴의 아들들인 윌리엄·벤틀리 형제를 보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빠짐없이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샘 해밍턴의 육아방식에 배울 점이 많고, 윌리엄·벤틀리 형제의 귀엽고 순수한 모습에서 위안을 얻는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 샘 해밍턴 가족이 출연하지 않아 크게 상심했다. 매주 샘 해밍턴 가족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예능 6</p> <p>- 제작 여건 상 샘 해밍턴 가족뿐 아니라, 각 가족의 상황에 따라 중간 중간 휴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차는 아니며, 이번 주에는 출연할 예정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1TV [2020 도쿄 패럴림픽 폐막식] 편성 제언</p> <p>- 2020 도쿄 패럴림픽이 13 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이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감명 깊게 시청했던 터라 폐막식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KBS 에서 생중계가 아닌 녹화중계로 편성됐다. 생중계로 편성되었더라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스포츠중계부</p> <p>-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생중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녹화중계를 한 점 양해바랍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6시 내고향] 출연자 의상 제언</p> <p>- 겨울 산에서 약초를 캐는 '약초꾼 삼총사'가 소개됐다. 그런데 이 약초꾼들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본인은 30년 동안 군복무를 했던 직업군인인데,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유사군복을 입으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하는 동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될 수 있으면 군복이나 경찰 제복 등 유사제복을 착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p>	<p>□ 담당부서 : 시사교양 2 국_시사교양 1</p> <p>- 일반인 출연자들의 일복 혹은 작업복으로 실제 군인과 혼동할 만큼의 유사한 착장은 아니지만,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p>
	<p>□ 1TV [6시 내고향] 방송 제언</p> <p>- '인생은 행복海' 코너에 아버지를 따르고자 20여 년 만에 귀어해 경남 거제에서 멸치 잡이를 하는 박노현 씨 가족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멸치 금어기로 지정되어 멸치 어획이 금지되어 있다. 해당 방송이 언제 촬영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멸치 금어기 기간에 방송되었던 부적절한 내용인 것 같다.</p>	<p>□ 담당부서 : 시사교양 2 국_시사교양 4</p> <p>- 기선권현망: 4-6월까지 금어기. 유자망: 4-6월까지 깊은 곳은 금어기, 연안은 가능(부산 기장에선 연안에서만 잡음). 정치망: 금어기 없음 (멸치는 먼 바다에서 산란하는데, 정치망은 근해이고 잡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망은 정치망이었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생로병사의 비밀] 시청자 참여 제언</p> <p>-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알아야할 정보들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만성통증, 삼차신경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내용을 접하고 제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시청자들의 원활한 제보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p> <p>□ 1TV [우리말 겨루기] 진행자 제언</p> <p>- 재미있는 퀴즈와 대결 구도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엄지인 아나운서의 편안한 진행이 집중력을 높인다. 그런데 지난 12월 말부터 엄 아나운서가 휴가로 방송에 참여하지 않아 오랜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아쉽다. 엄 아나운서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하루 빨리 복귀해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시사교양 2 국_시사교양 3</p> <p>- 전화 인입량이 많고, 담당자들의 재택근무 및 휴일 등으로 통화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p> <p>□ 담당부서 : 시사교양 1 국_시사교양 3</p> <p>-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었고, 다음 회 방송부터 복귀 예정입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 1TV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자 발언 제언</p> <p>- 이날 가수 니브(Nive)가 출연해 그룹 BTS의 멤버 뷔와의 훈훈한 일화를 공개했다. 이어 BTS의 새 앨범에 수록된 'Blue&Grey'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유희열 씨가 니브에게 "이 곡을 원곡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곡의 제작에는 니브만이 아닌, 뷔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유희열 씨의 발언은 'Blue&Grey'가 원곡자가 부른 곡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부적절하게 느껴졌다.</p> <p>□ 2TV [개는 훌륭하다] 방송 제언</p> <p>- 이날 '무엇이든 제보하개' 코너에서 축구 천재견이 소개됐다. 출연자가 자신의 반려견이 축구장을 누비며 축구하는 영상을 소개했는데, 일반적으로 잔디구장에는 잔디 손상 등을 이유로 동물출입을 금지한다. 출연자가 촬영한 영상이니 어쩔 순 없지만, 앞으로는 제작진이 자막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안을 고지해주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p>	<p>□ 담당부서 : 예능 4</p> <p>- 2021년 1월 8일에 방송분에 대해 시청자들의 정정 문의가 있었습니다. 본 방송 시, 니브가 부른 "blue & grey" 작사 작곡에 공동작업 자막 표기는 하였으나 원곡자 1인 작업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하였으며 방탄소년단과 니브 팬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스케치북은 뮤지션 입장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스케치북을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p> <p>□ 담당부서 : 예능 4</p> <p>- 해당 방송분 촬영은 풋살장에서 관계자 허락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출연자가 촬영한 영상의 경우,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p>□ 1R [KBS 열린토론] 출연자 제언</p> <p>- 알페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았다. 알페스는 실존 인물 간의 동성애와 성적 관계를 묘사한 하나의 장르로, 실존 인물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강력히 규제해야한다. 그러나 손 변호사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알페스를 하나의 문화로 보며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듣기 불편했다.</p>	<p>□ 담당부서 : 1 라디오국</p> <p>- 안녕하세요 KBS 열린토론 제작진입니다. 해당 방송분은 '지.목.전 토크'라는 코너로서, 찬반 토론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색다른 시선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입니다. 알페스를 편파적으로 옹호했다는 의견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패널들 역시 실존 인물에 대한 도를 넘은 성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법적 처벌 가능성도 설명했습니다. 알페스를 'n 번방 사건'과 동일선상에 두고 논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멘트를 일부 청취자들이 젠더 갈등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논의를 확장시킨 만큼 알페스를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1 라디오의 타 시사 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 오태훈의 시사본부,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등)에서도 같은 아이템을 다뤘습니다. <KBS 열린토론> 역시 내용적 측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었고, 청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소개, 반영하며 상식선에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p>

9

부록(강령, 규정, 기준, 지침)

1

KBS 방송강령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총 강]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방송 강령]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균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도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개정 2016.4.20. 규정 제1328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직권개정 2019.6.19. 규정 제14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가. 질의, 건의, 진정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4. 20.>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센터,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 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직권개정 2019. 6. 19.>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개정 2016. 4.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 업지사장은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개정 2016.4.20.>

제14조의2 (민원심사관)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 기타 필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 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9)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08. 8. 1>

[별표2] <삭제 2008. 8. 1>

[별표3]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질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0.>

<민원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 월 일	월일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4. 20.>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3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처리규정 제15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2019.6.19.)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고충처리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방송채널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프로그램명				
피해사실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KBS 고충처리인 귀하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부사장
 - 위원: 전략기획실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 1 본부장, 기술본부장, 감사실장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인 시청자센터장이 맡는다.
5.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 정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7. **의사록**
 -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결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 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결 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5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 또는 'KBS'로 한다)가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 및 신뢰 증진을 위해 구축한 '시청자청원'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원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청자청원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중복해 청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청원 발의자는 KBS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청원대상 및 분류:** 청원사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청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운영한다.

항목	내용
방송편성	편성요청, 폐지(반대), 방송분량, 편성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도	(TV·R) 정규 뉴스, 특보, 속보
프로그램	(TV·R)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출연자, 방송참여, 광고 등
방송기술	난시청, 송수신, 영상, 음향, 세트 등
방송경영	행사, 사업, 계열사, 수신료 등
SNS·홈페이지	다시보기, 게시판, 방송정보, 실시간 방송, KONG, MY K 등
시청자권익	방송피해 및 권리구제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4. 청원 발의 및 청원절차

- ① 발의된 청원은 KBS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접수된다.
 - ② 발의된 청원은 청원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할 수 없다.
 - ③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천 명 이상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청원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기능은 주요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 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 관리자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게재하도록 한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기존 민원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 ⑥ 정해진 기한 내 청원 성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은 일정기간 게시 후 삭제할 수 있다.
 - ⑦ 청원 성사 및 성사된 청원에 대한 답변이 홈페이지에 게재될 시, 관련 사항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원 발의자에게 알려준다.
5. **청원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사안은 관리자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①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제기한 중복 청원
 - ②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청원
 - ③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
 - ④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청원
 - ⑤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청원
 - ⑥ 기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유통신택기구의 '정책규정' 등에 저촉되는 청원

6. 청원업무 관리자와 권한

- ① 원활한 청원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관리자를 둔다.
- ② 관리자는 시청자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③ 관리자는 시청자가 발의한 청원내용이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삭제 및 숨김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 발의자에게 해당내용을 통지한다.
- ④ 관리자는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중복ID사용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발의된 청원에 동의(추천)를 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관리자는 청원이 성사된 경우 청원답변 시한 내 답변이 게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⑦ 관리자는 장기간 동안 성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원에 대해서는 임의 삭제할 수 있다.
- ⑧ 관리자는 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이 제출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⑨ 청원제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3차례 이상 어길 경우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7. 시청자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제출

- ① 청원내용과 관련된 부서책임자(본사 부장급이상, 지역(총)국은 국장급이상)는 성사된 청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다.
- ②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산과 인력은 시청자 센터 내 시청자프로그램 예산과 제작인력을 활용한다.
- ③ 기타 세부업무처리는 기타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다.